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신비의 라오스 6일
6월 21일, 28일, 7월 5일, 12일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6월 8일(음력5월 2일) 수요일 (주간) 제529 호

매장→ 화장→ 납골

지금은 '산골(散骨)' 시대

'수림장' 에 시선 집중… 은해사 · 일불사 · 장안사 등 운영

정부, 20일 공청회 후 법률개정 움직임

'매장(埋葬), 화장(火葬)과 납골(納骨), 그 너머 산골(散骨)로….'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매해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토지가 묘지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무덤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71년 7%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2003년 46%를 넘어섰다. 최근 조사에서는 사후 화장을 원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매장' 중심 장례 문화가 유해를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모시는 '납골' 에 수백 년간 지켜온 독보적 지위를 내주고 있다.

장례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납골 장례문화도 최근 구시대적 방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과 납골묘 납골당이 조성되며 발생하는 환경 파괴, 최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은 호화 납골묘 문제가 그 원인이다. 현재 납골묘도 201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납골 장례문화의 대안은 무엇일까? 화장과 납골 장례문화의 빈자리를 메울 유력한 대안은 제3세대 장례 방법인 '산골'이다. 특히 화장한 유골을 특정 나무 등 기념물 아래 땅에 묻는 수림장(樹林葬) 등 한국형 산골 장례법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급에 나서면서 수림장 형태의 산골 장례법 제정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수림장 도입을 위해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산골제도 도입 등을 위해 '장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림장 등 산골 장례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4년 9월 타계한 원로 임학자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수림장으로 치러지면서부터다.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일반 산골과 달리, 수림장은 장례 이후 추모 제사가 가능해 유족의 거부감이 적은데다 납골당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여기에 자연훼손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림장을 할 경우, 산림을 이용하면서도 민둥산 같은 무림지(無林地)를 수림장터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수림장뿐만 아니라 화단장, 잔디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화장식 장례 문화 발원지인 불교계에서는 최근 수림장을 적극 수용할 태세다. 경북 영천 은해사는 최근 5만평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를 수림장터로 조성, 5월 24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충남 일불사와 경기도 고양 장안사도 추모공원을 조성해 수림장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림장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수림장의 발생지 스위스는 현재 전국 26개 주에 55곳의 수림장림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은 유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꽃과 나무를 심는 수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림장 희망자 동호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일가족 나무를 한군데에 모아 가족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장미나무 아래 산골을 한 뒤 나무에 고인의 명패를 걸어둔다. 독일 헤센 주 호프가이스마라는 작은 도시에는 40만평의 참나무 숲이 수림장으로 조성됐다.

청와대 김인식 농어촌비서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수림장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화재와 수해 등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경우 수림장이 미래의 장례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이 5월 28일(현지시간) 뉴욕 인터페이스센터에서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간 화합과 상생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불교 연구학자에 장학금 지원"

법장 스님, 하버드대서 종교학자들과 환담

"2차 세계대전 후 하버드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는 일본인 1명뿐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8명이다. 특히 도날드 스웨어 교수가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종교연구소 소장으로 최근 임명될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는 없다.(로버트 지멜로 교수 · 동아시아학 및 종교학)"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30여명 있다고 들었다. 한국불교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 중 2~3명 정도 전액 장학금을 줄 생각도 있다. 추천해 달라.(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티베트나 일본불교 보다 상대적으로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법장 스님이 현지시각 5월 27일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를 방문, 장학금 쾌척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멜로 교수는 "하버드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학생들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또 불교신문사장 향적 스님이 한국불교 연구가 미약한 이유를 묻자 지멜로 교수는 "미국 내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한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점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고, 스웨어 소장도 "한국사람들의 정착기간이 짧아 대학 내 강좌가 많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면 스님이 "한국불교 장단점에 대해 조언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지멜로 교수는 순천 송광사에서 몇 주 지냈던 경험을 소개하며 "선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중국불교사 수업시간에 송나라 시대 선 모습을 알고 싶으면 한국 선방에 가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멜로 교수가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통합성'을 꼽자 법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적 사상이나 이념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간화선에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법장 스님의 방문과 관련 스웨어 세계종교연구소장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오셔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 자체가 매우 큰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9면

글 · 사진/미국 보스턴=남동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 · 조태호

화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자연환경과 생명윤리' 주제로

13~15일 예산 수덕사서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3~15일 '자연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법장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등 양국 불교계 대표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3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4일 오전 10시부터 황하정루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세미나, 문화공연, 성지순례 순으로 진행된다.

기원법회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법장스님 대회사,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표백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홍파스님 상축,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운덕스님 인사,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축사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어 2부 순서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자연환경및 생명윤리세미나에는 한국측 충남대 철학과 이평래 교수와 일본측 다이쇼대 불교문화학회 회장인 다다고쇼 스님이 주제발표한다. 3부는 사물놀이(신양초교생), 태평무(이옥자), 축가(수덕사 합창단)등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6월 14일 오후 6시 30분 온양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충남도지사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15일 부여지역을 성지순례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 특 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 자주, 흰색, 노랑, 파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소원성취(자주)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간
· 해설집
· 독송집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198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국고 보조금 제대로 쓴다”

조계종, 집행·정산지침 사찰에 하달

조계종이 문화재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화엄사 등에서 국고보조금 유용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교구본사 및 관람료 사찰 80여 곳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이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를 통해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한 불사특별회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후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나 사찰운영을 투명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의거 엄중 문책하겠다”며 지침 하달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종은 지침에서 사찰부동산관리령 승인 조항에 전각 등의 ‘철거’ ‘신축’ 조항을 삽입했고, 각종 불사의 승인 요청 단계를 사찰-교구본사-총무원 재무부로 명기했다. 또 불사 타당성은 총무원 문화부에서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 시 통장의 인출기록 및 사업비 지출일자, 영수증 일자 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각종 수당 지급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것 등을 각 사찰에 강조했다. 사업완료 후 진행하는 정산 역시 보조금 사업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법안 스님은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종단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직지…’에 관심 집중 6월 3~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도서전에는 불서 200여종이 전시·판매 된 가운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영인본 및 복원본도 전시됐다. 청주시 직지세계화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인쇄 체험행사와 ‘직지를 찾읍시다’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10·27법난 ‘진실’ 규명될까?

조계종, 국방부 과거사규명위에 ‘기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전국 3000여 사찰이 짓밟혔던 10·27법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방부 차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 이하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키면서 ‘잘못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27법난은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비리척결을 이유로 전국 사찰에 군인들을 투입, 300여명의 스님들을 연행하고 56명을 구속했던 대대적 불교탄압 사건.

이후 불교계는 1986년 9월 7일 해인사 승려대회에서 10·27법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어 1995년 조계종 중앙종회가 10·27법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민중불교운동연합, 정토구현승가회 등이 주축이 돼 10· 27법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보상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국회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진상규명위 구성을 계기로 법난 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당사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국방부가 과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 국가차원의 사과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6월 9일 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교단 위상 훼손 유인물 강력대응”

조계종 호법부 간담회서

조계종 호법부가 흑색 음해 투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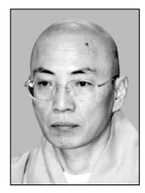
조계종 호법부는 6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봉축기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내외 모든 사찰·단체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종단 공식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검증되지 않은 잡지의 기사를 선정적으로 투서하는 한편, 일방적 주장만을 전제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봉축 직후 누군가 조계종 중앙종회사무처 봉투를 도용해 〈시사저널〉 기사 중 불교중앙박물관 기사만 스크랩 한 뒤 조계종 본말사 뿐 아니라 타종단 사암, 신행단체에 발송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이 우편물로 인해 중앙종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5월 30일 조계종 호법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호법부는 “이는 현 종단 창종 이래 모진 내외부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일구어 나온 종단과 교단의 위상을 일거에 훼손하고, 80년대에나 존재했던 종단의 구태와 악습을 재연하려는 조짐 외에 다름 아니다”라며 “호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 10일 취임



법화종 17대 총무원장 혜륜 스님 취임법회가 6월 10일 오전 11시 통영 안정사(주지 덕진)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운명 스님을 비롯, 각 교구 종무원장, 원로의원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취임법회에서는 법화종 창종 59주년 기념식도 함께 거행된다. 강유신 기자

학능 스님 입적 6일 백양사서 다비



백양사 주지를 역임한 학능 스님이 6월 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신림동 용화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64세. 법랍 50세.

영결 다비식은 6일 오전 9시 30분 백양사에서 문도장(호상 지선 스님)으로 봉행됐다. 학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7~10대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02) 877-8372



동국대 일산병원이 6월29일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5월31일 열린 모의진료 모습. 앞줄 오른쪽은 이석현 원장.

“워밍업에 최선…29일 정식 개원”

동국대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모의진료 시작

빨간모자를 쓴 모의환자가 외래 등록 접수대에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손님 2층 외래진료실로 가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가상환자의 진료의뢰를 접수한 원무팀 박세진씨의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다. ‘점검표’를 손에 든 모의환자 주위를 둘러싼 참관의사들과 직원들은 긴장된 눈으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돌발 상황을 체크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나 차트 없이 100% 전산으로만 이뤄지는 낯선 병원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다.

이날 일산불교병원은 재단 상임이사 영배 스님과 이석현 원장을 비롯한 의사,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료정보시스템가동 및 모의진료’를 개시했다. 개원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모의진료는 병원을 내방한 모의환자가 각종검사와 진료를 마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날은 먼저 정형외과 외래진료과정을 테스트했다.

이에 앞서 일산불교병원은 세계 최초로 양·한방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구축하고 27일 본격적인 개통식을 개최했다. EMR 도입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앞으로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MR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양식과 각종의료 차트, 필름 등을 전산 데이터로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래 병원의 심장과 뇌에 해당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석현 원장은 “불자들이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불교병원은 6월 29일 정식개원을 시작으로 본격진료에 돌입한다. 조용수 기자

“6월은 호국정신계승의 달” 태고종 전국사암서 추모행사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태고종 산하 2900여 전국 사암에서 추모행사가 펼쳐진다.

태고종은 6월 1개월간을 호국영령 추모 및 호국불교정신 계승 기간으로 정하고 6월 6일 현충일법회와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5월 25일 종단 산하 20개 종무원과 주요 사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종무원과 사찰의 일정에 따라 호국영령 추모법회와 기념행사를 봉행해줄 것”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분열 현상을 호국불교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의 마음에 나라사랑의 정신이 확고해지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지역 종무원과 사찰별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령재 행사도 적극적으로 봉행하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0~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의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6월15일(음 5. 9)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붕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 서울총무원 : 전화 02)998-8161~2 전송 02)998-8384
2) 의령 일붕사 : 전화 055)572-9990, 572-7777
3) 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 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불기 2549(2005)년 6월 일

◎ 회 주 : 현 붕 해 대종사
◎ 증 명 : 김무찰 대종사, 조혜륭 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원장), 김명종(장로부의장), 유청송, 염원각, 송원경, 이송은, 박수암 등 장로위원 / 홍학암(보존회의장), 김동암(국제승가회장), 한화란(금강선원총재), 나황정, 황원광,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 지도위원 : 이무성,김진궐, 김덕수, 송월성, 박혜강, 장삼준, 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 봉행위원장 : 정동봉(총무원장)
◎ 봉행부위원장 : 최혜천(총무원부원장), 김원각(포교원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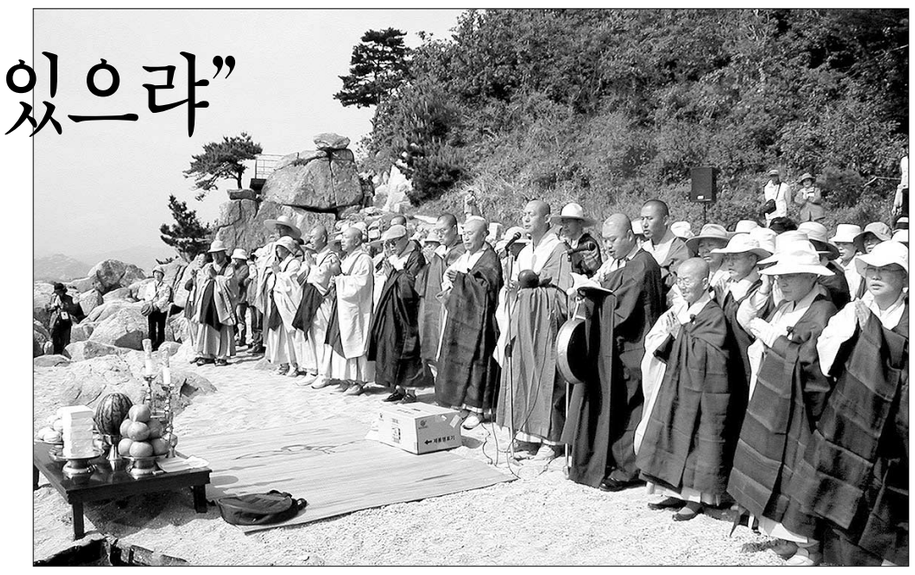
◎ 일붕 존자 열반 9주기 추모대재 봉행위원회
◎ 추 진 위 원 장 : 엄지공(중앙종회의장)
◎ 추진부위원장 : 이정수(중앙종회부의장)박도안(종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해(일붕사신도회장), 배맹자(일붕약사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 기 획 위 원 장 : 최용암(호계원장) ◎ 집 행 위 원 장 : 김화엄(감사원장)
◎ 진 행 위 원 장 : 정법성(선거관리위원장)
◎ 각교구동원위원장 : 유심(부산교구)/석담(대구교구)/유정(인천교구)/ 도안(대전교구)/화엄(울산교구)/법해(경기남부)/ 도혜(경기북부)/보해(강원동부)/동청(강원서부)/ 정수(경남교구)/해동(경북교구)/혜성(전남교구)/ 혜선(전북교구)/영명(충남교구)/서울교구, 충북교구(총무원직할)
◎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법해(교육부장)/ 재무분과-영명(재무부장)/ 의전분과-정수(경남종무원장)/ 섭외분과-지성(규정부장)/ 봉사분과-경운(사회부장)/홍보분과-원덕(홍보부장)/ 경호분과-정철(법사단장) / 사무분과 -일웅(총무국장)

■ 주최: 일붕존자 열반9주기 추모대재 봉행위원회 정 동 봉
■ 주관: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 사 장 현 경 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주지 김 혜 운
(재)대한불교 일붕 문도회 중 앙 회 장 김 도 기

■ 주관: 일붕존자 유지보존 협의회 공동의장 현 붕 해, 홍 학 암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단 이 사 장 정 철
일붕법왕 사상연구소 이 사 장 이 존 영 합장

"청정대해 물고기에게 남북 있으랴"

동화사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금강산 방생대법회



동화사는 5월28일 해금강 일원에서 '민족공동번영기원 남북불교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역교구차원 최초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남측불교도의 통일기원문이 5월 27일 금강산 신계사에 올려 퍼졌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는 광복 60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5월 26~28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기원 금강산 신계사 참배 및 해금강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7천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행사였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3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27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된 남북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는 환영사, 통일기원문 낭독, 법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과 반전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사항 결의문 발표로 이어졌다.

지성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금강산 신계사 방문을 계기로 마음속의 번뇌 망상 잡념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세계 인류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남북평화통일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통일도 다 이뤄질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금강산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도 "신계사 복원 사업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불교계가 조성하는 일이며, 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신계사 복원사업에 동참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배단을 환영했다.

남측 불교도 320여명은 이날 법회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며, 불교인들이 독도를 수호할 것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켜 반전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실천행을 벌일 것 △7천만 겨레와 함께 힘을 모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실천할 것 등을 결의하고, 신계사 복원불사에도 동참했다.

28일에는 해금강일원에서 민족공동번영 기원 남북불교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남북분단이후 북에서 처음으로 갖는 방생법회로 과일 떡 향로 등 물품을 남측에서 준비하고, 방생을 위한 어류 6마리를 북측에서 구해 어렵게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청정대해의 물고기는 남북이 없으며,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며, "어류방생을 통해 통일염원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먹을 것이 귀한 북한 사정 탓인지 물고기 방생의 의미를 몰라 의아해하던 10여명의 북측안내원들도 이날 법회 후 "왜 방생법회를 봉행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여 불교의 전통인 생명존중사상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글·사진/금강산=배지선 기자

상월 대조사 열반대재

천태종, 3일 구인사서

천태종을 중창하고 초대 종정을 역임한 상월원각대조사 31주기 열반대재가 6월 3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조사님은 평소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하셨다"며 "천태종도들은 금강대 인재불사, 평화통일 불사 등을 통해 대조사님이 가르치신 3대지표를 실천하는데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열반대재는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 충북도청 이원종 도지사, 열린우리당 서재관의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의 추모사에 이어 추모가 합창, 관음정근,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회향됐다. 김원우 기자

국공립校 종파교육 불허

국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하 교육부)는 5월 24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공립학교 특별활동에 종교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특정 종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자연은 6월 2일 교육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유철주 기자

조승수 의원 살리기 나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 8개 단체가 모여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불자자킴이 모임(상임대표 진관)'을 결성하고 조승수 의원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단체는 5월 30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에 무죄판결을 호소했다. 강지연 기자

"통영 케이블카 건설 반대 변함없다"

조계종, 입장 재확인

조계종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케이블카 건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념 스님은 또 "조만간 통영을 방문해 지역 사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케이블카 건설부지가 조계종 소유임에도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계종이 공사중지와 케이블카 건설 불허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대표는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계종이 하루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가 창립 85주년을 맞아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를 6월 11~12일 전남 순천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청년불자여!!! 미래의 등불을 밝히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청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통일과 민족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한마당 및 미래의 서원을 비는 탑돌이 '불청 범종을 울려라' 퀴즈 프로그램을 비롯, 2005년 청년 불교도 서원 및 시상식이 열린다. 강지연 기자

동국·위덕대 수시 모집

각각 287·140명 선발

2006학년도 종립대학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일반우수자 전형 254명, LST(Leadership, Special Talent) 전형 30명, 연기재능우수자 전형 3명 등 총 287명을 선발한다. 불교대학의 경우 일반우수자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월 13일~18일 (동국대 홈페이지 www.dongguk.edu)

한편,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에서 일반우수자 전형 3명, 만학도 전형 일반인 3명, 선학과 스님 10명을 선발한다. 불교아동학과, 유아교육과도 일반우수자 전형으로 각각 3명씩 선발한다.

△위덕대=일반학생 전형 89명, 실업계고교졸업자 전형 25명, 농어촌학생전형 26명 등 3개 전형에 총 140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월 18일~22일 5일간이며, 위덕대 원서접수처 또는 홈페이지(www.uu.ac.kr)

한편, 중앙승가대(조계종 종립)와 금강대(천태종 종립)는 오는 10월 수시 2학기만 모집. 조용수 기자

SGI 경계 여론 속 불교계 자성 목소리

▮본지 한국SGI 보도 그후

본지의 한국SGI 관련 기사가 보도(527호 1면, 528호 8면)된 이후 한국SGI의 실체를 알게됐다는 의견들과 함께 한국불교가 구태를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 도현사 주지 지선 스님은 "SGI가 평화봉사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단체와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자신의 종교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헤쳐 신도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부산 지역의 불자라고 밝힌 손모(39)씨 역시 "한국SGI가 이렇게까지 성장한지 몰랐다"며 "불교계 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붓다뉴스 ID '이것참'은 "한국불교 위기의 본질은 현대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불법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에 있다"며 기존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포교 방법을 혁신하는 것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단자정 문제를 여법하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기존 불교계의 악습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ID '함박소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불자들을 그나마 SGI가 이끌어 주었다. 반일감정을 이용해 일본 불교라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ID '참회하라'는 "기성불교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 늘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는 법이다. (한국SGI를) 새로워지려는 불법의 자연스런 몸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SGI 홍보국의 한 관계자는 "기사가 지나치게 SGI를 부정적으로 왜곡한 것 같다"며 "SGI의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포교방식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존 첫선

800여명 참가 천연염색체험 인기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의 청소년 문화존이 5월 28일 첫 선을 보였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우정공원 앞에서 중·고등학생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풍물패의 길놀이로 북촌 인사동 청소년 문화존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목동청소년회관의 보컬그룹 '모티브', 파라미타 문화 지도위원 범성 스님, 동대부속여중 댄스팀 '크라티아'등이 출연했다.

첫 날 문화존 체험은 △역사문학기행 △북촌 한옥길 탐방 △경복궁 탐방 △창덕궁 탐방 △운현궁 탐방 △불교문화 체험(사물시연) △인사동 갤러리모니터링 △전통공예 체험-매듭공예 천연염색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공예 체험의 천연염색 코너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염색천이 모자랄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

조한곤 과장은 "청소년 문화존은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 지역을 배경으로 한 불교와 전통문화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며 "학교 C.A활동, 사찰학생회 등과 연계해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참여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일붕 대종사 원적 9주기 추모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봉행위원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한 일붕 대종사님의 생전 원력을 계승하고자 일붕 대종사님 원적 9주기를 맞이하는 오는 6월 15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미국 선종대학(일붕삼장대학원 본교) 총장이신 고성 대선사를 모시고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와 아울러 만등불사를 봉행코자 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증 명:고 성
●고 문:정 각 동 명 청 곡 원 정 이법산 김광태
한정섭 이배영 오형근 최종천 최송식
●대법주:봉 암
●법 주:법 우

〈지도위원〉
도배 도만 도활 도진 도찬 법만 설우 효담 정봉 도응
법용 법진 월담 월인 석담 도원 대성 법광 지원 혜문
태허 무용 경호 혜진 법천 완호 진성 혜성 동성 대덕
상호 상열 진우 대산 규암 무위 해명 탄형 영광 혜광
혜국 혜진 혜오 혜도 혜관 운광 혜광 (일붕문도회)

●봉행위원장:법 철
●부 위원장:상 근 혜 관

〈집행위원〉
경담 고광 공덕 관무 금오 기봉 기원 남당 대공 대국
대경 덕명 덕암 덕우 도광 도권 도운 도원 도일 도화
동월 두암 무용 범용 법근 법도 법민 법산 법상 법연
법영 법운 법조 법화 법회 벽각 보광 보덕 보선 보천
삼주 상묵 상열 상호 석봉 선철 선현 선화 성덕 성암
송광 송천 수암 수현 영수 영월 와룡 용주 운암 원광
원천 원통 월산 월연 월오 월해 월현 인선 인오 일선
일암 일휴 자운 정각 정법 정수 정안 정현 제법 종호
지범 지승 지연 지일 지천 진성 진우 천덕 청공 청암
태암 팔봉 한철 해공 해룡 해선 해성 해암 행암 행원
현각 현공 현수 현오 혜공 혜관 혜도 혜민 혜산 혜삼
혜송 혜심 혜인 혜철 호암 효광 효봉 효일 효정

●집행위원장:현 각
●부 위원장:법 성 무 원

〈집행위원〉
서병렬 이춘하 김대비심 강정희 고금순 고오연 고인덕 김연화행
김금옥 김대각 김면암 김범수 김병락 김자비행 김양순 김완식
김천용 김현수 김고경 박대복심 김희진 노연식 노효순 마향숙
민영옥 박진공심 박창경 박태임 변경자 서두수 선양희 송대련화
신법운 안용희 양순자 오금주 이강옥 신법화심 이명재 이법화
이성위 이순희 이지혜 양대법화 이태숙 임부희 임순덕 임정심
장순옥 옥자비행 조방선 주원각 최병자 최인선 최창람 윤불심행
허순애 황현숙 권기주 박순남 이만수행 조민숙 강정희 고금순
권기주 김면암 김자비행 김여오 김연순 권기주 민병택 배순금
정대륜심 서진남 안용희 양순자 양해옥 이효주 정수월심 임순덕
장순옥 조방선 한상오

〈지역동원본부장〉
서울 보덕(보타사 주지) 부산 대성(자비원 주지) 대구 원통(정토사 주지)
인천 정법(대덕사 주지) 울산 혜산(도솔암 주지) 경기 월오(도림사 주지)
강원 법성(대원암 주지) 대전 현광(보문사 주지) 충남 명달(백학사 주지)
충북 법화(연화사 주지) 경북 혜송(석불사 주지) 전남 해심(호국사 주지)
전북 종산(신성암 주지) 제주 관일(영조사 주지) 경남 일선(천비룡사 주지)

〈화 주〉
팽대덕화 김홍연심 김군자 이용숙 이옥매 이옥희 김오목 박영희
김혜식 한순남 한동해 김수열 김정수 오준원 신인찬 장현진 전성자

〈사무처〉
김병락 윤붕안 신동태 최명희 이상민

◆ **점등행사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4일 (음력 5월 8일) 오후 6시 일붕선원 일원
◆ **추모법회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0시 일붕선원 법당
◆ **기원법회 일시 장소** : 2549(2005)년 6월 1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1시 일붕선원 법당
◆ **문의 및 접수처** :
일붕대종사 원적 9주기 추모법회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봉행위원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일붕선원 02)379-2635, 379-7537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및 각 지역본부 02)394-9468~9

불기 2549(2005)년 5월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5>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일시 : 불기 2549년 5월 29일
■강사 : 옥선화 교수(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주제 : 모두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나와 다른 가족 형태도 당당한 사회구성원



'가족은 생활공동체' 개념 확산…다양성 인정·존중 추세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화목한 가정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이혼율 증가에 따라 편부모 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늘고 있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노인들만 남은 가정,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가 따로 사는 가정, 주말부부를 하는 가정, 동거를 통해 부부가 된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동성(同性)이 부부가 된 '동성 가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비정상적 가정' 혹은 '결손가정'이라 생각하기 쉽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구국구세대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의 다섯 번째 강사로 나선 옥선화 교수(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 한국가족학회 이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짚어보고,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전통 가족주의 해체 배경

옥 교수는 먼저 "산업사회를 거치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가족주의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나와 다른 가족의 형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시대 이후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가족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가족주의가 사회질서를 이루는 바탕이 됐습니다. 또한 일제 치하를 거쳐 외세에 의한 독립을 이룬 후에도 가족중심적인 가치가 그대로 계승됐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족주의, 집합주의에 의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외국여행이나 국제결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단일민족이면서 가족주의로 무장됐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또한 20세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직업이나 학업에 따른 이동이 빈번히 일어나며,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나 그들이 이룬 가정의 형태를 거부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삶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재 양태

그렇다면 산업사회를 거치며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옥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신문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알아봤다.

신문지상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왜 90년대일까? 옥 교수는 그 원인을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찾는다.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의 경제력을 세계에 알리게 된 두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인종을 만나고 부대끼면서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라는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옥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다루어진 기사 중 이혼(30%)과 동거(20%)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맞벌이 가족(10%)이었다. 맞벌이 가족이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로 등장한 것은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졌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입양가족(7%)이나 독신문제(7%)를 비롯해 동성애 가족, 노인가족,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등도 다루어졌다.

"가족이란 혈연관계나 혼인관계 혹은 법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러기가족이나 별거가족 등은 생활의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성가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옥 교수는 많은 가족형태 중 특히 '동성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성애와 동성가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했다.

"매슬로우는 '욕구이론'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첫 번째로 생리적인 욕구를 꼽았습니다. 생리적 욕구, 즉 성적 욕구는 개인차가 무척 큰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식사량이 개인마다 다른 것처럼 개개인이 가진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녀 1인씩이 결합해서 이룬 것만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끼리의 결합을 두고 '종의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부터 남자나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강요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키워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기혼자를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해보면 자기 성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고 미혼은 다른 성에 가까운 경우가 높다고 옥 교수는 말한다.

"사회적인 규범 등에 의해 억눌려져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자신 안에서 이성(異性)의 성향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관찰할 때 비로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관찰 후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고,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옥 교수는 미국에서 겪은 일화를 예로 들었다.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 미국에 갔을 때, 아들이 게이인 것을 알게 된 부모를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분노와 미움 등으로 몹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그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옥 교수는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상대의 선택과 판단을 이해하고 존중해줄 뿐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됐다면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이해하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순리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 행복하다 느끼고 심사숙고한 후 결정한 사항이라면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그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옥 교수는 "이제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와 똑같아야 정상이고 다르면 비정상이라는 흑백논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다음 주제: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강사 고성혜 · 6월 12일)

■옥선화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동 대학원 가정관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가족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위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틀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장과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가족아동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가족학회 이사, 대한가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결혼과 가족> <가족학>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등이 있다.

미륵대불 금강연화 합일 성탄절

彌勒大佛 金剛蓮華 合一 聖誕節

종교인들이여, 어리석은 마음에서 깨어나라!

미륵부처님 성탄절에 누가 인연을 지어 자손들의 앞길을 열리게 할 것인가. 오십육억칠천만겁(五十六億七仟萬劫)만에 오시는 미륵대불님의 성탄절을 모르고서 도(道)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어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고 제 생각에 속아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니 어찌 오도(悟道)를 하였다고 감히 법상이나 교단에 오를 것인가.

묻노라! 당래 미륵존불이신 메시아께서 五十六億七仟萬劫만에 단군 땅에 하강하시는 이치를 모르고 깨달은 체하는 자 양심과 진실과 정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중생을 속이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미륵종교를 모르고 가짜 미륵을 믿는 인과로 자손만대 유전되어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저 물이 흐르듯이 분명하고 진짜 미륵을 찾아 믿는 자는 천추만대로 부귀공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저 해가 뜨듯이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니라.

미륵대불님 구십팔만 도덕진리를 의심하여 등한시하다가 내생에 삼악도에 떨어지고, 비웃는 자 지나치다가 내생에 빈천고를 받게 될 것이며, 무관심한 자 내생에 인도환생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 반드시 무간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니라.

하늘은 그리 무심치 않을 것이고 신명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종교인들은 언행 조심하여 진 미륵도량을 찾을지니라.

미륵부처님 四大願

一. 양심(良心)의 신통력으로 인류(人類)를 구할지니라.
一. 진실(眞實)의 신통력으로 세상(世上)을 구할지니라.
一. 정직(正直)의 신통력으로 사회(社會)를 구할지니라.
一. 행화(行化)의 신통력으로 가정(家庭)을 구할지니라.

■점 등 식 : 개도법립 5022년 5월 4일 오후 7시
■봉축법회 : 개도법립 5022년 5월 5일 오(午)시
■문 의 처 : 전화 032) 832-0626, 0345 / 전송 032) 831-8967, 832-0346
http://www.idaedo.or.kr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함께 뛰며 신라불교 느꼈어요"



제2회 경주 남산순례 마라톤대회가 5월 29일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주 남산순례 마라톤대회 1200여명 참가

시작전 경주 남산 향해 예 올려

외국인 노동자단체 참여 눈길

5월 29일, 경주남산 통일전에는 '이웃과 함께 자연과 함께' 라는 대형 아치 아래 이른 아침부터 몸을 풀고 있는 수많은 마라톤 마니아들이 눈에 띈다.

불국사(주지 종상)를 비롯해 동화사(주지 지성), 직지사(주지 성웅), 은해사(주지 법타), 고운사(주지 혜승) 등 조계종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 주최로 개최된 제2회 경주 남산 순례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경주 남산을 널리 알리고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경주남산 순례 마라톤대회는 남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올해는 코스를 변경해 개최됐다. 자연환경과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대회로 한걸음 더 승화한 모습이다.

"이 대회는 기록을 위한 대회가 아닙니다. 뛰면서 걸으면서 신라불교문화의 진수인 경주남산을 음미하고 옛 선인들이 가졌던 기원과 염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정정하(금오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씨의 말이 여느 마라톤 대회와는 사뭇 다르다. 대회를 시작하기전 남산을 바라보며 불보살과 옛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예를 올린 것도 색달랐다.

이날 경주남산 순례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달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달리는 시간이 사랑도 미움도 욕심도 벗어버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주선일미(走禪一味)를 강조했다.

오전 10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부의장 장주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출발의 징을 울리자 마라톤 하프 코스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 나갔다. 이어 마라톤 10Km 참가자들이 그 뒤를 잇고, 10시 20분 10Km 남산산길 걷기 참가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걷기 참가자는 성지남산을 순례하는 산길 코스로 접어들었고, 마라톤 참가자들은 뛰면서 남산과 왕경문화재를 함께 경험했다.

참가자는 모두 1200여명. 프로 마라토너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선수도 있지만 서로의 땀을 닦아주는 가족의 모습이 많다. 20여명의 장애인들과, 단체로 나들이를 나온 치매중풍 어르신들도 남산을 걸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구미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보현의 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이 단체로 산길걷기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50여 스님들도 이날은 승복 대신 체육복을 입었다.

하프코스를 2회째 완주한 불국사 사서실장 신행 스님은 "작년 산길 마라톤은 난코스라서 인욕의 가르침을 느끼게 해 주었다면 올해는 평탄한 코스여서 편안했다. 해탈도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다"며 웃는다.

이번 경주남산 순례마라톤대회에서는 남자하프코스에 김원오씨, 여자하프코스에 서정희씨, 남자10Km에 신경식씨, 여자10Km 김윤경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구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보현의집이 최다 참가상을, 71세인 서홍삼 씨가 최고령자상을 수상했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앙드레말로 연구 프랑스 석학들 기림사에 가다

'앙드레말로 탄생 105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불문학자 5명이 5월 31~6월 1일 기림사(주지 종광)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사진).

동양을 하나의 축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던 앙드레말로의 사상과 철학, 문학, 문화정책 등을 연구해온 석학들이 수련복을 입고, 발우공양, 예불을 따라하며 한국불교문화체험에 흠뻑 빠져 들었다.

튀니지대학에서 온 몽세프 케미리 교수는 좌복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열심히 동참했고, 미카엘 드 셍 쉐롱(수필가 · 프랑스 문화부 문화재 관리국 부장)은 "전생에 한국스님이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산사체험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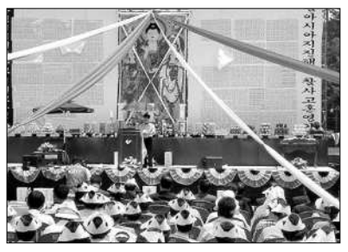
기림사 산내암자인 여운암에서의 다선법회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호진 스님과 기림사 선원장 종현 스님이 직접 이끌었다. 밤이 깊도록 마당을 서성이며 산사의 정취를 만끽한 학자들은 1박2일의 짧은 일정을 아쉬워했다.

앙리 고다르(프랑스 소르본느대학 교수)는 "앙드레말로가 왜 불교사상과 동양사상이 자신에게 정신의 다른 극점을 형성했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어족 자원 가꾸는 치어 방생

통영사암련, 수륙대재 열고 풍어 기원



5월 30일, 통영 욕지면 연화도 연안에서 남해안 양식 어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대규모 방생법회가 봉행됐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선곡)와 통영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쌍계사 조실이자 연화도 연화사 조실인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쌍계사 주지 우담 스님,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선곡 스님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방생에 앞서 도남관광단지에서는 나비춤, 바라춤, 북춤 등 범음범패를 선보이며 풍어를 기원하는 수륙대재와 법요식(사진)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산 스님은 "불교의 방생은 생명 존중의 가장 으뜸 본보기이며 만물만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라고 법문했다.

이날 오후 선박을 타고 통영 연화도 연안에서 실시된 방생에서는 통영 일원에서 양식되는 우럭, 넙치, 볼락, 감성돔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치어 12만마리가 방생됐다. 외국 어종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방생과는 달리 이날 방생은 남해안 어족 자원의 보호, 육성에도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 생태적 방생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부대 행사로 통영지역 수협이 도남동 관광단지에 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멸치와 명게 등 지역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촉전을 열기도 했다.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선곡 스님은 "올바른 방생 문화를 만들어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지역의 어족 자원을 가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단신

포항불교신도협의회 창립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는 5월 31일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강해중 포항시 문화원장을 추대했다.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는 포항거사림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포항불교 재가신도들의 화합을 다지는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해중 초대회장을 비롯 부회장에 김명조 前 거사림회장과 김경희 보경사 신도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강해중 회장은 "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지역 굴지의 기업체대표와 지역불교 발전에 동참할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회원에 포함시켜 본격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찬불가 공양의 밤

부산에서 활동하는 불교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찬불가 공양의 밤 행사가 열렸다.

6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권상무 찬불가 공양의 밤' 행사에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찰합창단 지휘자, 합창단 등이 대거 참석해 권상무 교수가 편곡한 찬불가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작곡가, 지휘자, 편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 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상무 부산여대 사회교육원 불교음악과 주임교수는 이날 공연에서 선보이는 전곡을 화려한 연주 기법이 돋보이는 곡으로 편곡해 무대에 올렸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와 아모르 성악가회가 협연을 펼쳤으며 바리톤 김성국, 소프라노 차성실, 소프라노 김현숙, 바리톤 정성민, 메노소프라노 금정미 등의 성악가들과 시명 스님이 특별 출연했다.

천미희 기자

대불어, 어린이 포교에 박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가 어린이포교후원회(회장 정관)를 결성하고 후원자 모집을 본격화하면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린이포교후원회 회장은 어린이 포교의 큰 어른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관 스님이 맡아 '어린이는 미래 불교의 희망이며 내일의 큰 일꾼'이라며 어린이 포교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후원금 납부는 월 3천원부터 신청할 수 있다.(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어린이포교 후원회는 어린이 포교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자와 후원금 확보에 주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꽃 발간,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PDF 자료실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 연꽃문화제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불교교육연구소의 사업과 대한불교교사대학의 사업에도 투자된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낙동복지관, 김해공항로 정화



APEC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의 노인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낙동종합복지관(관장 임광수)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지역환경지킴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 31명은 5월 30일 김해 공항로 도로변 환경개선 및 미화 사업을 실시했다(사진).

낙동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지역환경지킴이단 어르신 31명은 앞으로 김해 공항로 도로변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앞으로 깨끗한 부산을 가꾸기 위해 환경 정화 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참여한 지역환경지킴이단 어르신들은 "깨끗한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내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맑고향기롭게, 문예작품 공모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우리말과 글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제8회 전국 학생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부문, 산문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는 공모전 응모 요령은 1인 1부문 응모할 수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응모원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051)898-2672

천미희 기자

요양원 기금 마련 판매 행사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원장 혜강)이 기금 마련을 위해 수안 스님의 그림이 그려진 면 티를 판매하고 있다.

중풍, 치매 노인 전문 요양원으로 지난 1월 개원한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기금 마련을 위해 1200장의 면 티를 제작 판매중이다. '이머꼬' '깨어나라' 등 수안 스님의 선서화가 인쇄된 면 티의 가격은 1만원. 전화 주문도 가능하며 수익금 전액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기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055)381-2005

천미희 기자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SAMSUNG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 오가피 여자프로권투단 소속 김주희 선수의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1차 타이틀 방어전 승리를 축하합니다.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읍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N-K NATURAL 우리가족의건강 지킴이 묘향산 전 록 탕 건강!

본 제품은 전 북한 만수무강연구소 약국장이 직접 제조한 신비의 건강식품

보정, 보기 보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김일성이 생전에 빠뜨리지 않고 먹었던 35가지 약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원기가 부족한 사람, 수술후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전록탕 성분 및 배합비율
• 영지균사제: 10%, • 당 귀: 5%
• 가시오가피: 20%, • 녹 각: 10%
• 동충하초: 10%, • 작 약: 5%
• 산 수 유: 10%, • 녹 용: 3%
• 백 출: 10%, • 토사자: 17%



• NK내츄럴 대표 허창걸
• 사리원 동양대학교 졸업
•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약국장
• 한의담당 동의학박사



십장생 성분 및 배합비율
• 오미자: 10%, • 달개비: 15%
• 녹 용: 5%, • 속 단: 5%
• 호로파: 25%, • 토사자: 10%
• 산수유: 5%, • 웅계신: 15%



진선미의 성분 및 배합비율
• 결명자: 20%, • 다시마: 20%
• 월견자: 20%, • 기 타: 20%
• 유근피: 20%



묘향산골드의 성분 및 배합비율
• 황 기: 20%, • 토사자: 10%
• 백 출: 10%, • 오미자: 10%
• 산수유: 10%, • 인직쑥: 10%
• 가시오가피: 3%, • 녹용:15%, • 기타:10%

묘향산 전록탕 이란...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 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한약제를 "약물동역학적" 으로 제조한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판매원: 록원 02) 771-2985 • 제조원: NK내츄럴 • 총판대리점모집 02) 755-9821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 인정 '상' 받은 세 비구니스님

그저 '내 일'을 했을뿐인데…

따지고 보면 세상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진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여기 세 스님이 있다. 세 스님 모두 충남지역에서 청소년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온 비구니 스님들이다. 바라는 것은 없다. 그저 '내 일'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을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상을 받을 만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세 스님은 '부처님 일'을 한 것 뿐이라며 세상의 칭찬에 손사래를 쳤다.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

상담실 운영, 청소년보호 앞장

지난 5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95년 보령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열고 청소년 포교에 뛰어든 이후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막상 정운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하며 겸연쩍어 한다. 그러면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죠"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끝없는 원력을 숨기지 않는다. (041)936-3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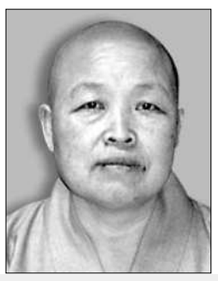
대전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

시각장애인용 점자성전 발간

1994년부터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사업에 나섰다.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장으로도 활동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성전을 발간해 포교활동을 펼치는 등 대전지역 청소년 포교의 일등공신이다.

이런 청소년 사랑이 전해지면서 종실 스님은 평송청소년 수련원이 주는 평송상의 제3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종실 스님 역시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돼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청소년 시절부터 자원봉사를 통해 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042)585-0035



청양 원각사 주지 **정문** 스님

부모없는 아이들 35년간 돌봐

내 아이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부모없는 어린 아이들을 35년 동안이나 보살펴왔다. 그 긴긴 세월동안 키운 아이들은 모두 20여 명. 그리고 지금도 9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심사를 거쳐 정문 스님을 '칭찬 1호'로 선정하고 5월 26일 칭찬 1호 인증장을 수여했다.

정문 스님은 인증장을 받으면서도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041)942-4917 한명우 기자

영동 중화사 시민선방 개원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가 시민선방을 마련하고 5월 31일 개원식을 가졌다. 충북지역에서 시민선방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영동사암연합회장 성제 스님, 손문주 영동군수와 지역 기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현구 스님은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무엇을 어떻게 재투자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화사 시민선원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평 규모에 40여 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중화사 시민선방은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참선을 할 수 있으며, 일주일 기간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일주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마지막 회향날 천도재도 지내게 된다.

이와 함께 중화사 시민선방은 큰스님 초청법회와 다도, 붓글씨, 요가 등의 문화강좌도 마련해 지역민들의 수행 ·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김동수 열사 25주기 추모제

5 · 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산화한 前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 25주기 추모제가 5월 27일 조선대에서 열렸다.

김동수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린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동수열사 기념사업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평화실천불교연대, 조선대총학생회 등 단체와 김동수 열사 가족, 지인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김동수 열사는 1979년 대불련 지부장에 취임해 이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인왕사 대웅전

효·신행 살아 숨쉬는 절



인왕사 대웅전 신도들은 1년에 네 차례 성지순례를 하면서 신심을 다진다. 사진은 지난 4월 영월 보덕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뒷줄 오른쪽이 주지 혜원 스님.

한글 의식으로 법회 끝날 때마다 합동천도재

관음회 구성, 양로원 봉사…장학사업도 구상

인왕산 중턱에 오르면 절집촌을 만날 수 있다. 석불각, 관음전, 기원정사, 천안사 등 15개의 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 절들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스님이 장삼을 걸치고 참선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선바위 바로 아래 인왕사 대웅전을 만날 수 있다.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석불각이나 대웅전이나 관음전을 인왕사의 전각들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개개의 사찰이다. 대웅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 이름이 '인왕사 대웅전'이다. 인왕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이곳 인왕산에 인왕사(仁王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독특한 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왕사 대웅전'은 이곳의 절 모두가 그렇듯이 기도도량이다. 규모는 100평 남짓하지만 기도객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기복신앙으로 흐를 위험도 없지 않다.

인왕사 대웅전이 지금 '공부와 신행'을 강조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왕사 대웅전의 법회는 다른 절의 법회와는 다르다. 1시간40여분 정도 진행되는 법회 내내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염불을 한다. 불교의식을 한글로 자세히 풀어놓은 의식집을 신도들이 함께 읽으면서 법회의 의미를 새기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주지 혜원 스님은 의식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법회가 끝날 때마다 합동천도재를 지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자체 제작한 의식집을 활용해 한글의식으로 진행된다. 합동천도재를 지내는 이유는 효사상이 신행의 근본이 돼야 한다는 혜원 스님의 소신 때문이다.

이렇게 한글의식으로 법회를 보고 천도재를 지내면서 신도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저 기도만 했던 신도들이 이제는 '관음회'라는 신행단체를 구성해 양로원을 찾아다니는 등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혜원 스님이 주지를 맡은 이후 4년 동안 인왕사 대웅전은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아직도 원력이 많다. 초하루 · 지장 법회 등 정기법회 외에 일요법회도 꾸려볼 생각이고,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신도들에게 회향의 의미를 가르치고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이 알도록 해주고 싶다는 발원에서다.

기도하며 회향하고, 회향하며 부처님의 뜻을 배워가는 절. 인왕사 신도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이런 현판을 걸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02)737-4434 한명우 기자

"친환경 공양물로 방생 실천하자"

도법 스님, 생명살림 불사위한 즉문즉설 법회서



도법 스님이 5월28일 선덕사에서 법문하고 있다.

생명평화 탁발순례차 광주지역을 순례중인 도법 스님(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방생의 현대적 실천으로 부처님전에 친환경 농산물을 올리자"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5월 28일 광주 선덕사에서 열린 '생명살림 불사를 위한 즉문즉설 법회'에서 "타지에서 물고기를 사들고 가서 놓아주는 형식의 자연환경을 무시한 방생은 불사기금을 만들기 위한 종교의 사업화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고문이자 위협이다"고 역설했다.

2년째 생명평화 탁발순례차 전국을 돌고 있는 도법 스님은 "농촌이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님은 "인간과 뭇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방생으로 농촌을 살려야하며 우선적으로 '부처님 공양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올리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중생 고통 덜어주는 열린도량 될 것

분당 열반사 5월31일 상량식, 5백여 사부대중 동참



성타 스님이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목조법당 부석사 무량수전 양식을 본딴 분당 열반사 상량식이 5월 31일 열렸다.

불국사 회주 성타 · 주지 종상 · 강주 덕민 ·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과 지역기관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상량식에서 종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월산 조실스님의 뜻을 받들어 마련한 열반사의 무량수전 건립이 원만하게 회향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성행 스님은 "열반사에는 지하 142평 지상1층 169평 지상2층 105평의 규모에 65평의 법당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성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우주 생성 이전부터 열반의 세계를 가르치셨다"며 "열반사는 청정성 무차별성의 열린 도량으로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한편, 불국사는 열반사가 위치한 야탑3동 이웃돕기로 공양미 110포를 주민대표에게 전달했다. 글 · 사진=고영배 기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은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생활·실천불교 새바람 분다

대구 (下)

대구광역시에는 조계종 외에도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 각각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대구불교는 종단간의 화합을 우선하며, 종단간 협의체인 불교종단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을 함께 봉행한다.



대구지역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조직적이다. 사진은 영남불교대학이 개최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서의 마술쇼 공연 모습.

태고종 범음범패 교육원 열고 영산재 전파
천태종 어르신 무료급식 · 군장병위문 앞장
진각종 종립학교 운영하며 새싹포교 심혈

 # 태고종

태고종 사찰들의 활동도 조계종 못지않게 활발하다. 대구경북종무원 산하에 194개 사찰이있는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개혁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 사찰들도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종무원은 2003년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를 교육하는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을 개설해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범음범패교육원은 타종단 스님들에게도 문이 열려있다.

또 범음범패교육원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도 퍼포먼스형식으로 영산재를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 3월말에는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호국 전몰 영령 및 신규위패 봉안 합동위령재'를 거행했다.

앞으로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를 매년 정례화 할 예정이고, 7월에는 민족정기를 되살리는데 일조하기위해 민족영산 백두산에서 평화통일 민족화합을 발원하는 백두산 산신재를 거행할 계획이다.

그 외 남구 대명동 청룡사 주지 보성 스님이 경로잔치, 환자위안공연, 무료급식 등 대사회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팔공산 관암사 혜공 스님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묘문화운동으로 숭묘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영범 스님은 불화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불자들이 불화를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천태종

왕성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는 천태종 대성사는 1967년 3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대구신도회를 결성한 후 1981년 창건됐다. 지역에 단 하나뿐인 천태종 사찰이지만 그 활동력은 매우 왕성하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야간을 이용해 관음정진 수행을 하는 대성사는 매월 1일 정기법회에 약 2천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정진을 하고 직장인을 위한 일요법회에는 약 4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다. 그 외 합창, 다도, 꽃꽂이, 서도, 전통 국악회 등 다양한 취미문화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 있다.

자리이타의 대승불교에 바탕을 둔 천태종 대성사는 군경 장병위문,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돕기, 경로잔치 등 대사회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특히 98년부터 매주 금요일 하고 있는 무료급식에는 불우 독거노인 800여명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또 어린이 청년 학생회를 결성해 운영하면서 인재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95년부터는 부설 동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대성불교대학을 개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다.

 # 진각종

진각종 34개 심인당들 역시 대구불교를 이끄는 큰 축으로 포교, 교육, 복지 등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포교 교육사업에 각별한 진각종의 방침에 걸맞게 종립학교인 심인 중 · 고등학교와 희락 유치원, 경전 유치원등 5개의 유치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심인당마다 어린이포교를 위한 자성학교를 열고 있다.

경주 산내의 OK그린 청소년 수련원과 관광농원인 영농법인 농림촌의 운영도 맡고 있는데, 대만 불광사 보다 큰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종단차원에서의 사업도 계획되고 있다. 달성공원 내에서 무료급식을 준비하는 등 복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노인유료요양시설인 원대동 보훈요양원 운영과 더불어 내년 3월부터 대구시로부터 무료노인요양원을 수탁 운영할 예정이다. 비산동에 들어서게 될 무료노인 요양원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여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등 최신설비를 갖추고 내년 2월말 완공 예정이다.

그 외 포교활동으로 2년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강합창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또 매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화려한 장엄물을 선보이며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올해도 최정심인당에서 제작한 봉황과 용을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 신흥사찰

각 종단 사찰(심인당)들의 활동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도심 속 교육 · 문화 · 복지도량으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는 신흥사찰들이 나타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대구불교 특징 중 하나다. 남구 봉덕동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수성구 욱수동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수성구 파동 법왕사, 수성구 중동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남구 이천동 관오사와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동구 감천사와 감천복지재단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사찰과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바탕으로 신도회를 조직화 체계화하고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움직임이 빠르고 체계적이어서 수동적이고 정적인 불교계에 역동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대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관오사 지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산중불교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동구 감천사도 감천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역복지를 이끌고 있다. 1992년 70평 월세 포교당에서 시작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칠곡, 경산 분원을 케이블로 연결한 인터넷 동영상 화상강의를 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병원봉사단, 간병인회, 교도소 봉사회 등 60여개의 신행봉사 단체가 자비행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법회운영 체계화·조직 정비

정산 스님 (천태종 대성사 주지, 천태종 종의회의장)



천태종 중앙종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지난 2월 대성사에 부임한 후 체계적인 법회운영과 조직 정비를 기획하고 있다. 1년 법회계획과 월별, 주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지도교사와 임원진이 매월 회의를 통해 점검 보완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어린이 학생 청년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도, 국악,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바탕으로 불교와 접목한 새로운 불교문화예술의 창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범음범패교육원 안정화

법운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칠곡 동명사 주지)



지난해 2월 제12대 대구경북종무원장에 취임한 스님은 대사회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내 태고종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태고종 사찰의 참여율을 높였다.

특히 전 대구경북종무원장이며 현 총무원 부원장 혜공 스님이 초석을 놓은 범음범패교육원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하는 보살계살림 법회를 보은사 앞에서 80년 만에 봉행했다. 지역 원로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종무원 원로회의도 결성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포교 진두지휘

진산 정사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희락심인당 주교)



진각종 대구교구청의 수장인 진산정사는 진각종 종의회의장을 역임하면서 동시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불법인연을 맺게 됐다는 진산 정사는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3대가 성직자로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한평생을 집을 사고 돈을 버는 일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종단간 화합을 강조했다.

승가교육도량 설립 서원

우학 스님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사람을 길러내고 정법을 가르쳐 타성불교를 깨야한다며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도심 속 승가교육도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유치원불사가 끝나면 유치원건물에 선원, 강원 율원 등을 두어 도심 속 스님들의 종합수행도량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 7월경에는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 교육, 수행, 복지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뉴욕에 사무소를 개소한 스님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아파트에 불교대학 설립

돈관 스님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산중불교를 벗어나 현실적인 포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96년 신흥아파트지역에 포교당을 열고 2년제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치마불교와 노인불교를 탈피할 것을 주장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주력해왔다. 또 다도 서예 한자, 외국어 강좌 등의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현재 지하1층 지상 4층의 불광종합복지관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님은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국제 국내 학술회의 유치도 구상중이다.

포교 네트워크 구축

실상 스님 (법왕사 주지)



1990년 대구시 수성구 파동 2만3천 평의 산기슭에 17평 천막법당으로 문을 연 스님은 100명의 고승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14회째 개최했으며, 지난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2800평의 불교종합복지관 착공에 들어갔다.

불사가 완공되면 도량을 완전 개방하고 5000평 대지를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칠곡 연흥사, 달서구 법연사, 서울 동광사, 합천 부계수련원을 연결하는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인 신행 복지 도량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지역복지 포교 이끌어

지도 스님 (관오사 주지)



스님은 불교복지단체가 전무했던 대구지역에 불교사회복지회를 설립하여 지역복지를 이끈 장본인이다. 1990년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해 나눔후원회를 결성하고 복지활동 근거지로 삼을 안정적인 포교당이 필요해 관오사를 창건했다. 97년 대구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불교사회복지회는 현재 등록자원봉사자만 1800명, 산하기관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여래원, 불교사회복지대학 등 1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복지계를 리드하고 있다.



고침 지난호(528호) 7면 '지역불교현장을 가다' 대구(上) 편에서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가운데 송림사 주지 성덕 스님의 사진이 잘못 실렸기에 다시 사진을 실어 바로 잡습니다. 스님께 사과드립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민수야, 웃음은 희망이란다"

본사, 급성백혈병 투병 민수 돕기 모금운동 전개

바람 앞의 등불처럼 훅 꺼져버릴 듯한 네 살 배기 민수의 소식이 한 불자의 제보로 현대불교신문사에 전해졌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TV에서만 보던 남의 일을 하루아침에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민수 가족의 소식을 접하고 현대불교신문사 나눔의 손잡기를 통한 모금운동을 결정하게 됐다.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생명 민수의 환한 웃음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에 불자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모금 운동은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펼쳐 나가게 된다.

온 동네 어른들의 귀염을 한 몸에 독차지 하던 민수(4). 민수는 '왠지 핏기가 없어 보인다'는 동네 어르신들의 걱정 어린 말끝에 병원으로 향했다가 급성 골수성백혈병이라는 하늘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다. 황달기가 있겠거니 하고 동네 병원을 찾았던 민수 어머니는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내려앉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학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4월 29일 오후 5시였다. 설마 하던 기대는 무너지고 민수는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5월 30일 현재, 꼬박 한 달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뛰어놀기 좋아하고 건강하기만 하던 아이가..."

엄마 김귀애(42)씨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눈길을 민수에게 보낸다. 아버지 김형찬(40)씨의 놀란 가슴은 민수의 발병 이후 보름동안 식음을 전폐했을 정도. 그도 그럴 것이 큰 아들 성수(7)도 3살 때 심장판막수술을 받으며 고비를 넘긴 터라 민수마저 백혈병 진단을 받자,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뿐 머리가 하얗게 비는 듯 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4살 민수와 엄마 김귀애씨. 어린 나이에 발병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4년전 형 심장수술로 가계 휘청…친척집서 생활
치료 기간 최소 5년 · 치료비 3천만원 도움 절실

무작정 아이에게 매달리며 하며 민수 병상만 지키길 한달 째. 처음 입원당시 9만까지 올라갔던 민수의 백혈구 수치는 이제 1만 정도로 떨어졌다.

4번으로 예정된 항암 약물치료도 2회 차까지 마쳤다. 다행히 민수는 항암치료를 의사들도 대견해할 만큼 잘 견뎌내고 있어 그나마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정상의 경우 4~5000의 백혈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경우 10만, 심하면 20만 까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판이 모자라 조금만 상처가 나도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열이 지속되면 곧바로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돌발하기 때문이다.

병실에서 생글거리며 웃고 있는 민수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지도 모를 위험에 직면했었다. 민수 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 악화될지 모르는 아이의 상태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휴직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큰 애의 수술비로 생계가 휘청거린 후 아직도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어 치료비 걱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민수의 치료 기간은 최소 5년. 최소한의 치료비 3000만원. 치료비 걱정으로 사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이 온 곳이 없어 애가 탄다. 민수 생명의 불꽃을 이어줄 도움의 손길이 아쉽기만 하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장 장안사를 찾아 연등을 달았다는 민수 엄마의 간절한 기원을 부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민수의 웃음 때문만은 아니다. 만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에 희망이 웃음과 오버랩 된다.

천미희 기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민수돕기 운동에 각 사찰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 2004-8234

도움 주실 곳: 073-02-02889-0(부산은행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울산 한마음선원-7만7850원
박상환-10만원
윤선애-1만원
이창근-1만원

총 누적금액 40,554,940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끓이고 무치고…. 길음복지관 사랑봉사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서 보람을 찾고 있다.

길음복지관 사랑봉사회 토요봉사팀

"시원한 국수 한사발 情이 넘쳐요"

5월 28일 길음복지관(관장 제원) 식당은 오전 9시부터 점심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인다. 가스렌지에서는 한 솥 가득 물이 끓고 있고 주방 한 켠에서는 보살들이 손끝으로 무쳐낸 호박나물과 김치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복지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 '사랑봉사회(회장 이문희)' 토요봉사팀이다.

'사랑봉사회' 토요봉사팀은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름그대로 길음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력한다. 자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다 길음복지관이 설립된 92년부터 복지관과 함께 해온 세월, 김장 명절음식 마련 등 울력이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일해왔다. 그 동안 마음이 답답해 질 정도로 어려운 이들도 많이 봐왔다.

"지금 강북은 개발이 많이 됐지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뜻한 식사 한끼 부담없이 하시려면 우리가 나서야죠."

임순자(73) 강영은(68) 보살이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랑봉사회'에서도 가장 오랜시간 봉사를 해 온 이들은 그저 정성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자비원력으로 보내서 그런 것일까, 사랑봉사회는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도 즐겁다. 화합이 잘 되다 보니 일은 절로 신명난다.

그러나 토요일마다 끓여내는 국수만 50다발. 허리도 아프고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래도 보살들은 힘주어 말한다.

"봉사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걸요."

그래도 아쉬움은 있다. 이제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직도 망설이며 선뜻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한단 생각이 중요해요"

사랑봉사회는 젊은 사람들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복지관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한 웃음을 보낸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어르신 속옷 후원해 주세요

길음복지관에서는 현재 급식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관 인근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목욕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의 속옷이 항상 부족하다. 사랑봉사회 토요팀은 "복지관 세탁기가 낡아 세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줄 것을 호소했다.

(02)985-0161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나라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기원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김상도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새봄에 봉행한 제1회 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대종사께서 친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하여 원만히 봉행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대길상도전을 봉행하여 금년 10회에 이르는 동안 한국불교문화의 높은 경지와 예술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대작전이라는 찬탄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상은 불교의 법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10회개전을 원만히 회향하고 불심충만한 경남에서 장엄하고 훈희충만한 회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 선풍 천마도 국도전 예술세계

KBS 9뉴스

MBC 뉴스정면
기념대법회 : 2005년 6월 1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창원 인터내셔날호텔 5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작 품 전 : 2005년 6월 10일 ~ 6월 14일 (5일간,오전 10시 ~ 오후 6시)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불교계 큰스님과 교수님의 특별대강좌
불자연예인 공연 : 설운도, 김흥국, 이호연, 김충신, LMB singers등 공연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창원포교당
문의 九龍寺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창원시 소답동 509
TEL. 055)251-9741~4, 255-6359 FAX. 055)298-528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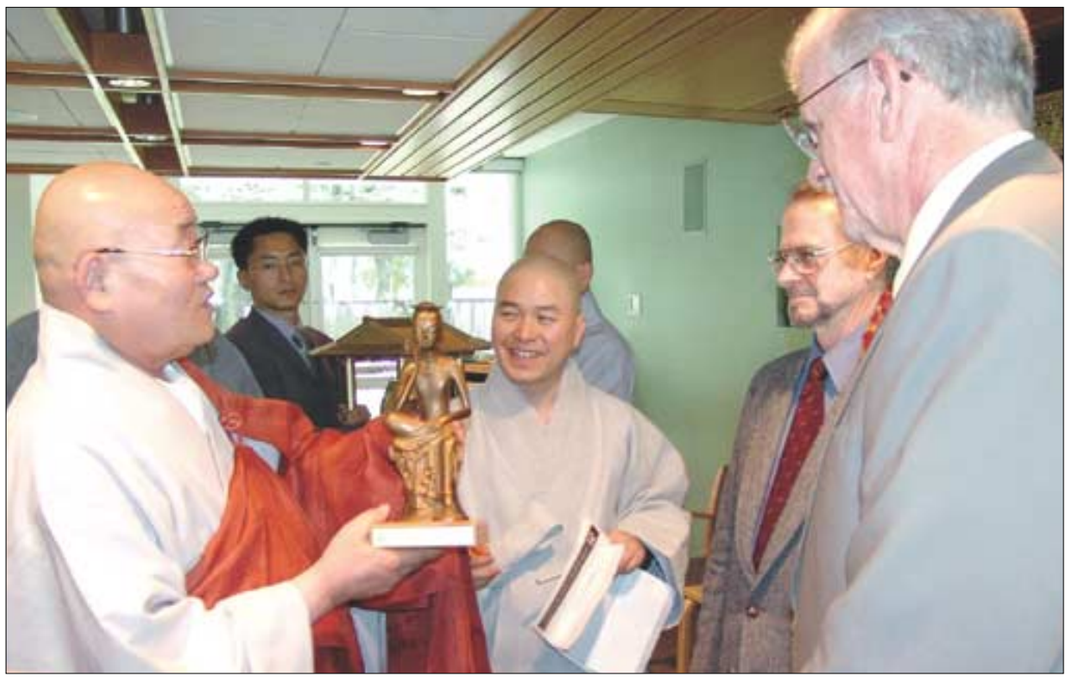
대구불교방송
캐나다 공립학교 영어연수
7.26 - 8.21(4주간)
선착순 15명 모집
www.dgbbs.co.kr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세계일화’ 뿌리는 변함없는 전법의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주 포교현장 방문

5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측 대북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보스턴, 뉴욕, LA를 잇달아 방문, 현지 한국불자들을 격려하고 포교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뉴욕에서는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간 상생을 강조했으며, 프로비던스 젠 센터를 방문해 벽안의 납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27일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를 방문해 도날드 스웨어 세계종교연구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로버트 지멜로 교수(오른쪽 첫번째)에게 한국불상을 증정하고 있다.

해외특별교구 설치 “충분히 가능”

법장 스님은 27일 뉴저지 ‘대원’에서 열린 동중부 승가회와 간담회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중부 승가회측은 간담회에서 ▲뉴욕에 해외특별교구 설치 ▲뉴욕한국불교문화원 건립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출가연령 제한 폐지 등을 법장 스님에게 건의했다.

해외특별교구 설치와 관련 법장 스님은 “올해 초 종헌상 군종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도 마쳤다. 따라서 해외특별교구의 설치도 법적인 방안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동중부 승가회 스님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도 법장 스님은 “먼저 현지 스님들이 계획서를 마련한 후 신망 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로 건립준비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한다면 종단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프로비던스 젠 센터 등 방문, 관계자 격려

27일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의 법향이 여전히 짙게 배어있는 프로비던스 젠 센터를 방문한 법장 스님은 “숭산 큰스님께서 생애를 통해 몸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가르침을 현창하고 받들어서 진정한 세계일화를 일궈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원장 대광 스님은 “한국 수출품중 제일 훌륭한 것이 한국불교의 맑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와 큰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음 생애에도 이러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로비던스 젠 센터에서 숭산 스님 제자들이 법장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있다.

뉴욕 종교지도자 만나 ‘상생’ 강조

법장 스님은 뉴욕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간 대화와 공존,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장 스님은 28일 뉴욕 맨하탄 인터페이스 센터에서 멧 와이너 뉴욕 인터페이스 센터 부장, 존 히엠스트라 뉴욕 교회의회 의장, 알라메루 아이언가르 북아메리카 힌두교사원회 의원, 바바 카브레아 몬데시레 아프리카 및 아프로-카리비안 종교대표, 이맘샴시 알리 퀸스이슬람 사원 원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각 종교의 좋은 점을 살려서 공유하고 실천하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전쟁 없는 평화의 삶, 괴로움 없는 행복한 삶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가 다르다고 불신하고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 현지 포교 어려움 털어놔

“스님들이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구사력 때문입니다.”

28일 뉴욕사원연합회장 휘광(불광사 주지) · 총무 서천(마하선원 주지) 스님은 미국인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스님들은 재정적인 문제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스님 개인의 능력으로 집을 사서 이를 개조한 다음 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지인을 상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사찰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 1.5세나 2세들을 대상으로 사찰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법장 스님은 27일 보스턴 프로비던스 젠 센터를 비롯해 28일 뉴욕 원각사와 불광사, 29일 LA 고려사와 달마사, 30일 태고사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뉴욕 · LA 대법회 1천 5백여 사부대중 참석



1천여명이 모인 뉴욕대법회에서 법장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장 스님 초청 뉴욕 · LA 대법회가 28일 뉴욕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와 29일 LA 동국로얄대에서 각각 1천여 명과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오직 전법의 사명하나로 바다를 건너와 정법의 당간을 세우는데 애쓴 여러분의 노고에 본국의 불교계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심과 원력은 미국사회에 한국불교를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거름이 되고 있다”고 법문했다.

뉴욕 대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법안(전 원각사 주지) · 대광(프로비던스 선 센터 선원장) 스님, 임관헌 불교 실업인 협회 고문, 최무직 뉴욕 불교 연합 협의회 초대 이사장, 조일환 이사장 한미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박성배 교수(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 한국학과 학과장) 이강혜 재미한국인회 명예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LA 법회에서는 현일(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고문) · 현철(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회장) · 무량(태고사 주지) 스님과 이정규 상록회 회장, 이철우 LA 포교사단 고문, 최기홍 LA 포교사단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법장 스님은 30일 서래대와 31일 동국 로열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8박9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글 · 사진/미국 보스턴 · 뉴욕 · LA=남동우 기자



■ 법장 스님의 민간외교 ‘괄목’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법장 스님은 미국 방문 중 대북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5월 12일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경험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명목으로 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디트라니 북핵 대사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국측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전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른바 징검다리 외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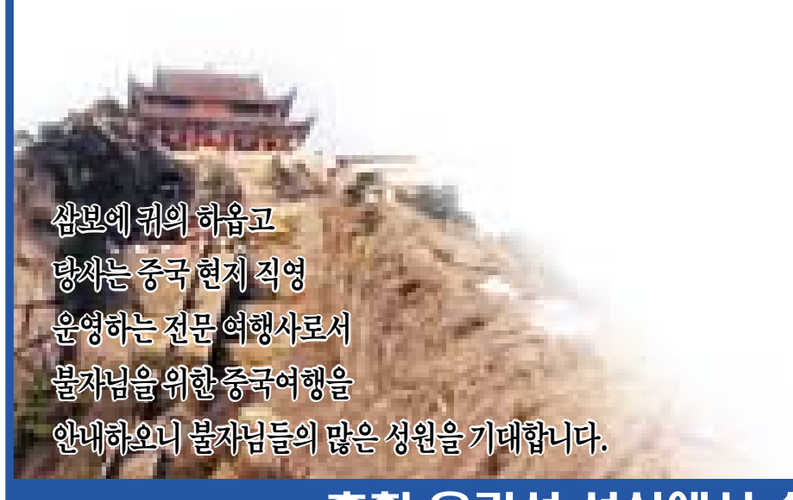
법장 스님의 이 같은 민간외교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수장으로서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자비와 평화의 법음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단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현안에 대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북 관계자들 만나
북핵및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친서 전달



법장 스님이 프로비던스 젠 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님에게 ‘자비의 연꽃’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6월 9일 출발
여행경비 :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79만원 (10명이상 출발)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테마는 다양하게 분위기는 경건하게

일터 불자 '즐거운 법회' 꾸리기



법회 형식과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꾸어도 재밌고 활기찬 법회를 만들 수 있다. 사진은 집전을 배우고 있는 직장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경·다도·집전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참여 유도
상하 관계가 아닌 '법우'로 만나는 법회 돼야

'불교는 좋지만 법회는 싫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일반 신행단체와 직장·직능단체들에게 법회 만큼 큰 고민도 드물다. 신행의 근간을 이루는 법회도 요즘엔 특색이 있어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식순에 따라 '그저 그런' 법회에 참석해 본 이들은 다음번 법회 때는 없는 핑계까지 만들어 참석을 피하기 일쑤. 그러나 법회 형식을 조금만 바꾸면 '기다려지는 법회'를 만들 수 있다.

매번 다른 테마 '즐겁게'

'삼귀의례, 찬불가, 입정, 청법가, 법문, 사홍서원, 공지사항…' 매번 똑같은 법회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스스로 신심을 키울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법회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신심을 증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회가 회원들간 어울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거운 분위기는 법회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사경, 참선, 경전 스피치, 레크리에이션, 다도(다담), 집전 습의 등을 적절히 혼합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거나 한가지 테마를 정해 법회를 개최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회가 자주 열릴수록 '테마법회'는 진가를 발휘한다.

직급 떠나 법우 '기 살리기'

회사내 상하 직급이 업무가 아닌 법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인지상정. 이때 하급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하급직원들이 법회 참석을 꺼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법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평등한 법우임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간 대화는 경어를 원칙으로 하고, 호칭을 '법우'로 통일한다면 직급의 벽을 어느정도 허물 수 있다. 여기에 직급이 낮은 회원들의 발언을 권장하거나 집전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미해 하급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면 밝은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다. 회원들의 발심을 위해 법회 참석률이 높거나 능동적으로 법회에 임하는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사 초청 '법다운 법회'

법회는 부처님법을 배우고 신심을 쌓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법사를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이 생략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반 신행단체와 직장·직능 단체 상당수가 지도법사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맡아줄 법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신행단체들은 재가불자들의 모임이므로 신행을 도울 지도법사를 추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도법사가 반드시 스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포교사나 재가법사도 지도법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은행 불자회 지도법사 법현 스님(태고종 사회부장)은 "지도법사가 없거나 법사를 초빙할 수 없을 때는 108배 정진, 경전 독송 등과 같은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관심은 특효약 '우리는 가족'

회원과 회원을 이어주는 끈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은 참석률이 낮은 회원들을 법회로 이끄는 특효약이다. 이 때 한두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 그렇다고 한 사람이 전체 회원에게 연락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또 우연히 마주칠 때에 가벼운 인사 보다 모임 소식을 공유한다면 큰 거부감 없이 참석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박현남 간사는 "요즘에는 경전문구와 모임 소식을 담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매일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한다.

'나도 법회의 주인'

'법회에 참석했다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회원이 있다?'

법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주인공이 되어야 법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법회를 준비하는 몇몇 집행부를 제외하면 스스로를 법회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법회 준비에서부터 진행, 참여에 이르기까지 회원들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탓이다.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윤회인사(참가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프로그램)'와 같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 법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임을 느끼게 해줘야 생기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하용이

한국은행 불이회장

한국은행 불이회를 이끌고 있는 하용이 회장(54·연수원장·사진). 17년 동안 간사를 맡아오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그는 불이회 발전을 견인해 온 중심인물이다.

불이회는 1985년 금융권 최초로 불자모임을 결성한 이래 20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열어오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법사 초빙을 비롯해 회원 참여 독려하는 등 하회장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회원들은 2003년 3월 열린 해인사에서 용맹정진 수계법회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자의 발원을 담아 1000일기도를 입제했어요. 창립 20주년 기념일인 12월 6일 기도를 회향하고 또다시 우리는 초발심의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20년된 금융권 최초 모임
금불련 활성화에 큰 일꾼

불이회는 김포 선경암 한주 원광 스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과 김호성 교수 등으로부터 <법화경> <금강경> <계초심학인문> 등 경전공부를 지속하는 한편, 성남 자광원과 의정부 선재동자원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암도 스님, 무진장 스님, 법정 스님, 대행 스님 등 그동안 법회에 모신 법사들의 면면에서도 불이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에서 불이회가 창립된 이후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 증권거래소 등 24개의 금융권 불자회가 만들어졌어요. 1992년에는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이하 금불련)가 결성되는 성과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0개 불자회가 사라지고, 남은 불자모임 절반 가량이 활동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불련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일도 하회장의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전 분위기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불자모임이 없었던 국민은행에 불자회가 만들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활동중단 상태인 금융결제원 등이 활동을 재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큰 힘이 되고 있다.

1968년 고교시절 룸비니에 몸을 담으며 불교에 입문한 하회장은 룸비니, 대학부, 법도회 등을 거쳐 서울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조계종 포교사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혀왔다.

직급을 떠나 밝은 웃음을 머금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하용이 회장. 그는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10분의 명상과 하심으로 자신을 가다듬을 것을 조언한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고된 업무를 이겨내는 직장생활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경불회, 팀제 운영체제로 확대

1불교회 1복지시설 지원운동 전개도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는 창립 4주년을 맞아 5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국가사회 안정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1불교회 1복지시설 지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사진).

한진호 경불회장(경찰청 정보국장)은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경찰불자상 정립을 위해 각 불교회 마다 인근 복지시설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현직 경찰불자 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불자들도 동참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불교회 부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제를 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광역시·도 단위의 지부에 위원을 두는 팀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조직내 종교동호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한진호 현 회장의 연임을 의결하는 한편, 수석부회장에 임승태 경찰청 불교회장(경비1과장), 감사에 박금철 서울 동부 상임법사, 박영수 창원 중부 상임법사를 선임했다.

박봉영 기자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

동화사서 6월 11~12일

전국의 산악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지를 다진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6월 11~12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강근) 주관으로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를 개최한다.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전국 50여 지부에서 3천여명의 산악인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11일 전야제와 12일 창립기념법회,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053)763-1919

박봉영 기자

"5분 법문 설하는 법당 주지 돼라"

광주 운불련 창립 13돌 법회서 도영 스님 당부

광주 운불련(회장 유영식)은 지난 5월 29일 창립 13주년을 맞아 불교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암스님과 운불련 전국 지회 임원단, 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유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불련은 지난 13년간 지역불자의 발이 되어 불교발전에 힘써왔다"며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가 되어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어에서 "운불련 불자는 달리는 법당 주지이다"고 전제하고 "'달리는 법당'의 주지인 만큼 차안을 법당다운 분위기로 만들고, 불교방송 청취와 불교계 신문을 비치하며, 5분 법문을 준비해 포교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불경금책

金剛般若波羅蜜經

불상량소장용 불사영가천도 복장의식호신용

(1) 실물크기(3.5×5cm) – 금강경 24매

(2) 실물크기(5×7cm) –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고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급 소형금병풍도 주문제작 한다. 기도정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불경금병풍

소법당·스님방·불자님 개인소장용 합격기원·소원성취·백일기도 재례용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 37cm× 세로74cm)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서광사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벤치탁자



◆ 평상 1500×820×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1800×1830×480[mm] 가격:220,000 할인가:190,000

◆ 벤치탁자 set 1500×1700×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가든, 유영풀, 예수목장, 업체, 공원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제품.)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http://성봉건설DB.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지역대리점 모집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명리학 무료
초급반 00명 · 고급반 00명
• 기초에서 전문과정 까지 가르칩니다
• 지금 무엇을 할 까 망설이는 분
• 공부는 했으나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
• 수강료 부담으로 독학 하시는 분
•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 회비 3만원
해수 명리 연구원 원장 직강
문의 전화 : 02)3453-0001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 전화국 앞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720-5682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바라춤.작법.살풀이
49재,천도재,기타의식에 정성을 다해서 안무해 드리겠습니다 _()_
010-9209-0142
불교무용 속성 강좌

자동차 폐차 긴급속보
(바퀴만 달려 있으면 폐차가능)
과태료+세금+국민연금+가압류+고장차+방치자동차
때문에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 말소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 고민 끝 확끈한 정 때문에 시원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승합차+화물트럭)가능 시정상 우선폐차 환영
이제는 폐차도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가 매입(즉시 현금지급)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출장상담
(국)가유공자 협동 사업장) 수출 부품 판매
대흥산업폐차 TEL 02)3471-4444~5
02)579-1114 / H.P 011-470-3118

역학수강생모집 인생상담
〈출장강의 · 상담가능〉
• 강좌: 사주 기초과정 · 완성과정 (수시모집)
• 상담: 사주 궁합 사업 승진 신생아작명 상호 기타
동국역학 연구원
02)2273-1827 / 017-205-1962
서울 중구 묵정동 18-27 대학문화원 413호

사무장님 구합니다
▷50세 이하, PC 가능자
일산 거주자 우대
018-363-1191

비구니,기도스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신심있고 건강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50~60대
011-483-5639

승용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소승은 깊은 산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는 비구입니다.
교통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11-9601-6676

행자모집
일반불공 무료천도재 지내드리니다
해룡사 주지 법운 합장
010-4856-5777
031)769-5557

장성이 고향인 법복하는(서성남 보살) 연락바랍니다
부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32)684-5516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02)917-3363

비구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031)764-3399
011-779-4496

비구니 모십니다
(40세 미만의 사찰운영 자신있는 분)
▷충북 영동
사무장 011-493-7428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59-5989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함
010-6399-7546

공양주 보살, 종무소 애기보살 모십니다
부산 제송동 하이마트 뒷편
051)781-0089
010-7160-1668

행자모집
천일기도후 수계
자격: 40세 미만, 남,녀 고졸이상
천일기도 의지가 있는 분만 연락요!!
011-468-9022

천일기도 하실 스님 행자 모십니다
▷경북
011-561-66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10-4569-8663

절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생활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천안 조계종 사찰
041)567-0391

독지인 행자모심
산좋고 물좋은 암자에서 남은 여생 보낼분
불심있는 분 및 행자 각1명
합천 매화산
055)931-7280

행자모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주지 직인무효 공고
• 사찰명 : 법희사 • 주지 : 행법
•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83번지
상기 사찰의 주지직인이 분실되어 불기 2549년(2005년) 5월 16일 이전 주지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9년 6월 8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희사 주지 행법 합장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株)天星建設 (株)天星設備 (株)天星石材
■ 공사부문
◆ 각종 설비부
· 각종 설비 일체
· 철거외 배관 및 종합설비
◆ 석재부
· 石, 조각 석물 일체
· 石, 불상, 좌상, 미륵
· 石, 탑, 마애불상 조각
◆ 건설부
· 石굴, 납골당조성
· 石, 축대공사 및 보수
· 石굴, 법당조성
· 石, 공사일체
본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벽산B/D 301호(기계 및 자재 창고 관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10-1(2층)
041)335-0725, 335-0726, 335-0727, H.P 010-3116-6955
상무 박창신 (株)天星建設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눈 *충혈,눈물,피로,눈곱,눈이 뻑뻑함
*침침함,눈부심,안구건조,가려움등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KIST승인 KDAR03G-3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제조 : 日本(株)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http://eye88.hihome.com
- 특 보 -
각종 암,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암세포의 증식,전이를 막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 · 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 – 직접강의 ('저거는 맹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영험도량

퇴미승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의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 50.000원
전화 : 02)732-1522 (直)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 대지 108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욕실 주방 수세식 잘 정돈 되있음
• 면소재지 교통 편리 함
• 가액: 6천5백만원
054)533-147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대동면 외안리 마산마을
• 법당: 약 20평, 삼성각
• 가액: 전세 2천만원 년 2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26-902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건물 2층 총 70평 방2개,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822-6104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20평,요사채 30평 주지실 3평
• 주차장 200평
051)941-0195
010-6480-6960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장흥
• 부지: 350평,법당: 20평 요사채, 공양간, 선방, 삼성각 총5동(50평)
• 기타: 석불 입상, 3층석탑 절뒷편 거대바위산
• 가액: 2억5천
016-9660-1348

토굴사찰터안내
• 위치: 구미선산 IC근처 구미시내20분. 전1730평 대지182평 주택30평
• 시설최고 창고 20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4천1백만원포함)
054)481-7481

포교원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 상가주택
• 법당 3층
• 대지 78평, 건평 약 150평
• 은행융자 9천5백만원 전세 1억 천오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 (1억4천만있으면 입주 가능)
• 3층법당만 전 · 월세 가능 (전세 7천만원)
010-8410-2088

포교당안내
• 위치: 해운대 달맞이 고개
• 3층 건물, 30평
• 전세500만원,월60만원
• 비품대 500만원 시설완비
011-560-5661

포교원안내
• 위치 : 일산구 백석동
• 대지 67평, 건평 103평
• 가액: 7억
전세: 1층 식당 및 3층 법당
1층: 33평 식당 8천만원, 권리금 4천5백만원
2층: 33평 법당 8천만원
• 현재 운영함
• 전세는 비구니 스님 원함
010-2872-3650

토굴안내
• 전북 정읍IC에서 15분거리 시골집 1동
• 실사용평수 300평
• 대지 230평 등기
• 가액: 2천만원
011-425-785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평수 75평 2층
•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시설 주차장 완비 좋은포교당입니다
• 가액: 1천만원,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1-308-422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 3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40평
- 가액 : 3억3천

- 위치 : 서울 강북
- 규모 : 100평
- 4층건물 4층
- 신규시설 요함
- 임대료 : 6000/8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 서울시내큰사찰-45억
② 경기신축사찰-4억3천
③ 강원문화재사찰3만2천평-7억
④ 경기산속사찰3000평-8억
⑤ 봉천동사찰175평-4억5천
⑥ 서울토굴국유지150평-1억5천
⑦ 충청여법한사찰3천평-9억
⑧ 여주1200평-1억2천

♦사찰다량보유,공양주부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합

017-269-2629
032)517-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평수: 대지 100평 건물 : 18평, 답 : 739평
- 창고, 암자로 구조변경가능 편리한 시설, 전망최고 관광개발지
- 가액: 8500만원

010-6460-131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법당: 오포 30평, 요사 50평, 부지 320평 주택 1층-30평, 2층 25평
- 주차시설 소, 대형버스. 주차가능
- 비구불가, 비구니스님 좋은조건 해드림

011-832-0780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토굴(암자) 터 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5분거리. 차진입가능
- 평수 : 138평
- 공기좋고, 산세수려
- 가액 : 4천만원(절충가능)
- 스님사정상 급히 양도

017-587-7193
※ 꼭 마음에 들만한 명당터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부지 405평 건평 목조 한옥 20평
- 가액: 1억 8천

041)753-8137
010-4202-3699

사찰 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 비구니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

011-650-8481
032)667-8485

도심속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8×6미터 코너 112평 건평 120평 1층상가 4개 2층법당 최고시설 완벽함 1층상가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 가액 4억 8천중 상가보증금 융자금 빼고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 답사하시어의논바람
- 주차 80%.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010-3166-8483/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 7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2억7천

- 위치 : 천안시
- 부지 : 15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60평
- 양도가 : 8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2500만원

011-253-7729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사찰(급)안내

- 위치: 마산시 근교
- 대지: 600평
- 건물: 대웅전, 요사채 (토담 신축 고건축)
- 가액: 4억원(절충가능)
- 기타: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30-1808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 배내골
- 부지: 900평
- 법당: 40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4억
- 오묘한 수도도량

- 위치: 부산
- 부지: 25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100평
- 가액: 6억
- 바다보이는 완벽한암자

- 위치: 부산
- 부지: 200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5억
- 전망만점 포교도량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5889,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내
-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40평
- 가액: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135-8229
011-9638-8229

포교당안내

- 부산 교대앞 대로변
- 건평: 30평 법당, 공양간, 접견실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비품: 1300만원
- 운세감정하시는분 환영

010-2690-343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초구 방배동 4층 48평 (이수역 4, 7호선 환승역 2분거리)
- 가액: 보 3000 / 월 100(보증금 조절가) 시설비 답사후 결정(시설A급)

- 위치: 대구시 동구 불로동 3층 65평
- 가액: 총금액 2300만원(집세, 시설비 포함)

016-213-2416(서울)
016-296-0385(대구)

포교원안내

- 법당: 31평, 요사: 방2개, 거실, 주방
- 특징: 1. 최신 시설(즉시 법회 가능) 2.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변이 상가와 패션문화거리로 포교 최적지임 3. 동사무소 옆 4.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20만원(관리비 없음) 시설비 1,500만원(답사 후 절충가)

02)889-5887
010-7195-6596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기와,단청)
- 요사 : 2동50평
- 산신각 : 3평(목조, 단청)
- 가액 : 4억8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사찰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
- 부지 : 약100평
- 법당 : 35평(2층, 단청)
- 요사 : 35평(1층, 단청)
- 가액 : 2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좋은인연 됩니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남 역세권
- 평수: 약 35평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4781-5843

사찰안내

- 위치 : 진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200평, 현대식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큰방5, 화장실1. 2층 법당20평, 공양간20평, 창고10평
-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신중탱화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7-548-5980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 (대구 달서구 소재)
- 건물: 3층(70평) 법당(30평) 방4개
- 특징: 8차선 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 교통)
- 가액: 보증금2천5백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상의

011-699-912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목조 12평
- 요사채 : 벽돌 25평
- 가액 : 8천5백만원

016-652-75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전철역 3분거리)
- 규모 : 17평 아파트 1층 (복도식 코너)
- 가액 : 8,500만원(답사후 절충)
- 현재 법회 운영중 (철학 겸비 호조건)

연락처 011-9036-9993

아름다운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
- 법당 : 25평(목불 4자, 천불조성, 운각)
- 요사 : 50평, 주방 한옥 15평
- 부지 : 672평 중 대지 350평(야생화 축제장)
- 가액 : 4억(집기일체 기증, 즉시입주 가능)

※ 부동산 일체 사절, 답사 후 가격절충 가능

010-4571-3473

상계동에 작은 암자 있습니다

- 암자앞에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작은 기도도량입니다
- 양도 및 전세 가능합니다

010-3773-4367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평수: 25평
- 대로변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 목좋음
- 모든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2천5백만원 월40만원

010-8527-87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봉천동
- 건평 25평, 옥상사용가능, 법당,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8-396-7737

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평수: 1천평 해발 700미터 2차선 포장도로 접
- 가액: 5천만원

011-292-307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총 32평
- 법당 1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 부지: 임야 9천평 종교부지 250평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 화장실 4평
- 가액: 3억6천
- 특징: 납골당 유지, 산세수려하고 물 좋음

055)854-852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 터미널 앞 위치)
- 약 23평,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월 45만원

010-8963-9983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 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편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43)211-7893

토굴(급)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 가액 : 3천 5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1-456-5587
041)741-4351

포교당안내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02)2208-6098

암자(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동진주 30분거리)
- 면적: 972평, 법당: 10평
- 건물: 벽돌조 기와지붕, 단청필, 요사채 3동(각 40평), 큰방(9칸)
- 산세가 수려하고 약수물 좋은 20년된 암자임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55)674-7839

사찰 안내

- 위치: 천안 풍세면
- 법당 18평 삼성각 5평
- 요사채 20평(방3개) 주지채 15평
- 천안 중심가 15분거리 아파트 밀집지역 10분거리
- 집기일체 무상 양도
- 전세가 4천5백만원 (절충가능)

016-239-1475

사찰건물안내

- 대지 241평. 건평 25평
- 법당, 요사채 삼성각 건물 7평
- 위치: 경남 남해 보리암 근교
- 가액: 1억1천만원

042)841-2062
010-6485-2062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 법당 : 1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각단탱화
- 요사채, 방 4개, 공양실 창고, 욕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8678-9950

토굴암자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태백산 자락
- 임법당 30평 요사 20평 오가피밭 4300평
- 전체부지 5000여평
- 산세수려 수행환경 최적지
- 가액: 3억

011-9556-9849

사찰.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 대지: 86평, 건물: 3층, 각 30평(내부계단 평수 제외) 1층- 대중공양실, 방2개 2층- 거실, 방3개. 3층- 법당
- 답사후 절충,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람

010-4840-6510
018-382-453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부지: 사용 삼백평 등기는 백평
- 법당: 18평 기와 단청됨 남향
- 요사: 23평 외 7평 기와 동향 용왕전 3평 약수물이 좋음 산신각 3평 산이 힘있는 도량임
- 미륵부처님 11자 석불로 모셨음
- 절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청정도량임
- 집기일체 구비되고 몸만오시면 됨
- 가액은 일억 이천만원 급 안내임
- 절은 20년쯤 되고 추천하는 사찰임

광진불사 02)723-4082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용도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 옥포지역
- 대지 70평, 건평 60평. 슬라브집 임법당. 법당 평수는 별도
- 특징 : 도시속의 포교원으로 적합 주위 아파트 5천세대, 주택 1백세대, 주위 사찰 없음.
- 가액 : 2억3천만원
- 스님 해외연수 관계로

055)688-5354
016-857-11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850만원 월 23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계곡이 마당에 접해있는 팔공산에 명당 암자, 제2석굴암 부근 금년내 한티재 터널공사 착공예정
- 건물: 법당, 요사채, 용왕당, 정자, 등기 330평 실제사용 면적 500여평
- 가액: 5억

017-805-1456

토 굴 안 내

- 위치: 지리산 자락 화계에 가까움
- 평수: 90평, 건평: 25평
- 방2개, 거실, 입식부엌, 화장실2, 창고2, 보일러실 남양집
- 경관수려, 섬진강과 백운산이 한눈에 보임 깨끗히 수리
- 물좋고 국도에서 승용차로 5분 주차진입가능

016-865-0918
055)884-09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좋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7324-5115

목조문화재 보유사찰 소방실태조사 동행해 보니…

대부분 소방 사각지대

화암사 - 소방수조 동파 우려
송광사 - 소화전 배관 손상
금산사 - 화재탐지시설 없어

소방수조가 지상에 노출돼 겨울철 동파 우려가 큰 완주 화암사, 소화전 관로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는 완주 송광사,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없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4월 5일 양양 산불로 낙산사 주요 전각이 전소된 것을 계기로 사찰 목조건축물의 방재대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연)는 4월 22일부터 주요목조문화재보유사찰 32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에 걸쳐 이뤄진 김제 금산사, 완주 송광사 · 화암사 · 위봉사 등 전북 일원 4개 사찰에 대한 조계종 문화부의 실태조사를 동행해 보니, 소방시설 현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소화전 배치 및 작동 △안전선 설정 △소방수 급수 시설 △자체 소방계획 △경보시스템 설치 △소방로 설치 △유관기관 연계대응 등 1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개 사찰(완주 송광사 · 금산사 · 위봉사 · 화암사)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1984년 대적광전 화재 이후 방화시설을 비교적 잘 갖춘 편인 금산사조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내 유일의 삼층목조건축물인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에는 방범 카메라와 센서는 설치돼 있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160톤 규모의 소방수조도 마련돼 있었지만, 펌프 없이 자연낙차에 의지한 설비로서 소화전 물줄기 위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하앙식(下昻式, 지붕의 하중을 받는 공포 위에 하앙을 덧대 도리를 더 얹을 수 있게 해서 서까래를 건물의 바깥쪽으로 길게 뽑을 수 있게 만든 백제계 건축 양식) 구조를 갖춘 극락전(보물 제663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화암사에는 3개의 소화전이 설치돼 있으나, 이 가운데 물이 나오는 것은 1개에 불과했다.

또 FRP소방수조와 배관 일부는 아무런 보온시설 없이 지상에 노출돼 있어 겨울철 동파 위험을 안고 있었다. FRP수조는 통상 50~60cm 이상 깊이의 매설 혹은 보온 시설을 필요로 한다.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화암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 화암사에 이르는 비포장도로가 협소하고 구불구불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달하기도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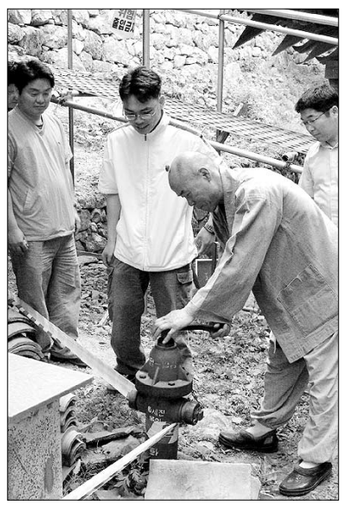
조선시대 것으로는 유일한 십자형 종루(보물 제1244호)와 대웅전(제1243호), 그리고 5m 높이의 거대한 소조삼존불(보물 제1274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완주 송광사에는 현재 소화전 시설이 없다.

종루 · 지장전 · 나한전 등 전각들이 30cm 가량 흙에 묻혀 있어, 비가 오면 기둥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잦아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절토(마당의 흙을 깎아내는 공사) 및 주요전각 이전 공사 와중에 소화전 배관이 손상된 것. 완주군청은 금년 중에 송광사의 소화 시설 전면 재정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봉사는 소화전 시설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위봉사에는 2003년 국고보조로 소화전이 설치됐으나, 작동방법을 잘 모르는 사찰측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간 이뤄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동 봉정사나 영암 도갑사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방화시설에 약점이 발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부족으로 소화용수 확보가 어려운 강화 보문사, 소화전이 없는 안동 개목사 등은 문제가 심각한 경우다.

가장 확실한 설비로 간주되는 수막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수막설비는 소화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소화용수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안전선(산림과 전각 사이에 나무를 베어내 20~30m 간격을 둔 것)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완주 화암사에서 소화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조사단.

이번 조사에 동행한 한 방재전문가는 "화재방지 최상의 시나리오는 초기발견 및 진화"라며 "소방차 도착에 20~30분이 소요되는 사찰의 경우 초기진화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설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태점검에 참여한 조계종 문화부 도윤수 연구원은 "화재 대비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사찰이나 지자체의 인식수준이 아직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사찰 현실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한편, 그에 따른 매뉴얼을 속히 마련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찰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나말여초 승탑, 왕실서 조성 가능성"

왕실 - 선사 교류 활발 … 신장상과 능묘 십이지상 유사

강삼혜 학예사 주장

절정의 예술미를 보이는 나말여초 승탑이 왕실의 국공(國工)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28일 국민대에서 열린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나말여초 승탑 탑신 신장상 연구'를 발표한 강삼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왕실과 선사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승탑의 탑신부에 등장하는 신장상이 왕릉 조각인 능묘 십이지상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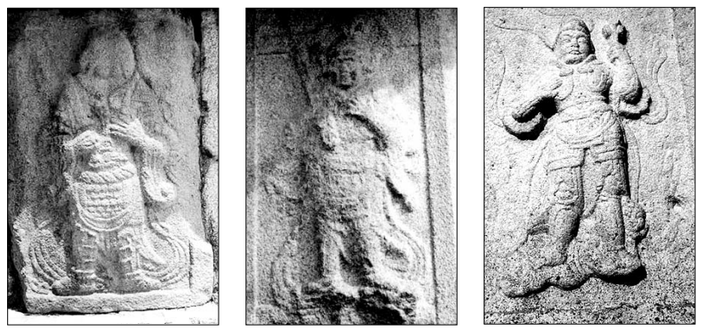
강 학예사의 주장은 지방 선종사찰의 조형물이 중앙과 구별되는 지방색을 띠고 있다는 점만 강조되면서 간과돼오던 중앙과 지방 선종 사이의 연관성을 새로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신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학예사는 우선 왕실과 선사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실상산문 개산조인 홍척스님과 신라 흥덕왕, 희양산문 개산조 지증 스님과 경문왕, 성주산문 개산조 무염스님과 경문 · 헌강왕 등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경명왕은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탑 비문을 지었고, 태조 왕건은 진공 스님의 비문을 지었으며 고려 정종은 봉림산문 3대 옥룡사 경보 스님 입적시에 국공을 시켜 탑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승탑에 대한 왕실의 영향은 미술사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 학예사에 따르면 승탑 사천왕상은 능묘의 십이지상과 도상형식을 공유하고 있다. 갑옷 안에 입은 포의 넓은 소맷자락이나 지물을 든 손모양이나 다리를 휘돌아감으며 내려오는 천의 모습 등 승탑 사천왕상의 표현은 능묘 십이지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승탑 사천왕상의 소맷자락과 관련해 강 학예사는 "거의 모든 십이지상 복식에는 이러한 소매가 표현돼 있으나, 사천왕상이 표현되는 탑이나 석등, 사리기 등에는 이 같은 소매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승탑은 호족세력의 영향하에 조성된 지방예술이라기보다는 중앙양식인 왕실 계통의 작품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동시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거화상탑의 광목천상(가운데)의 소매는 원원사지석탑 광목천상(오른쪽)의 소매와 다른 반면, 왼쪽의 경주능지탑 유(酉)상의 것과는 흡사함을 보인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4>

안반(安般)의 과학

인도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단순하게 보이는 숨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살기 때문이다.

요가에서는 숨에 숨어있는 생명력을 프라나라고 한다. 프라나란 '숨을 쉬는 것(혹은 참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곳에서 생명력의 존재를 느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빠사나를 통해 익숙해진 개념인 사띠(sati)는 들숨(ana)과 날숨(apana)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테크닉이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은 부처님이 월지국에서 머무시면서 90일간 이 들숨, 날숨 테크닉으로 선정에 드신 경험을 설한 경전이다. '수의'는 사이리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숨'은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해 폐로 전달된 공기 중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실려 피에 전달된다. 이 산소가 세포의 에너지 발생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에게 산화제로서 작용함으로써, 원만한 에너지 발생메카니즘을 완성시킨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안이비설신의를 통한 안팎의 정보가 신경세포를 거쳐 뇌로 전달되는데 기여한다.

현대 뇌 과학은 높은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대뇌가 아니라, 숨과 피와 내장을 제어하는 숨골과 대뇌의 연결고리인 변연계에서 '나'라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희로애락을 관장하는 메커니즘이 생성된다는 인식에 도달해있다. 이

부처님 숨 고름 통해 마음챙기는 방법 체험
번뇌 일 때 숨 가만히 들여다 보고 느껴보자

티 즉, 마음 챙김을 번역한 말이므로, 들숨, 날숨을 따라감으로써(수식:숨을 따라감)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설하신 것이다. 간단하게만 보이는 '숨을 따라감'을 통해 절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게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창자가 뜨거워진다고 말한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이를 열중창이라고 말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이 술잔을 나누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감복(感腹: 현재는 感服이라고 쓰지만)이라는 단어도 배가 느낀다는 중국인들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람이 현지 사람들에게 사람이 머리로 생각한다고 했더니,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하는 여행기를 기억한다. 그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런 관점에서 보면 숨이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숨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어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아닐까.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희로애락의 마음이 의도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숨과 연결된 깊은 뇌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리라. 배로 생각한다고 믿는 관념 역시 숨과 연결된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날 때, 숨을 고르고 이 숨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부처님께서 실증적으로 숨의 고름을 통해서, 수 억년 깊은 뇌에서 각인된 업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제17기 전생 · 빙의/영 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 · 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령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사주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6월 16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교 육 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 (VIDEO) 교육과정
통신교육 방식
▶전생 · 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 (7회과정 비디오 테잎 총 20개)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본원에 출석수업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 재 형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6월 13일 오후1시~3시까지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목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일주문



현성정사 제7회 경로잔치 개최
동국대 이사 현성 스님은 6월 3일 서울 은평구 현성정사에서 관내 노인 210여 명을 초청해 제7회 경로잔치를 열었다.



충담 스님 열반 7주기 법회
청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6월 10일 오후 2시 소신공양한 충담당 원상 대종사 열반 7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31)584-0117



광주 천룡사 명산명찰 순례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은 6월 12일 안성 칠장사로 제3차 순례를 떠난다. 오전 7시30분 도청 앞 출발.(062)234-1338



평화 기원 불사리탑 상량법회
영산법화종 법주 행산 스님은 6월 6일 양주시 장흥면 영산법화사에서 조국통일 세계평화 기원 불사리탑 건립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제10회 늦봄통일상 수상
시인 고은 씨는 남북작가대회 성사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6월 4일 故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10회 늦봄통일상을 수상했다.



'고구려 문화와 예술' 강좌
이화여대 강우방 석좌교수는 6월 9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고구려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02)363-1114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장에
음성 고심사 권오현(前 불교방송 전무) 주지법사는 5월 27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불교학과 동문회에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일본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5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 시립대, 교토 부립대, 기오대학 등을 방문, 대학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지구윤리와 종교교육'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는 6월 3일 광주대 세미나실에서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청진동에 사무실 개원
가람바이오텍 대표 이주영 사장은 5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충암빌딩 401호에 사무실을 열었다.(02)723-5126

"아이들 잘 크면 재소자도 희망갖죠"

여성재소자 아동양육시설 건립 성효 스님

"사회의 벽으로부터 격리된 여성 재소자들을 위한 아동 양육시설은 아동과 재소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 용덕사 주지 성효 스님(사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아이들을 돌볼 양육시설 건립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했다.

수원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이 여성 재소자들의 자녀를 위한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8년 전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다. 다른 대상자들도 많지만 스님에게는 구치소 수용자들과 재소자들이야말로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들로 인식됐다.

"재소자들 중에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죄로 보면 되나요."

무엇보다도 스님은 어머니가 재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90% 이상이 입양시설로 맡겨져 해외입양아가 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한 보살이 기증한 용인 이동면 어비리 땅의 터를 다지고 본격적인 건물 준공에 들어갈 예정인 양육시설은 빠르면 올해 10월에 완공돼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스님은 확보돼 있는 80평 건물 부지에다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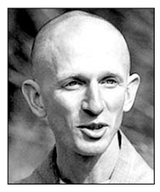
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꽃밭과 놀이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용덕사 신도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정을 듬뿍 받도록 하는 등 스님은 양육 시설의 하나하나를 챙기고 있다.

"자식이 잘 크는 것을 보면 재소자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세계 평화기원 도보행진

미국 태고사 주지 무량 스님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 LA 센페드로 '우정의 종'에서 출발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태고사까지 도보행진을 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국내에서 평화도보행진을 했던 미국 태고사 주지 무량 스님(사진)이 이번엔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다시 도보행진을 한다. 9일간 매일 25마일씩 걷는 것이다.

무량 스님은 예일대 지질학과를 다니던 중 숭산 스님을 만나 1983년 '무량'이라는 법명을 받고 출가했다. 이후 스님은 1993년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현 태고사 터를 발견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요사채 건너편에 기숙사를 짓고 그 후 선방을 만들겠다"고 불사 계획을 밝힌 무량 스님은 "한국불교에는 매우 귀한 보물이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국 LA=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진언 생활화 염원 담았어요"

진언 음반낸 조미애씨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는 조미애(47 · 사진)씨가 1975년부터 조계사 학생부와 어머니 합창단을 지도한 경험을 살려 최근 '만트라'라는 불교 CD를 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음악을 어려워할 뿐 아니라 느리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경쾌한 분위기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씨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진언, 병을 낫게 하는 진언, 업장소멸하는 진언 등 약 15개의 진언에 국악풍, 재즈풍, 관현악풍 등의 다양한 옷을 입혔다. 노래는 조씨와 현수 스님이 각각 절반 정도 참여했다. CD 제작 및 발매에 보스턴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의 격려와 도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국어판과 더불어 영어음반 CD도 제작했는데 영어진언 CD는 곧 개통될 웹사이트(www.mantrasongs.com)를 통해 판매된다.

미국 보스턴=남동우 기자

부산 동명불원 주지에 지오 스님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던 부산 동명불원 신임 주지로 범어사 승가율원 율원장 지오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재단법인 동명불원이 5월 25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동명불원 신임주지로 지오 스님을 승인하면서 동명불원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오 스님은 1970년 광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신임 관세청장에 성윤갑씨



<금강경> 해설서를 낼 정도로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성윤갑씨(사진)가 6월 1일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30여년간 관세청에서 근무한 신임 성윤갑 청장은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장, 환급과장, 부산세관장 등을 두루 거친 세관통으로 통한다. 2003년 관세청 차장 재임 당시 초일류세관 기획단장을 맡아 관세행정 혁신을 주도, 정부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세관장 시절에는 청내 다면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백운 스님 취임식



태고종 강원교구 12대 종무원장 백운 스님(춘천 석왕사 주지) 취임법회가 5월 25일 석왕사에서 개최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원주사암련 회장 원행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취임법회에서 백운 스님은 "종도가 함께 공감하는 일들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륵종 산악회 충북 칠보산 등반대회



미륵종 산악회 칠보산 등반대회가 5월 27~28일 미륵종 충북 종무원장 주석사 찰인 목련사에서 열렸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선원장 덕운 스님을 비롯, 산악회 스님 30여 명과 불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 모임은 7월 11~12일 경기도 대원정사에서 열린다.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수계법회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수계법회가 5월 29일 충성호국사(주지법사 공영호)에서 현역장병 30여 명과 사관생도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계법회에서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한국 국방이 미래를 짊어질 사관후보생들은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 이끌 동량이 되라"고 당부했다.

청교련 제18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5월 2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8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총 13개팀,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날 경연대회의 대상은 명지중졸업연합팀 '숨'의 사물놀이, 최우수상은 금천고 사물놀이, 동대부고 마당극 등이 수상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전문가 과정 개강



불교상담개발원이 운영하는 불교상담대학 2학기 전문가 과정이 6월 1일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40여명이 신청한 전문가 과정의 첫날 강의는 이명화 아하청소년성상담센터장이 맡아 성상담에 대해 4시간 동안 강의했다. 전문가 과정은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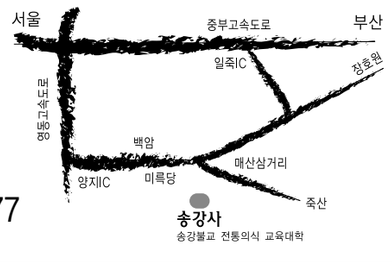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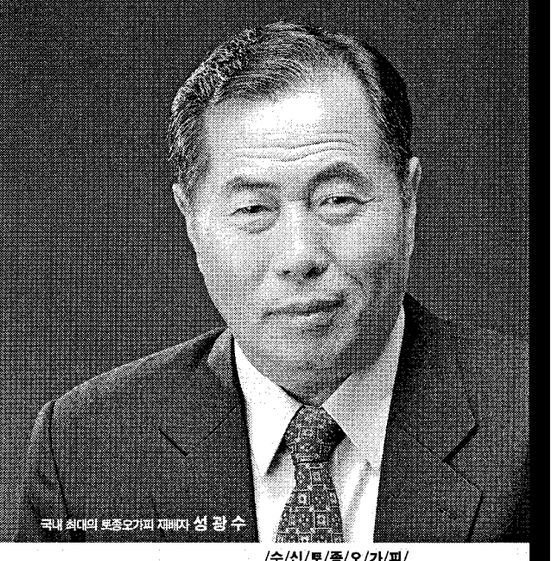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00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00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	00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점안의식	00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좀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지료 신청 02-968-0005



불자 세상보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法'의 가정지키기 노력

서울가정법원은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몇 가지 법률의 개정안과 특례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1956년 창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자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및 불평등한 민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부재산제 관련 민법 ·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안,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본 상담소가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후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 부부재산제 개정과 이혼제도 개선 홍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초점을 맞추어 왔다.

모든 제도 · 관습 · 법은 당대의 가치관과 철학 · 이념을 반영한다. 농업경제 기반의 한 대가족 제도 아래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제도, 관습은 필연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 는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이에 걸맞은 핵가족이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더불어 가족관계 또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지향하며 성원 간 대화와 협력이 가부장의 지배와 통솔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과 특례법안 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기에 일단은 그 시도 및 주요한 개정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부부재산제 개정에 있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이 처분제한을 어기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장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로울 때 혼인 중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으로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내용이다.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상담의 의무화이다.

작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우리 사회의 이혼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 동시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혼이 개인적 선택과 결단의 영역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해체이며, 대체로 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미치며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혼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여 이혼과 이혼 후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양산해 왔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실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한 면이 있으며, 기간이나 상담 내용 등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환영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5월 31일 전국 교구본사 및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 80여 곳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화엄사 등에서 국가보조금 유용사건이 발생, 언론에까지 보도되자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내린 조처다.

조계종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일을 계기로 청정한 승가위의를 확보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라 한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비리나 사찰 운영에 따른 재정 투명화를 하지 못할 경우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고, 인사행정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조계종이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한 일은 환영한다. 그러나 과연 지침만 하달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국고 보조금 창구 단일화 필요

조계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사를 통해 국가지원 사업과 관련한 불사특별회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회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종무지도를 실시할 것이라 했다. 근본적으로 재정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사찰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불사 등은 전 종단의 차원에서 관리 ·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불사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의 결정, 그리고 소요예산의 책정 등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재의 보수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창구(窓口)가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창구가 단일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다. 우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찰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해 우선 조계종총무원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 성보보존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터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성보보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이렇게 들었다 돌아온(?) 청계천

자연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 얻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 없게 하는 것처럼. 〈법구경〉

6월 1일 드디어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흘렀다.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를 앞두고 통수시험을 한 것이다.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른 것은 1958년 복개된 이후 37년만이다.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돌아온' 청계천을 반겼다.

하지만 청계천을 흐른 물은 지천(支川)을 따라 자연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었다. 한강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려져, 정수장에서 정수를 거쳐 청계천변에 묻어놓은 파이프를 통해 올라온 것이다.

공사 완료 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물이 공급된다. 청계천의 수심을 30cm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2만t의 물이 필요하며, 1년에 18억원 가량의 유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계천 공사가 생태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조경 하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계천의 상류 지천인 인왕산 백운동천과 북악산 중학천 등은 복개된 채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고, 정작 청계천에는 취수장의 물이 흘러가게 된다니 우스꽝스러운 노릇이다.

세상 만물은 관계성 속에 있다. 발원지에서 샘솟아 바다로 흘러가는 개천도 예외가 아니다. 청계천은 청계천이라 명명된 구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동천 · 중학천 등 상류지천들을 중랑천 등과 이어주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의 관계성을 절단하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청계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경전 한글화 이젠 생활화 차례

우리불교는 한문경서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어렵다는 데 동의하지 않기는 힘들다.

불교의 숱한 경서를 모르면 불교를 모를까. 극단적으로 한문을 모르면 불교를 못할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면 명확해지니까 말이다. 한문을 모르고 문자를 몰라서 불교를 못한다면 한문 문화권이 아닌 이들은 불교를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하니 이것보다 황당한 말은 없을 것이다.

한문의 우수성은 세계가 이미 인정했다. 다만 한문을 잘 모르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한문경전을 달달달 외게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이것들을 진언처럼 일심으로 외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무 오랜 기간 한자경전으로 의례를 행하고 공부해온 우리 불교집안의 타성을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반야심경〉을 외우기만 하면 되는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공의 체득은 문자에 있지도 않고 아닌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 보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재가자들의 이야기는 흔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보편적인 정상인이라면 부처님 말씀은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재미 있는 이야기와 임시방편적인 언설들이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불교는 한낱 유물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부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교설이다. 부처를 이루는 방법이 교학인 것이다. 부처를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교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부처를 이루는 데 한문실력이 필요한가. 아니다. 편리할 뿐이다. 한문 경서를 읽을 수 있고 독해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대로 번역해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자각에서 경전의 한글화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경전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충실하게 번역돼 한글화된 경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경전을 각종 의례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jabidj(붓다뉴스)

신도증으로 무료입장 안 되네

나는 조계종 신도다. 그런데 얼마 전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에 신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안을 당했다. 신도증으로 무료입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면 전국 조계종 재적 사찰 입장료는 무료라고 알고 있던 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3~4년 전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받았다. 신도증에는 당시 '교무금 연 1만원만 내면 전국 조계종 재적 사찰 입장료는 무료'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영주 시방사, 공주 동학사 등의 4~5군데 사찰이 신도증으로는 무료입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황스러워서 조계종 포교원에 전화를 했다. 포교원 담당자는 "신도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예외 사찰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항의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중이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신도들을 상대로 속이는 것도 아니고 무료입장이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교무금 1만원씩을 내고 신도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리 공지만 되었더라도 무료입장이 되지 않는 사찰에 가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 무료입장이 안 된다면 조계종에서는 신도증을 발급할 때 무료입장이 안 되는 사찰을 표기해 주는 등 신중한 문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모두 된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신도들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영종(충북 제천시 천남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카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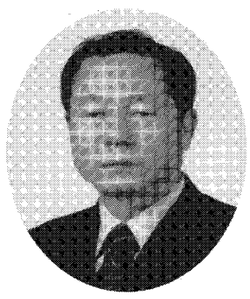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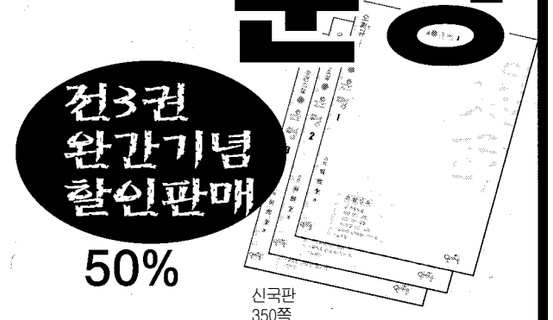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온 세상의 佛書를 모두 모을수는 없지만 가장 빠르고 싸게 만날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yosiamun.com) 국내 최대에서 세계 최대 불서전문 서점으로 변신

"해외 불서 가장 싸고 빠르게 구입하려면 인터넷 여시아문(www.yosiamun.com)으로 오세요."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으로 10여년간 불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온 책방 '여시아문'이 온라인 서점으로 거듭나면서, 신속한 배송시스템을 갖춘 외국 불서 판매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만여 종, 8만 여권의 불서를 갖추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전해 온 여시아문은 당분간 매장을 잠정 휴업하는 대신, 온라인 여시아문을 강화해 추가로 3만 5천여종의 외국 도서를 판매합니다. 인터넷과 전화(02-2004-8220), 팩스 (02-737-0696) 주문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들을 찾아가 불교 세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은 기존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앉아서 국 · 내외 불서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책 내용을 읽을 수 있는 e-book 발간, 특별회원제 운영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해외불서 판매 시작

3만5천여종 15일 내로 배송 가능
인도 MRML · Paljor 출판사등 독점 계약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여시아문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3만5천 여종에 달하는 불교관련 외국 도서(표 참조)를 다량 수입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반 대형서점의 외국도서 판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9일에서 최대 15일 사이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이 원서로 된 불서를 고가에 구매하는 부담과 시간낭비를 줄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본사의 포교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MRML 아쇼크 자인 사장.


팔조 출판사 데왓상 사장.

특히, 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MRML 및 Paljor 출판사와 독점 도서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불교 및 일반 교양도서, 문학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20권의 불서를 공급한 MRML과 195권의 티베트 불서를 독점공급한 Paljor 출판사는 세계적인 불교출판사로서 한국과 인도 및 티베트 불교출판문화의 교류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1952년 설립된 문쉬람 마노하랄 출판사(Munshiram Manoharlal, www.mrmlbooks.com)는 지금까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시크교, 요가, 산스크리트 문학 등 종교와 철학 분야에 많은 명저를 출간한 종교 · 철학 전문출판사입니다. 이외에도 인도 예술, 고고학, 역사, 지리학, 여행, 인도 법률, 인도의학, 약초 재배, 문학 및 언어학, 사전, 예술 관련서적 1천5백여 권을 발간한 사회 · 인문 분야의 중견출판사입니다. 특히 창작 출판물 외에도 유명 불교 계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 남아시아 판(South East Asia Edition)과 인도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관련 책자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 아쇼크 자인 씨는 "여시아문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인도의 양서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수 있게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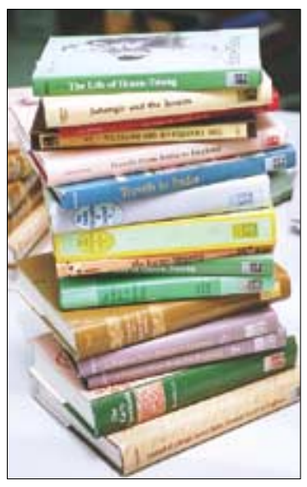
■ 여시아문 해외불서 카테고리

Art,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미술, 고고학, 건축학
Buddhism	불교
Belleslettres	미문학(美文學)
Dictionary, Terminology, Handbook and Index	사전, 어휘, 안내서, 목차
Economics	경제학
Forthcoming	근간서적
Geography, Travel and Voyage	지리학, 여행, 항해 · 여행
Hinduism	힌두교
History, Culture and Politics	역사, 문화, 정치
Indian Law	인도법
Indian Medicine and Medical Plants	인도의학, 인도약초
Islam	이슬람교
Jainism	자이나교
Language, Literature and Linguistics	언어, 문학, 언어학
Music, Dance and Theatre	음악, 춤, 연극
Numismatics and Epigraphy	화폐학, 금석학
Religion and Philosophy/Philosophy of Society	종교와 철학, 사회철학
Sanskrit	산스크리트문학
Sikhism	시크교
Society and Anthropology	사회와 인류학
Tibetan Studies	티베트경전
Indian Archaeology	인도 고고학
Health	건강
Zen Philosophy	선학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팔조 출판사(Paljor Publication, www.paljorpublications.com)는 문화 종교와 함께 티베트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전문출판사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를 포함한 불교, 문화, 역사, 언어 등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책을 망라해 출판하고 있어, 인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명도와 규모를 함께 갖춘 출판사입니다. 게다가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Library of Tibetan Archives)'의 보유서적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고 있어 소장가치가 높은 희귀 서적의 재발간 및 출판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지난 해 맺은 계약에 따라 '티베트 고문서 도서관'에 대한 한국 내 번역 및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팔조 출판사의 영업담당 체링 씨는 "이번에 선보이는 팔조의 주요 도서를 통해 한국불자들이 티베트 불교와 불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불서는 2~3일 만에, 미국 · 유럽의 불서는 9~15일내에 배송된다.



e-book 서비스

교리 · 문예서 등 84종 1차 제작 완료
일반 도서가격의 40%…파일 영구보존

디지털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전자책, 즉 e-book을 이젠 여시아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book은 종이로 인쇄되어 출간되는 일반도서와는 달리 컴퓨터의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일반 도서가격의 40% 정도나 되는 저렴한 가격, 직접 서점에 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 파일을 영구보존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선보이는 e-book중에는 현대불교에서 직접 제작한 청오 스님의 <기초교리> 한/영판을 비롯해 여시아문, 불광출판사, 우리출판사 등 불교출판사들의 단행본과 한정섭 법사의 강의 시리즈 등 총 84종의 책을 1차로 제작, 판매합니다.

■ 여시아문 e-book 리스트

여시아문	감산자전,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내 사주 내가 푼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돌부처,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방편개시, 배낭으로 담아온 인도, 법수로 배우는 불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부처님께 재를 털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삶은 고가 아니다, 생활 속의 불법수행, 선방일기,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아름다움과 깨달음, 왜사,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찬불동요, 참선요지, 허공의 딸꾹질, 어떤 회상 정말 봄은 오는가
불광 출판사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반야심경강의, 삶의 빛을 찾아,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행복의 법칙
우리출판사	구름의 품안에서, 동서양의 비교, 모계효도, 밥티의 소원, 복없는 아이, 삼성각, 선은 무문, 수도와 효도의 길, 수평선의 희망, 숲속의 이야기, 아리랑, 인연가, 자비성불, 자비의 문, 자장가, 태양에 생명이 있다
한정섭 법사	극락세계 이야기, 금강경 오가해,기독교의 상담심리와 불교의 상담심리, 나비의 꿈, 대혜종고 선사와 간화선, 무념국사, 미륵부처님 이야기, 방생의식, 법화경 약찬게, 부모은중경, 불교병리학, 불교신앙의 본질, 불교신행상담, 비유의 세계, 석가여래 성도기, 소동파, 소설달마대사, 약사신앙, 우리말 치문경훈, 유마경과 승만경, 육조대사, 이민환법사법어집, 인과 이야기, 인생 그리고 허무와 공, 조주선과 임제선, 지장보살 본원경 강의, 현대세계사에서의 기독교와 불교
도서출판 솔바람	설법전서 1권~9권
금호미술관	소나무야 소나무야
대한불교진흥원	대불전 1, 2, 3
현대불교신문	The Moon Year 청오스님의 기초교리 (한글 · 영문) 불교와 수학 과학과 불교

부다피아 · 붓다뉴스와 통합회원제 운영

불교뉴스 · 각종 정보 편리하게 만날수 있어

여시아문은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의 한가족으로서 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buddhapia.com), 실시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buddhanews.com)와 함께 통합회원제로 운영하여 로그인 한번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불교계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광대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BMC의 모든 사이트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에서는 붓다뉴스의 불교뉴스와 부다피아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여시아문에서 고객이 구입하고 싶은 모든 도서를 따로 스크랩하고 저장해 이후 클릭 한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야말로 불교 정보의 모든 것을 단한번의 접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여시아문 사이트 개편의 특징입니다.

우수독자 특별회원제

구매실적따라 4등급 분류 혜택

여시아문은 보다 체계적인 독자 서비스를 위해 특별회원제를 신설,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개편된 여시아문 회원제는 구매횟수 및 구매액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등급별 할인 적용 범위

구매수	구매수	금액	혜택(할인율)
A등급	50회	300만원	10%
B등급	30회	100만원	7%
C등급	20회	50만원	5%
D등급	10회	10만원	3%

(연단위로 계산되며 할인율은 구매횟수와 구매액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구매시 적용)

카페 여시아문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


온라인 여시아문의 주문에 따라 배송작업을 진행중인 본사 직원들.

이젠 책속의 카페, 카페속의 책에서 또다른 여시아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시아문 카페가 오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시아문 카페에서는 단순히 고객이 도서만을 구입하는 기존의 일방적인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주문'을 비롯해, 아무 형식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말할 수 있는 '나눔의 문',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소개의 문',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회향의 문', 고객이 직접 책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참여의 문', 책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찰라의 문' 등이 있어 고객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시아문을 열면 상품이 푸짐~ 특별이벤트(6월8일~7월8일)에 참가해 福 받으세요

▲ 여시아문을 열어라~!!

새롭게 문을 여는 여시아문의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달동안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는 모든 분에게는 평생 여시아문에서 책을 구입하실 때 5%의 할인을 받으실 수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회는 딱 한달! 이번기회에 언제나 부담없이 특별한 5%의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북(e-book) 받고 저북 받고~!!

이번에 여시아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e-book을 구매하시면 매주 10분을 추첨,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e-book도 구매하시고 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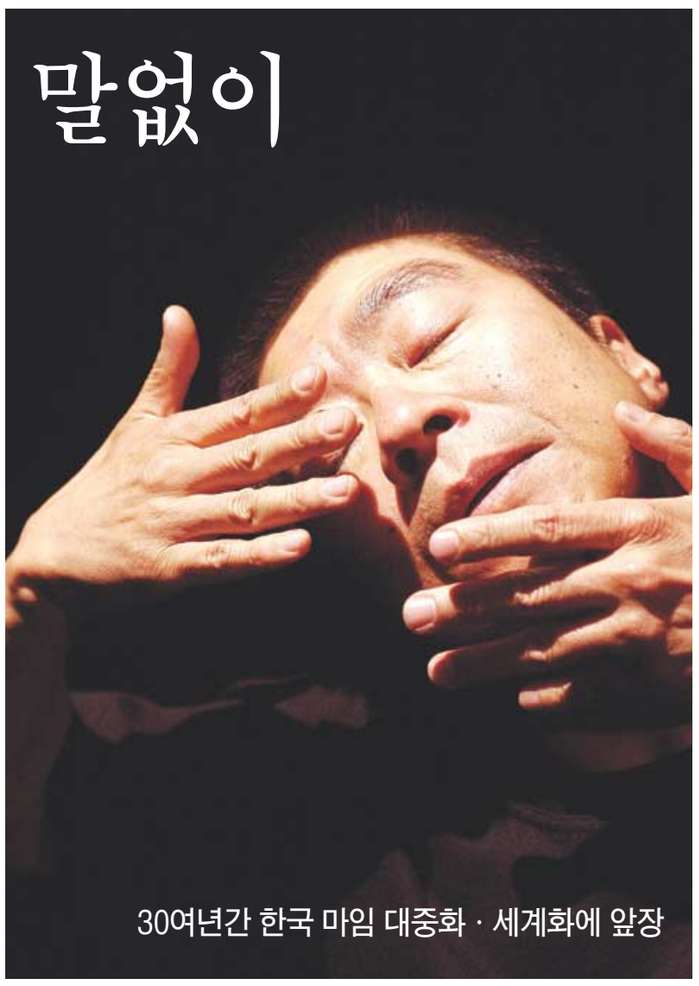
▲ 여시아문을 도배하자~!!

여시아문의 모든 도서 리뷰섹션과 여시아문 카페에 글을 남겨보세요. 좋은 평이나 글을 남기신 고객 중 매주 10분을 추첨하여 여시아문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여시아문을 고쳐라~!!

새롭게 오픈한 여시아문 사이트내에 존재하는 버그를 찾아 주세요. 깨져버린 이미지와 오타, 연결되지 않는 링크 등등 여시아문을 활짝 열게 할 수 없는 버그들을 찾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주 10명을 추첨을 통하여 여시아문에서 마련한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연실 합장주, 열쇠고리 등이며 사정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한국 1세대 마임이스트

유진규

산문밖의 선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는 '2005 마임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다. 순수예술(공연)과 축제(난장)의 복합적 형태를 가진 이 행사는 프랑스 미모스, 영국 런던 마임축제와 더불어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마임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춘천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마임도시로 급부상시키는데 남다른 열정을 불사른 이가 있다.

'마임은 곧 마음이다'를 부르짖고 마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1세대 마임이스트 유진규(54 ·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씨. 30여년 이상을 마임에 공들인 그의 노력 덕택에 지금은 한국문화계에서 유진규가 마임이고, 마임이 곧 유진규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마임'. 그건 대체 무엇일까?

"마임은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사물, 자연현상, 우주의 이치 등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임이죠." 마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시 이어졌다.

"불교에 왜 이런말이 있죠. '꽃은 말없이 피었다, 말없이 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말처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그 속에 담긴 뜻이 분명이 있습니다. 마임은 바로 그 움직임만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술이지요."

유씨가 처음부터 마임이스트를 꿈꾼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동물을 좋아해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1970년 건국대 수의학과에 입학했지만 엄격한 학과 내부규율에 질려 공부에 관심을 잃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학교 연극반이었다.

그때부터 연극에 정신없이 빠져들어 급기야 학교에서 제적까지 당한 유씨는 1972년, 당시 전위적 실험 작품들로 유명했던 극단 '에저또'에 입단한다. 여기서 신체적인 표현을 중시한 극단의 특성 때문에 유씨는 자연스럽게 마임과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 마임이라면 잘리 채플린 흉내가 전부였던 시절, 세계적인 마임이스트 롤프 샤레의 제자를 통해 본격적인 마임 수업을 받았다. 1976년 '벌거벗은 광대'로 마임 인생의 첫발을 내디딘 그의 마임 인생에서 고비가 찾아왔다. 그토록 경멸했던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을 누린것도 잠시, 분노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공황상태가 찾아왔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선 것일까? 이것 역시 한낱 포장하고 꾸민 작위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가' 등등. 이런 생각이 들자 1981년 보따리를 꾸려 객지인 춘천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한동안 소를 키우며 살았다. 그러던 중 공연기획자로 있는 친구를 통해 국내 마임계가 완전히 초토화 직전이란 말을 듣고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몸과 마음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자신의 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이 사실은 많은 부분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삼 자신스럽게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결국은 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97년 춘천 마임축제 준비중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수술도 하기 힘든 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모든 인간관계속에서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마음의 문제가 몸의 병을 불러 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리산 실상사로 들어갔다.

"산사에서 외부와 철처히 차단한 채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내 병은 '인간'들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란걸 깨닫게 되었죠. 꼬일대로 꼬인 인간들과의 업연의 실타래들 말이에요. 명상을 통해 그걸 푸는데 꼬박 두 달이 걸렸어요. 어느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천천히 녹아 내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정말 육체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유씨가 절에서 나와 석달 뒤 병원을 다 시 찾았더니 종양이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한 뒤 실상사를 내려와 그가 산사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무대에 올린 것이 바로 대표작 '빈 손'이다. 이 작품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빠져나가며 텅 비어 있을때만이 새것이 들어찰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산사에서의 생활을 통해 유씨의 연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동작 자체가 단순해 진 것이다.

"그동안 제 마임은 화려함과 동작의 다양성만을 추구해 왔어요. 하지만 그건 정작 사물이나 우주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사람, 사물 등 제 마임 소재들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면 그저 단순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 동작 자체가 훨씬 단순해져야 겠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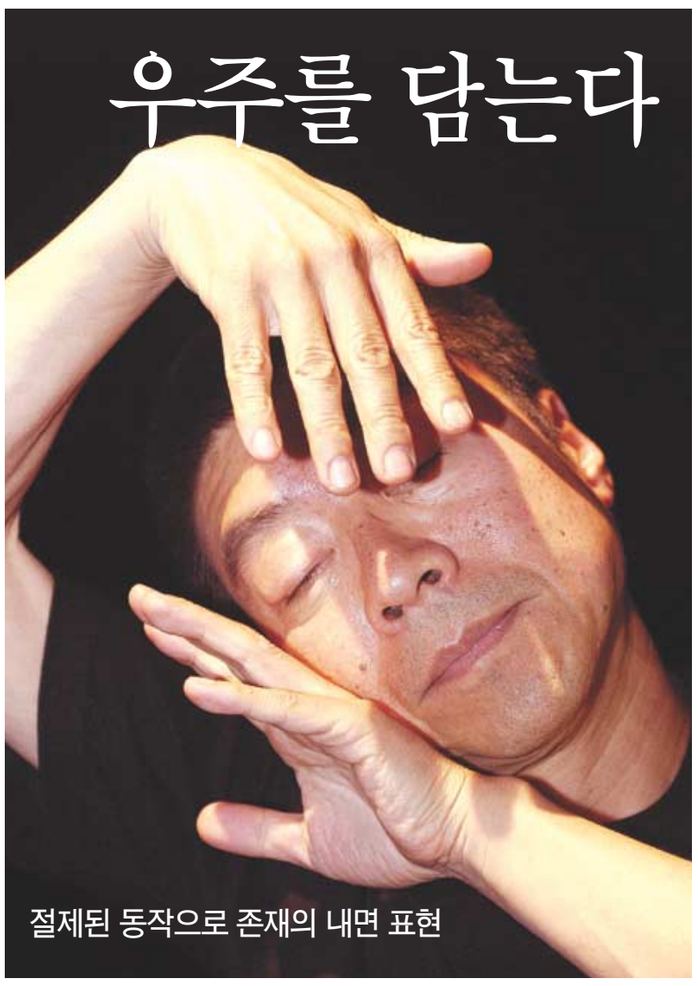
그는 요즘도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이면 춘천 옥천동 '마임의 집'에서 '빈 손'으로 무대에 선다' 또 시민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마임강좌'도 열며 마임을 대중들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일반인들도 마임을 통해 말이나 글에 의해서 눌려 있던 움직임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것이라는 유씨는 지금 새 작품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구상중이다. 절반 가량 완성된 상태인데, 올해 안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요즘은 몸이 안 좋으면 벌써 느낌이 팍 와요. 그러면 '아 마음에서부터 이상이 생겼구나'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바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공연전에는 반드시 명상을 합니다. 철저히 내 몸과 마음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묻히고 온 번뇌 찌꺼기들을 명상을 통해 털어내려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보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공연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까. 그의 마임에는 소리 없는 몸짓의 아우성을 통해 존재의 내면에 깃든 말을 전하는 선적 언어들이 무수히 박혀 있다.

춘천=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각 장애인 위한 강좌 열며 작품 '불립문자' 구상중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 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 (kWh)	요금(원)	사용량 (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화 031-791-8871 792-8867~8

나의 수행법

김경종 (下)



다섯째 날, 새벽 1시 법당에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새벽 3시경 경행을 하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었다. 반가워서 경행을 1시간 20분 동안 계속했다. 다리는 무거워서 고통스러운데도 '고통' '괴로움'의 명칭을 떼면서 경행하니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갑자기 조용한 순간이 없어지고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경행하면서 이렇게 울기는 처음이 아닐까. 몸이 불편한 고통은 이제 아무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새벽 4시, 좌선 할 때에는 아무리 해도 집중이 안 됐다. 아침식사도 거른 채 1시간 동안 잠만 잤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수행은 불만족 그 자체였다. 집에 있는 건지 수행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온갖 생각을 했다. 밤에 자지 않고 철야수행을 했다. 평이한 방법으로 수행해서는 나의 틀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여섯 째날, 철야하면서 새벽 3시경 경행하는데 발이 아주 가벼워졌다. 마음이 미세해지면서 새벽 5시경에는 더욱 발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옛날의 일,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사라지곤 하는 것을 봤다. 점심을 거르고 스님의 지시대로 1시간 30분 동안 눈을 붙였다.

저녁에 스님은 법문을 끝낸 후, 수행자들에게 3시간 연속 좌선을 하라고 하면서 지키고 계셨다. '큰 일 났다' 생각하고 '어쨌든 현재만 보면서 좌선하면 된다'고 믿고 배의 팽창과 수축에 알아차림을 온힘을 두었다.

2시간이 되니 다리의 통증이 심각했다. 그러나 통증은 통증 자체로만 보게 되니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 아니 괴롭기는 하지만 괴로움을 괴로움 그 자체로 보니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통증이 있어도 나와 관계없이 저만치 떨어져 있다가 3시간 될 무렵에는 통증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통증을 정복한 쾌감은 대단했다.

수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됐다. 그래도 좌선과 경행을 하면서 끝까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을 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일상생활의 틀을 깨는데 이번 수행은 많은 도움이 됐다. 또 붓다락키타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한 행운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나로서는 치열했던 2001년의 수행일기를 들쳐보면서, 혹시나 다른 수행자들에게 위빠사나 수행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해 적어 보았다.

통증을 그 자체로 보니 괴로움 사라져
바꾸고 싶어했던 일상의 틀 깨고 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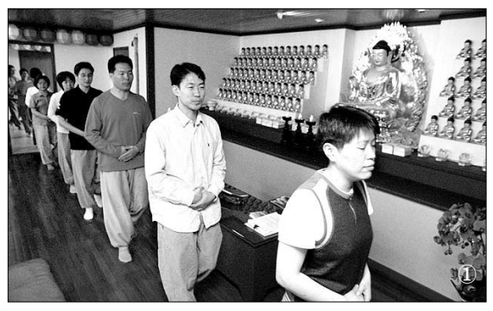
그 후로도 나는 매년 1주일씩의 집중 수행에 참가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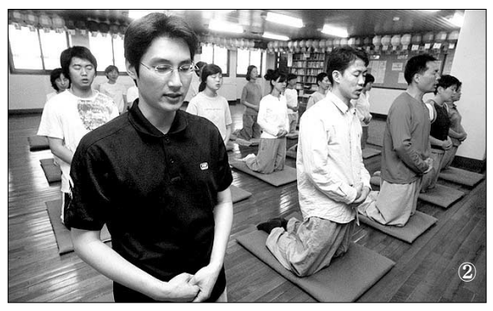
수행의 결과는 나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이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다. 다만 나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많이 자리잡기를 바라게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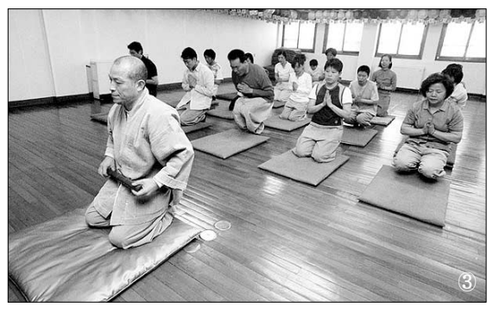
불선업의 생각이 없어지고 선업만을 쌓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됐다.

무엇보다도 위빠사나 수행은 항상 수행을 벗으로 삼고 불만족도 나의 친구로 삼고 지낼 수 있게 만들었다. 위빠사나 수행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생각하니 그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크다. 앞으로 더 클 것이다. (끝)

■ 법조인







감사수행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법왕정사 군자법당에서 총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수행은 행선(行禪)과 좌선(坐禪)을 두 차례 1시간씩 번갈아 하고, 마지막 1시간은 절과 행선으로 회향한다. 사진은 감사수행의 진행 순서. ①행선→②좌선→③절
사진=고영배 기자

#체험사례 1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진정 가슴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같아요. 불평 · 불만이 마음에 들어오고 욕심이 생길 때 고통도 함께 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다 시작한 감사수행은 일상에 파묻힌 나를 일깨웠지요. 주위를 돌아봤어요. 부처님 아닌 분이 없고 불국토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과 친척이 멀게는 일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었고, 물 바람 공기 등 뭇 자연 모두가 불국토였습니다. 잠시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고 살 수 없었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속에서는 탐 · 진 · 치 삼독심이 자리할 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cafe.daum.net/sorisan. ID 明華)

#체험사례 2 감사수행은 마치 통장에 저축하는 것과 같았어요. 빈 통장을 갖고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처님 고맙습니다'란 생각이 별로 없는데, 마냥 고마운 일만 바라고 있지요. 감사수행은 이처럼 고맙다는 마음을 새기는 수행법이죠. '부처님 고맙습니다'란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흘러나와 저절로 고마운 일도 생기도 고마운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감사수행을 지극히 하면 염송하는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염송만 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돼요. (정정옥 · 33)

'부처님~ 고맙습니다' 5시간 쉼없이 염송

현장 |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감사수행'

'감사(感謝)' 수행. 일반 불자들에게 무척 생소한 수행법이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연 이 수행법의 원리는 무엇인지, 또 왜 하는지 등 감사수행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따라붙는다.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인 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이 2년 전부터 주창, 지금까지 27회 넘게 진행돼온 감사수행의 요체를 알기 위해 5월 27일 서울 군자법당을 찾았다. (02)456-4994

행선(行禪)→좌선(坐禪)→절

'부~처님~크신~은혜~고맙~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을 외면서 법당을 돈다. 밀물과 썰물처럼 운율을 타면서 외는 소리가 경쾌하다. 내딛는 발걸음에 염송소리가 착착 맞아 떨어진다. 내딛는 왼발에 '부~', 다음 오른발에 '처님~', 다시 왼발에 '크신~', 오른발에 '은혜~', 왼발 '고맙~', 오른발 '습니~', 마지막 왼발에 '다!'가 일치된다. 감사수행의 첫 단계인 행선(行禪)이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염송소리가 좌선 자세로 이어진다. 두 무릎을 바닥에 붙여 양 손을 단전에 댄 채 장궤자세로 20분간 염송한다. 이어 무릎을 꿇은 채로, 가부좌자세로 각각 20분간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왼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다시 염송은 행선과 좌선 자세로 각각 1시간씩 더 진행된다.

4시간째. 마지막으로 절을 하면서 염송한다. 어느 하나 지친 기색 없이 청견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온몸과 마음이 절과 염송에 맡겨진다.

마음속에 긍정의 언어 뿌리내려

청견 스님은 "감사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알려 주신 가르침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속에 '고맙습니다'는 긍정의 언어가 생겨,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견 스님의 생각은 감사수행이 참회법의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마음자세를 갖추기 수월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겪어도 감사수행은 수행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 진심으로 참회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어두운 마음과 운명을 짧은 시일 안에 밝은 행복과 건강한 운명으로 바꿔줍니다. 이 때문에 감사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특히 감사수행을 기초수행인 호흡법, 운율법, 자세법, 업장소멸법, 절, 위빠사나 등을 포함해 계발한 종합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감사수행이 화두를 본격적으로 들기 전에, 수행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수행법이 된다는 것이다.

염불선 수행과 닮은 꼴

그럼, 청견 스님이 주창한 감사수행의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염불선(念佛禪) 수행법에 있다.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화두 삼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워 결국,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깨닫는 염불선 수행법이 바로 감사수행의 원리가 된다.



청견 스님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는 감사수행의 화두가 됩니다. 이 말을 지극하게 염송(念誦)하면, 삼매의 경지에서 '나와 모든 이가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수행은 간절히 '부처님~고맙습니다'를 염송한다는 측면에서 염불을, 본래성불을 화두로 확인하는 측면에서 염불선 수행을 닮았습니다."

잠 없어지고 화두 저절로 들려

천 일간 염불을 15만 번 정진해 염불삼매를 체험한 청견 스님은 감사수행의 효과를 염불선의 4단계 과정과 호흡법 등을 통해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 고성지(高聲持) 단계에서는 '부처님~고맙습니다'를 자신의 목소리 톤보다 한 옥타브 높여 염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염송하면 10가지 자기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잠이 없어지고(能排睡眠) △온갖 장애가 사라지며(天魔驚怖) △일상사가 염송소리로 가득 차고(聲邊十方) △일상사의 고통이 쉬게 되며(三途息苦) △잡다한 외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外聲不入) △염송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며(念心不散)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고(勇猛精進) △모든 부처님을 보게 돼 환희심이 생기며(諸佛歡喜) △삼매력이 깊어지고(三昧現前) △바로 여기가 정토임을 알게 하는(往生淨土) 등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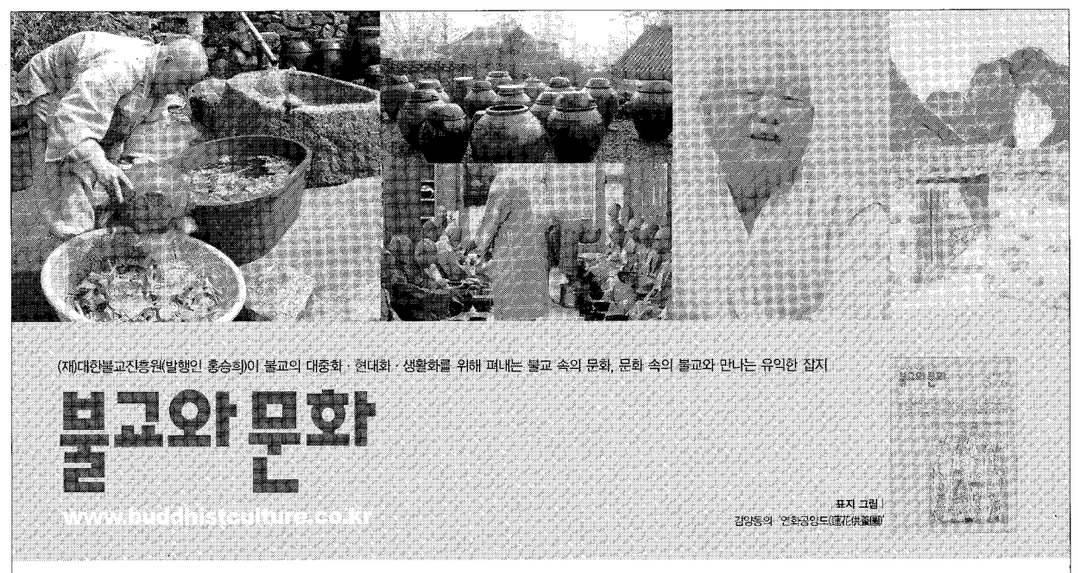
이때 호흡은 들숨이 저절로 아랫배로 싹싹 내려가게 돼, 하루 종일 염송을 해도 목이 쉬거나 아프지 않게 된다. 숨도 가쁘지 않게 돼 감정 통제가 자유롭게 되면, 날숨은 길어져 안정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고성지를 통해 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미성지(微聲持)로 염송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혓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舌持)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후 꾸준히 이렇게 염송하면, 염송할 것도 없이 저절로 염송하는 경지인 금강지(金綱持)에 이르게 돼 웬만한 번뇌 망상은 다 끊어진다. 설사 번뇌 망상이 남아 있어도 염송이 더 세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신 입 생 모 집
동방대학원대학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 6. 1(수)~17(금)
· 전 형 일 자 : 2005. 6. 25(토)
· 전 형 방 법 : 서류 · 면접 전형
· 합격자발표 : 2005. 6. 29(수)
모 집 학 과 전 공
◆ 문인서화학과
서화예술학전공 / 옻칠조형학전공 / 예술경영학전공
◆ 불교문예학과
불교문예학전공 / 동방미술사전공 / 요가명상학전공
◆ 민속문화학과
역경풍수학전공 / 무속연희학전공 / 자연치유학전공
석사과정 수업년한 : 2년(4학기)
학사학위가 없는 분을 위하여
학과전공별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동 방 대 학 원 대 학 교
자연치유 전문가
최 고 위 특 별 과 정
웰빙시대의 자연치유 최고전문가 양성 기관
1. 접수 및 개강일
1) 접수일 : 2005 년 6 월 1일 - 6월 30일
2) 개강일 : 2005 년 7 월 5 일 [화요일]
2. 교육과목
• 음양오행연구 • 오행식이요법 • 경락경혈연구
• 요가명상연구 • 체형교정요법 • 단전호흡연구
• 기공체조연구 • 민간자연요법 • 교 양 특 강
3. 과정 • 수업방법
1) 1년 과정[2학기] : 총30주강의
2) 화 • 금 : 18:30 ~ 21:00
4. 수강대상 · 정원
1) 의사 · 한의사 · 약사
2) 제약업 · 보건업 · 실버산업 종사자
3) 의약관련 대학생 · 대학원생
4) 관심있는 일반인 ※ 정원 : 30명
5. 제출서류 및 등록금
1)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 1학기 등록금 : 2,300,000원
6. 기타사항
1) 총장명의 자연치유 전문사 수료증 수여함
2) 자격 검정 후 자연치유사 민간자격 부여함
3) 본 대학원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 3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총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표지 그림 | 김양동의 '연화공양도(蓮花供養圖)'
2005년 5 · 6월호 주요 내용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특별설문조사
2005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종교, 특히 한국불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을 살펴보고 향후 불교가 나아가야 할 역할모델을 제시한다.
〈2005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불교〉
1. 설문조사 결과 – 일반인의 눈에 비친 오늘의 한국불교
2. 설문조사 분석 – 이제는 종교도 서비스 시대
특집 | 자살 예방, 불교 안에 길이 있다
최근 전 연령층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자살(自殺). 불교 수행법에서 그 예방법을 찾아 본다.
자살에 대한 일반 이해 – 자살동기 및 방법의 변화
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와 대처
자살 예방을 위한 불교수행법의 모색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③ | 종범 스님의 "연기(緣起)란 무엇인가"
다보법회 지상중계 | 정무(正無) 스님의 '효(孝), 인연을 알면 행복이 온다'
장로대담 |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天雲) 스님과의 수행한담
테마기획 | 홍매화 향내 그윽한 절, 순천 조계산 선암사 이침공양 풍경
시로 지은 절 | 그림으로 만나는 서정주 作 「선운사(禪雲寺)」
문화기행 | 떠도는 성보 ③ 부도와 탑비
포커스 | 책 만드는 사람들이 고른 좋은 불서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 충청지역('진사모' '체천불교어머니 문수회')
해외통신 | 영국 옥스퍼드에서 띄우는 편지(한 아시아 스님의 영국 포교기)
고전읽기의 즐거움 | 소동파 거사의 "술을 곡차나 반야탕이라고 해 봤자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다"
(업서) 절로 가는 길 – 구례 천은사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⑥ - 광주 마하연 선원

위빠사나와 유교가 만났을때



선원 신도들이 '요가 수트라'를 강독한 뒤 주지 목우 스님의 지도로 요가 수행을 하고 있다.

고전읽기·요가·경전 강독 등과 위빠사나 결합
'강좌-명상-점검' 順 진행…생활 수행 자리잡아

광주 주월동 대동고등학교 앞에 자리한 마하연 선원(주지 목우)은 위빠사나(Vipassna) 전문 수행도량이다. 그렇다고 이곳에서는 꼭 위빠사나 수행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위빠사나와 요가, 위빠사나와 유교의 만남이 진행되는 열린 수행공간이다. 때로는 기도하는 목탁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초등학생들이 모여 한자공부를 하는 학습 공간이 되곤 한다.

"수행에 있어 '이것이 제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기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빠사나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직접 실천했던 초기불교의 원형으로 재가자들이 생활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연 선원 주지 목우 스님은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위빠사나 수행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우 스님은 해인강원을 졸업하고 10여 년간 제방의 선원에서 간화선 안거수행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위빠사나 수행을 접했다. 수행과정이 체계적이고 생활 속에서 실증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가자에게 훌륭한 수행법으로 확신하고 직접 미얀마에 건너가 수행했다.

국내에 들어온 스님은 본격적인 위빠사나 보급에 나섰고, 지역 사찰은 물론 불교 교양대학, 자비 신행회, 천안 호두마을 등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위빠사나 전문수행도량인 마하연 선원을 개설했다. 도로변 상가 3층에 자리한 마하연 선원은 40여 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필요에 따라 법당은 물론 강의실, 지대방이 되곤 한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위빠사나 수행은 요일마다 다르다. 고전읽기(월, 오후 4시), 요가(화, 오후 7시), 경전강독 기초(수, 오후 3시 30분), 경전강독(금, 오전 10시 30분), 어린이 명상요가(토, 오후 2시) 등 수행자에 따라 다채로운 이론 강좌가 곁들여진다.

수행은 '경전강독-명상-점검' 순으로 2~3시간 진행된다. 모든 수행은 경전을 통한 기초를 다진 후에 본격적인 위빠사나 명상에 들어가고, 차를 마시며 '공부 점검'을 받고 수행을 마무리 한다.

특히 월요일에 진행되는 고전 읽기반은 유교의 기본서인 <명심보감>을 교재로 강독 한 후 위빠사나 명상을 한다. 유교와 위빠사나의 결합이다.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 위에 명상을 곁들이기 때문에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도 쉽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장점이 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요가반도 '요가 수트라'를 강독한 후 명상과 요가 수행을 병행하고 '공부 점검'을 받는다.

요가 전문가로 요가원 개설을 준비 중인 이경희(46)씨는 "요가와 명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명상을 통해 수행의 단계를 높여간다"며 "처음 6개월간 <아함경>을 보면서 접한 위빠사나 수행으로 요가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요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요가반 수행자들은 "요가를 하다보면 몸을 다스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명상으로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며 위빠사나 수행을 강조한다.

마하연 선원에서 공부중인 수행자들은 비교적 젊은 편이다. 대부분 3~40대로 종교, 사상, 학식, 빈부와 관계없이 위빠사나 수행으로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은 "생활 속에 그대로 녹아드는 수행이다"는 것이다.

지도법사 목우 스님은 초보자들에게 호흡관찰을 강조한다. 호흡관찰로 마음을 집중하는 힘(사마타)을 키워 날뛰는 마음을 먼저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1개월가량 수식관을 하도록 한 후 또 한 달간 호흡의 처음, 중간, 끝을 바라보며 호흡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도록 한다. 그런 뒤에 지속적으로 감각, 느낌, 생각을 관찰하도록 해 실제 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절에서 기도를 하던 중 마하연 선원을 찾은 문명희(32)씨는 "기도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호흡이 몸을 주도하고, 호흡을 이끄는 것이 마음인 것을 체험하면서 불편했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평상시 나타나는 조급함도 '조급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지고, 그 기운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전달되기에 하루하루 자신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마하연 선원에서 진행되는 '생활 속의 위빠사나'는 나이를 초월해 어린이에게도 시도되고 있다. 토요일에 펼쳐지는 어린이반은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과 기초한문이 어우러져 인기가 높다.

이처럼 위빠사나를 근간으로 일상생활을 회통해 수행으로 이끌고 있는 목우 스님은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조금 씩 조금 씩 마음집중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보다 완전해진 수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62)676-2840. cafe.daum.net/maha2841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남양주 봉인사, 위빠사나 집중수행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6월 10일~6월 23일 13박 14일간 봉인사 자광전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집중수행에서는 우 자나카 스님을 증명법사로, 자애수행과 위빠사나 수행, 수행법문, 개별 면담 등이 열린다. 동참금 39만원 참가인원 24명 선착순 마감. (031)574-5585

한국요가연합회 하계연수

한국요가연합회(회장 신석규)가 7월 26일~8월 8일, 8월 7~19일 히말라야 리쉬케쉬에서 하계연수를 갖는다. 이번 연수에서는 8일에 걸친 요가니케탄 아쉬람 요가 코스 이수, 델리 · 아그라 · 자이뿌르 관광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원하는 경우 15일간 요가 아쉬람에 머무르며 현지 요가지도자로부터 수행 지도를 받을 수 있다. (02)3676-707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0>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행자에게

어록을 읽다보면 '끓지도 않고 넘쳐버린' 이른 바 오버하는 초심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보통 행자(혹 사미승 또는 동자승)로 표현되는 그들은 순수함과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날이 넘어 기상천외한 소리를 흉내만 내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 초심자의 때묻지 않는 마음이 철딱서니가 없어 기성 스님들을 당황케 하는 것이다.

위산선사 회상에서 있던 일이다.

한 행자가 선객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다. 대뜸 행자는 부처님에게 침을 뱉었다. 같이 갔던 선객이 기가 막혀 한마디 했다.

"행자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방자하게 부처님께 침을 뱉느냐?"

그러자 이 행자가 당돌하게 그 선객을 빤히 쳐다보고서 되물었다.

"부처님이 없는 곳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곳에다 침을 뱉겠습니다."

그러자 그 선객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당 부처님께 침 뱉고는 "부처 없는 곳 알려달라"
당돌한 행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당해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부처라고 하였으니 그 말도 맞기는 하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방(棒)을 휘둘러야 하나. 아니면 뺨이라도 철썩 때려주어야 하나. 아무리 어린 행자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어 위산 선사에게로 달려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물었다. 위산 선사가 말했다.

"거참! 어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도리어 어진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물론 어진 사람은 그 선객이고 나쁜 사람은 그 행자이다. 그런데 문답 한마디에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행자는 똑똑해졌고 그 선객은 어리석게 된 까닭이다.

속으로 이렇게 제자를 꾸짖었을 것 같다. "그러길래 내가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누누이 당부했잖아. 이놈아! 행자한테 당하고 왔으니 꼴좋다 꼴좋아. 네놈부터 한 몽둥이 먼저 맞아야겠다."

그러나 어록 속에서 위산 선사는 그 제자를 때리지는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한 말씀 하셨다.

"그 순간 너는 그 행자 얼굴에다가 바로 침을 뱉어야 했었다. 그리고 행자가 뭐라고 하거든 '나에게 행자 없는 곳을 보여준다면 거기에다가 침을 뱉겠노라'고 했어야 했다."

부처 없는 곳이 없듯이 행자 역시 없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부처이니 행자 자신도 부처이기 때문이다. 부처에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도 침을 뱉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구조로 인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 높이 뱉고 난 뒤 자기 얼굴에 떨어지길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상대방이 침을 뱉어주는걸 맞으면 된다. 그 정도 경지도 못 되면서 어설픈 선문답 흉내나 내는 놈은 침이 아니라 똥오줌을 한 바가지 둘러쓰우더라도 할말이 없어야 한다.

위산 선사에게서 명답을 구해왔지만 이미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이니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법당으로 그 행자를 끌고 가서 시나리오대로 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그 때는 활구(活句)가 아니라 사구(死句)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소에 열심히 수행하여 안목을 열어두어야만 이럴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로(正路)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행자의 잘못이 아니라 곁에 있는 스님의 잘못이 더 크다. 행자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침을 뱉자마자 바로 곁에 있던 스님이 행자 얼굴에 즉시 침을 뱉고 난 후 이 문답이 이루어졌다면 뭔가 서로 좀 (공부경지가) 있어 보였을 텐데 둘 다 맹탕인지라 하나마나한 문답이 되어버렸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가락동 로데오거리 문정역 200M 문정1동 동사무소 대한미륵창운회 유불선천기도장 성남방향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주자학, 불교에 근접하여 새로워진 유교

명덕(明德)은 아시다시피,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 첫머리에 나오는 표준구입니다.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 즉 인간 교육의 목표, 혹은 위대한 정치의 이상은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덕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말 그대로,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한 개인에게 요구된 도덕적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주자는 그러나, 이 개념을 자신의 사유 속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자의 새로운 유교

주자는 자신의 파격적 해석을 설득하기 위해 <대학> 경전을 다시 편집하고, 거기다 자기가 쓴 글을 끼워넣기까지 하는 참람한, 혹은 독창적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조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독창적 해석의 취지는 서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누구에게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주었다. 그런데 기질(氣質)의 받음(稟)이 고르지 못해, 각자가 '이미 갖고 있는(固有)'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총명한 지혜의 사람이 있어 자신의 본성을 장악한 선각(先覺)이 되면, 하늘은 그로 하여금 억조창생의 군사(君師)로 세워,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쳐, 그리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본성을 회복하게' 했다."

이 말에서 분명하듯이, 주자학의 과제는 "자신의 숨겨진, 때 묻고 탁해진 본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곳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자는 인간의 모든 훈련과 교육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修己), 다음 다른 사람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治人)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목표이고, 수많은 제도와 법률 또한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이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굳이 <대학> 본문의 친민(親民)을 새롭게 한다는 뜻의 신민(新民)으로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조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모토를, 자신의 깨달음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어둠을 걷어내는 이를테면 '깨달음의 사회화'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질의 가림과 업장의 두터움

주자학에서 성(性)과 명덕(明德)은 동의어입니다. 그 모두가 우리 마음의 바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빛은 인간의 편견과 의도, 선입견 등에 의해 굴절되고 외곡되어 있습니다. 주자학은 이것을 '기질의 가림(氣質之蔽)', 혹은 '기질의 구속(氣質之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다가, 대상을 향한 사적 의지와 탐욕이 가세하여 그 빛을 더욱 짙게 차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짙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래의 덕(德)이 갖춘 어둠은 끝끝내 질식되지 않습니다.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 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그것은 흡사 "재에 파묻힌 불씨, 진흙에 덮인 구슬, 먼지에 뒤덮인 거울"처럼 때묻고 가려지고 더럽혀져 있지만, 자신의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도 어느 순간, 그 뒤덮인 어둠의 한 틈서리를 뚫고 자신 내부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내 속에 있던 덕성(德性)의 빛이 '분명하게(洞然)' 드러납니다. 그것은 흡사 불교의 깨달음이나 선가의 돈오(頓悟)같은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험이 그렇게 신비롭고 비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사람과 얽히지 않고, 일도 쉬고, 문득 깊이 휴식할 때, 안팎이 다 고요할 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런 편견이나 의도가 없이 무심히 사물과 응접할 때 그 덕(德)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의지적 장애만 없으면 본래의 빛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학의 기획은 철저히 내면적이고 그 중심은 자각에 있습니다. 주자는 "마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벗겨 내는 것"이 바로 공부이며, 그 어둠을 벗겨냄으로써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마음의 빛'을 회복했을 뿐인 것입니다.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본성의 밖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찾는다는 것이 아니다." (所謂明明德者, 而非有所作爲於性分之外也.)

그럼, 이제 문제는 각자의 본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그 빛과 힘을 회복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주자는 다양한 공부와 수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적은 대로 그 핵심은 경(敬)입니다. 경에도 여러 공부가 있지만, 그 중심은 구방심(求放心), 즉 '집 나간 마음을 불러오기'입니다.

경(敬)은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는 공부

방심(放心)이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비자각적 상태', 멍한 정신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자학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이 행위자의 외면적 선택에 유래하기 이전에 이미 원초적으로 내면적 자기망각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방심, 즉 자기 망각에 있는데, 주자학은 이 자기 망각이 유전과 경험의 복합으로 하여 심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방심(求放心)은 바로 이런 자기 망각의 비자각적 상태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노력인데, 그와 같은 의식의 혼란(昏亂), 즉 혼침(昏沈)과 산란을 깨고 생생한 자기의식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은, 그러나 아주 쉽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차!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었지?"라는 자각이 전부지요. 그것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공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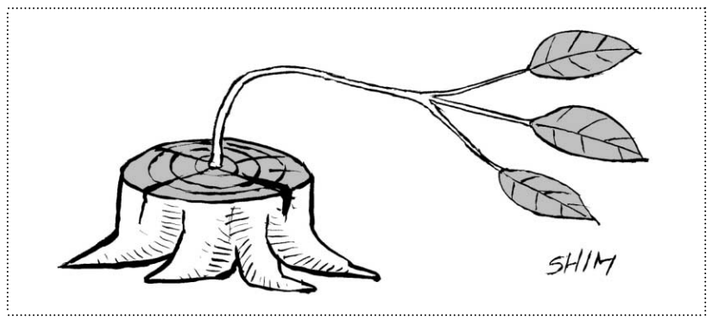
이 훈련이 득력(得力), 힘을 얻으면 운전 연습 때처럼 자각의 지속이 길어지고, 또 밝은 상태가 고양됩니다. 이로써 유전과 경험의 복합으로 하여 구조화되어 있던 자기 망각과 그와 연관된 두터운 업장의 장애가 엷어지면서, 동시에 인간 내부에 본래 있던 덕성(德性)의 빛이 점점 더 크게 밝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양성(養性), 즉 '덕성의 배양'은 동시에 복기초(復其初), 즉 "자기 안에 있던 본래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퇴계는 이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율곡에게, 구방심이 공부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그 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구상은 그러나 주자의 것이지,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맹자>의 발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방심(放心)을 '자기 의식의 망각'이라는 사태로 읽지 않고 '양심의 망각'으로 읽었습니다. 이 차이는 맹자와 주자의 학문을 가르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자의 새로운 포부와 구상이 어디선가 늘 듣던 이야기같지 않습니까. 불교의 자각각타(自覺覺他),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도와 언술만 다를 뿐, 취지는 같아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컨대 이 '자각'의 기획이 주자학을 불교와 근접시키게 했고, 원시 공맹의 유학과는 거리가 있게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새로운 유교'(Neo-Confucianism)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둠 속에 갇힌 불꽃



주장자따라…

69 지월 스님의 '마음 돌리기'

조태호



병안 지월(炳安 指月:1911~1973): 1927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출가. 자비인욕 보살로 불릴 만큼 하심(下心) 선사로 유명. 해인총림 주지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불교 수행법이 다양한 이유?"

문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절, 간경, 사경 등 그 수행법의 종류와 방법이 제각기입니다. 왜 이렇게 불교 수행법이 많나요? 또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안목이 필요한지요? 또 이 수행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만약 그것이 깨달음이라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으로 과연 깨달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fotago)

답1 : 사람의 꼴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꼴이 수용 소화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기에 다양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 꼴을 벗어날 줄도 알아 더 여유로 와지고 자유로 와지는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참선, 염불, 절, 간경, 사경 등의 수행법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 염불 간경 사경 등으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사람에 꼴에 따라 맞추어진 것이라어느 게 더 낫다 할 순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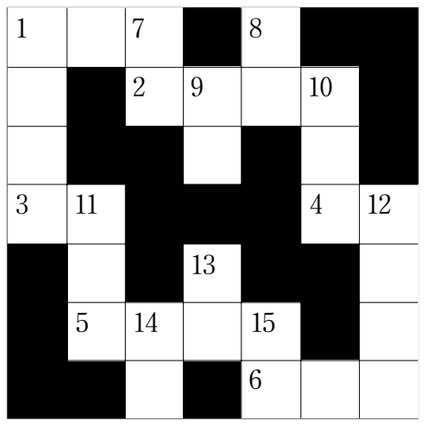
때문에 자기형편을 잘 모르는 이는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좋은 안목이 있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형편과 꼴에 맞추어 안내를 잘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불법을 바로 공부해 증득하게 되면 자신의 꼴에 놀아나지 않고 이 꼴을 벗어날 줄도 알아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돼 큰 지혜로서 세상과 대면하게 되지요 (도레미)

답2 : 불교 수행법이 다양한 이유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깨달음을 서울이라고 가정하여 서울을 잘 아는 사람(가이드, 선지식, 깨달은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묻는 사람(수행자)에게 서울 가는 길을 어떻게 가리켜 주는 것은 다양합니다. 또 수행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안목이 필요할지 걱정 말고 우선 스승님을 찾으십시오. 길을 제대로 찾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긴요하듯이 스승(선지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선지식)은 길을 찾는 사람(수행인)이 처한 사정(근기)에 따라 가는 방향(방편, 수행법)을 확실하게 일러 줄 수 있는 것이니, 대도는 무문이라 해서 어떤 길(방편)이든 자신이 지금 처한 곳(근기)에 따른 가이드(선지식)의 안내(수행방편)에 따라 그대로만 따라 행하면 필경 서울(깨달음)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즉신시불(卽身是佛)'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한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이 이 몸 이대로가 그대로 삼세제불과 다르지 않은 부처임을 깨달아 생사와 해탈번뇌 등 일체의 분별과 의심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한가하게 걸림 없이 살기 위함이지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충무공 ○○○ 장군 2.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돈오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뜻 3. 율곡 ○○ 4. 조선시대에 임금 · 왕자 · 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 5. 작은 것을 탐하다 오히려 큰 것을 잃음 6. 새로 입학한 학생.

세로

1.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함 7. 고려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담당하였던 승려로 법호는 청한거사 8. 책 파는 가게 9. 쌀, 보리, 콩, 기장, 조를 이르는 말 10. 임금님의 음식을 준비하던 곳 11. 남자들의 머리를 자르는 곳 12. 은혜로운 덕이 모든 백성에게 고루 미침 13. 각종 상처에 대하여 이를 감아서 환부를 보호하고 또는 고정하는 의료보조용 재료 14. 제주도의 옛 이름 15.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평양 방문 계기로 장편소설 '삼국유사 읽는 호텔' 낸 윤후명씨

북녘서 되살려낸 삼국유사



고교시절 '삼국유사' 매력에 빠져
40년간 관련자료 읽고 현장 답사
방북 통해 반쪽짜리 설화적 상상 완성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적인 성격이 강해 일종의 문학 작품처럼 느껴진다. 삼국유사 관련 수많은 번역서들이 국내에 출간됐지만 이번에 선보인 윤후명씨(60 · 사진)의 장편소설 <삼국유사 읽는 호텔>을 접하고 보니 <삼국유사>가 더더욱 문학작품처럼 생각된다.

이 소설은 2003년 10월, 분단 이후 육로로는 처음으로 시인 이근배씨 등과 함께 정주영 체육관 개관기념식 참석차 3박4일동안 평양에 다녀온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설은 시종일관 1인칭 '나'가 리드해 간다. '나'는 대동강이 내려다보이는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 머물며 낮에는 평양 시내와 묘향산 등지를 여행하고 밤에는 호텔로 돌아와 <삼국유사>를 읽는다.

'나'는 왜 평양까지 가서 <삼국유사>를 읽는 것일까.

"고교시절 양주동 박사의 '신라 향가' 특강을 듣고 <삼국유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국내 최초 삼국유사 번역본인 이병도 박사의 책을 비롯해 40여년동안 삼국유사와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읽고 찾아갔습니다. 또 가야의 수로왕과 인도에서 왔다는 허황후의 로맨스가 담긴 옛 가야 땅 김해를 여러 번 답사하기도 했지요."

이 책에는 주인공이 평양과 북녘에서 바라보고 겪은 풍물과 소회가 현재 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국유사>를 읽는 시공간은 어느덧 주인공이 30여 년 전 맨 처음 <삼국유사>를 읽고 그 의미를 찾아 지금까지 헤맸던 과거의 시공간을 넘나들게 된다. 여기에 다시 <삼국유사> 고유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신화적 · 역사적 이야기, 즉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설은 주인공 '나'가 호텔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한의 민족고전연구소 간행 번역본 <삼국유사>를 읽는데서 시작된다. 이 소설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교과서를 통해 한번쯤 접해봤을 '구지가(龜旨歌)' 해설이 등장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허황후가 인도에서 배를 타고 와서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이야기로 흘러간다. 특히 이 책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빛바랜 설화를 끄집어내 작가 특유의 문학적 감성으로 현대에 맞게 복원하는 묘수가 곳곳에 드러나 읽기 편하다.

그리고 '나'는 간간히 M이라는 여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대동강 물소리가 들린다." M은 한때 '나'와 함께 삼국유사의 흔적인 김해와 김수로 왕릉 등을 둘러보던 여자다. 하지만 지금은 헤어져 있다. M에게 띄우는 이메일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헌화가'처럼 사랑의 고백으로 변주된다. 한편으로 '나'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다 깨지고만 러시아의 모스크바, 쿠바의 아바나를 떠올리며 "평양 그리고 서울은?"하고 자문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 외딴 끝에서 부서진 나라, 분단된 조국의 실체를 절감하며 그 출구를 찾기 위해 <삼국유사>를 읽고 있는 것이다.

"삼국중 신라와 백제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 현장을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의 북한지역이었던 고구려는 지난 평양 방문 기회가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묘향산 방문은 단군의 발자취를 취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 <삼국유사>와 우리 옛말, 꽃과 식물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인다. 그러나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채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과 재해석, 주인공-화자의 개인사에 대한 단편적인 회고, 북쪽 체제의 경직성과 분단 현실에 대한 사유 등이 갈마드는 소설은 에세이적 면모를 강하게 띤다.

일화 하나. 소설속에는 사내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는 윤씨와 평양 방문중 룸메이트였던 양산 효암고 채현국 이사장이다. "채 이사장이 우리나라 고대사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도 이번 작품 집필에 큰 동기부여가 됐지요."



윤후명 씨는 지금 또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속해 있는 알타이어족의 원류를 찾아 취재해 소설 형식을 빌어 단편을 완성중이다. 또 올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출품도서로 선정된 그의 책 <돈황의 사랑>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삼국유사 읽는 호텔
윤후명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 9천원

전문가 서평



우리는 걷는다
윤병용 지음 | 효형출판 펴냄 | 9천8백원

이 책은 지난 10년간 우리 땅을 유난히 사랑해온 윤병용(45) 서울 창북중학교 과학교사의 국토순례기다. 윤 교사가 대학 시절 독일의 청년 여행운동인 '반더 포겔 운동'이 국토사랑을 북돋워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는 글을 읽고 흥미를 가졌던 것이 학생들을 우리 국토로 내몬(?) 이유다. 또한 윤 교사는 어떤 일에든 금세 싫증을 느끼고 쉽게 포기하는 요즘의 학생들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윤 교사는 1995년 세 번째 근무처인 온곡중학교 재직시절 사고를 우려하던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 '국토순례반'을 만들었다. 사전답사도 않고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출발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여지껏 중도 탈락자는 1997년 탈수증으로 인한 한 명 뿐이었으니 국토순례의 여정을 되돌려보면 학생들에 대한 보람과 대견함이 교차한다고 윤 교사는 적고 있다.

윤 교사는 초기엔 해를 걸러 국토 종단과 횡단을 번갈아 하다 2001년부터는 강원 화진포~경기 임진각 350㎞ 코스를 고집한다.

그 후부터 매년 5월 초면 희망자를 뽑아 매주 산행과 구보로 체력을 키우고, 배낭 꾸리기, 텐트 설치법, 응급처치법 훈련까지 되풀이해 어디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다.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 국토순례

때론 10㎏이 넘는 배낭을 지고 여름 무더위 속에 하루 9시간씩 걷기도 했다. 건장한 어른들도 쉽지 않을 고된 여정이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얻는게 있으니 이 고생을 자처하겠지' 생각하며 책장을 넘기다보면 윤 교사는 책 중간중간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 "우선 '우리는 하나'라는 협동심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죠. 때로는 친구의 배낭도 메어주고, 잠자리며 식사를 해결하는 등 또래들과 함께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몸에 배입니다. 또 논두렁, 비포장길을 걸으며 야생화를 만나고 밤이면 별똥별을 헤고, 촌로들을 만나 고향 자랑을 듣는 등 자연과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도 큰 소득이지요.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데도 그만이거든요. 무엇보다 그 긴 거리를 걸어냈다는 성취감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서울까지 25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5년의 첫 횡단, 경남 남해부터 임진각까지 60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6년의 종단, 강원도 화진포부터 강화도 외포리까지 분단의 아픔이 서린 휴전선 인근 민통선을 따라 420킬로미터를 걸었던 1997년의 횡단, 강원도 화진포에서 임진각까지 걸었던 350킬로미터의 2001~2004년의 횡단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은이는 국토순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국토순례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고난의 과정이 많았지만 그를 통해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참으로 그러하다. 이제까지 국토순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안타까워하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교육에 대한 이론서는 아니지만 진정한 전인교육과 산 교육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교육자로서 돌아보게 만든다.

■김관호 (춘천 성수고 교사)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 간 : 5월 22일 ~ 7월 10일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 법당
문 의 : 02) 3270 - 3300

5월 22일 도문스님 네팔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조실
5월 29일 혜초스님 태고종 종정
6월 5일 무진장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6월 12일 고산스님 쌍계사 조실
6월 19일 성수스님 해동선원 조실
6월 26일 정관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7월 3일 대원스님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7월 10일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



스님과 함께 경전 읽으니 마음에 쏘옥~

스님들이 푼 경전해설서 3권 잇따라 출간

선가귀감 일장 스님 엮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산쓰끄리뜨문 금강경 공부 성열 스님 엮음 | 현암사 | 1만8천원
핵심 대반야경 남산 스님 엮음 | 휴먼&북스 | 1만원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가는 길에 등불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선지식과 양서(良書)일 것이다. 최근 <금강경>과 <반야경> <선가귀감> 등 수행의 길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경전들을 새롭게 번역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다. '경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한자투성이의 책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스님들이 한 번 곱씹어 풀어주는 해설서를 읽다보면 경전을 읽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동산 선사의 제자로 현재 지리산 황매암에서 수행정진 중인 일장 스님이 <선가귀감>의 '언해본'과 '한문 교재본'을 엮어 펴낸 책이 눈에 띈다. <선가귀감>은 조선 중기의 고승 휴정 스님이 후학들에게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50여 종류의 경론과 조사 어록에서 요점만을 간추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선가귀감>은 교학과 선수행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일장 스님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이번 책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말한다.

<선가귀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과 부휴 선사(1543~1615) 언해본을 현대문 문체에 맞게 풀어 실었고, 뒤편에는 교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묘향사판 한문본을 가로쓰기 체제로 편집했다. 한문 교재본 중간에 실린 주해(註解)는 스승인 동산 스님이 손수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정리한 것. 부록으로는 화두선의 방법과 지침을 일러주는 <선종결의집>을 번역해 덧붙였다.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장)은 <금강경>을 해설했다. 스님은 불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있는 한역본이 아닌 592년 달마급다가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30여년간 한역 <금강경>을 읽고 강설하며 느꼈던 미진한 점을 '원전'인 산스크리트본을 읽으며 참뜻을 새겼던 경험을 책으로 풀어낸 것이다.

달마급다 번역본은 그동안 산스크리트어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옮겨 놓아 한문문법으로는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의 통용되지 않았다. 성열 스님은 오히려 이 달마급다 번역본이 산스크리트어 번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흔히 '직본(直本)'이라 불리는 달마급다의 번역본은 한문문법을 무시한 채 번역어를 늘어놓았는데, 이를 통해 산스트리트어 원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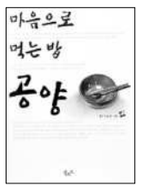
책에서는 <금강경>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등장인물, 논증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서두에 놓았고 산스크리트어 표기용례와 원문, 한글 풀이, 단어 해석과 문법해설 등을 덧붙였다. 산스크리트 문법책을 읽어가며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읽히진 않지만 한역본과는 다른 시각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00권을 한 권으로'란 부제가 붙은 <핵심 대반야경>은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인 <반야바라밀다경>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다. <반야바라밀다경>은 부처님이 16회에 걸쳐 법문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등이 포함된 460여 만자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옮긴 남산 스님은 신학대를 나와 중국 남경 중의대학에서 기공학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스리랑카 국립승가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마음으로 먹는 밥 공양>**(호산 스님 글/그림, 북로드, 1만원)=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한 그릇의 밥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먹던 도시락, 산사에서 낯선 격식에 따라 먹던 발우공양 등 누구나 '밥'에 얽힌 추억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를 도심 문화 수행도량으로 일군 호산 스님(달마사 주지)은 밥과 수행을 주제로 한 글과 직접 그린 수채화를 엮어 <마음으로 먹는 밥 공양>으로 펴냈다. 스님은 공양(供養)이 단순히 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산문 밖에서 몰래 자장면으로 먹고 왔다가 참회의 절을 했던 기억이나 빈털터리 선배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낯모르는 이의 장례식장에 데려가 밥을 권했던 일 등 밥에 얽힌 소박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호산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출판부장, 고려대장경연구소 보존부장 및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 **<남 잘되게 하기>**(오심 스님, 부다가야, 9천원)=2002년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진행한 오신 스님이 방송에서 했던 생활 법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되새겨볼만한 일화와 법문 구절을 원고지 5~6매의 길지 않은 글로 풀어내고 있다. 오심 스님은 해인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울산시립요양원장과 월봉사 주지, 룸비니유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닮고 싶은 부처님>**(이수현 글, 서선미 그림, 가교출판, 8천원)=아이들에게 불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들려주는 것이다. <닮고 싶은 부처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전한다. 도법 스님(실상사 前 주지)은 추천사에서 "부처님은 자유와 평화, 평등을 향한 인류의 염원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줄 최고의 선물은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오은석 엮음 | 이중삼 그림
우리아이들 | 각권 8천원



우리출판사가 어린이 불서를 전문적으로 펴내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우리아이들'이 첫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간된 '신경림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 지혜 · 나눔' 시리즈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자타카>에서 가려 뽑은 우화들 만화와 글로 엮은 책이다. 신경림 시인이 직접 <자타카>에서 선별한 내용을 동화작가 오은석씨가 아이들이 읽기 쉬운 글로 다듬고 이중삼씨가 그림으로 옮겼다.

신경림 시인은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른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비유하여 이야기한 설화 모음집"이라며 "인내와 노력, 나눔과 화합 등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각 이야기 마다 생각해볼 거리를 두어 <자타카>의 일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어린이들이 직접 생각해보게 했다. 3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은 6월 초 발간될 예정이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성(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선지식 52인의 번뜩이는 지혜와 만난다

본지 연재중인 禪만화 '주장자 따라' 묶어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조태호 엮음 · 그림 | 맑은소리 | 9천8백원

만화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가장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법문이라고 하면 왠지 경건한 분위기에서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화 법문'이라는 소재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텅 빈 종이 위에 몇 개의 선(線)만으로 이루어진 조태호 화백의 선(禪)만화는 그 어떤 법문이라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본지에 '주장자 따라'를 연재하고 있는 조태호 화백은 15년간 경제 만평 전문가로 일하다 은퇴 후 '선(禪)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일간지 만평 전문가답게 그의 만화는 간단명료하면서도 한 번 더 내용을 반추해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느껴진다.

불교계의 큰 족적을 남긴 자장율사와 경허 스님, 성철 스님과 달라이 라마 등 52 선지식들의 일화와 가르침을 짧은 말과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다.

책의 제목인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는 추담 스님(1898~1978)이 법문을 해달라는 신도의 청에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인생의 이치를 일러준 일화에서 따 왔다.

조씨는 "선지식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로맨티시즘이 스며있는 명쾌한 직관과 지혜가 새로운 플롯을 만들게 해주었다"며 "이 만화를 보며,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각박한 세태 속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변산 내소사에서 만허경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봉수 스님(1901~1974)의 일화를 만화로 옮겼다.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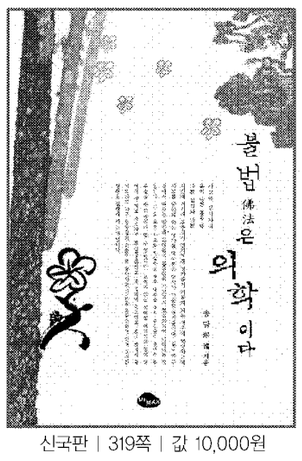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신국판 | 319쪽 | 값 10,000원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潭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사

진단

찬불가 '저작권'



사용 목적 따라 '유연한 관계'를

"포교 등 순수목적인데…" VS "임의 사용은 불법 … 법절차 존중을"

합의 없이 영리적 목적 사용시 위법

저작권료 지불 없어 창작 의욕 저해

종단 차원의 일괄 관리 의견 '설득력'

실태조사 · 관계자 의견 청취 등 필요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주도 한 사찰의 합창단은 모 음악협회가 발간한 찬불가 악보집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합창단이 사용하는 찬불가 악보집은 무게가 상당했다. 그래서 합창단원 가운데 한 보살은 공연준비에 필요한 찬불가 몇 곡의 악보를 복사했고, 그 복사본을 지니고 공연준비에 임하게 됐다.

찬불가 악보집을 발간한 모 음악협회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문제삼았다. 악보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위원회는 "악보집을 구매한 당사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용의 일부를 복사한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합창단과 협회측의 저작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닌 듯하다. 불교음악계 전반에 저작권법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의 문제가 환기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포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찬불가의 특수성을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음악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다.

▽ 불교음악계도 저작권 문제 피해갈 수 없다

사찰에서 저작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것은 '악보 사용의 문제'다. 앞서 제시한 제주도 합창단 사례에서는 개인이 악보전집을 구매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료를 직접 복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인의 자료집을 대여한 후 임의대로 몇 곡을 발췌 복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된다. 음성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보집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찬불가를 듣고 활용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올해 1월 7일 관련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 등과의 합의 없이 그들의 음악을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됐다. '불교음악감상실' 등 찬불가 음악파일을 무료로 들려주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이제 곡의 일부밖에 들을 수 없다.

찬불가를 응용한 문화상품 고안에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좋은벗 풍경소리는 100여 곡의 찬불가를 노래방에 서비스하기 위해 노래방 반주기 전문업체인 (주)금영 측과 1차적인 합의를 끝냈다. 그러나 소요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7천여 만 원을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 자금 압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저작권 준수할 상황 못되거나, 준수할 생각 없거나"

저작권법은 실정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찬불가는 '포교'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찬불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지불 문제다.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찬불가 악보나 음원 제공에 대한 요청도 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저작권이라는 굴레에 묶여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미 생산된 찬불가를 악보나 음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작곡 · 작사자에게 개인적인 양해를 구해 노래를 빼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노래방에 찬불가를 보급하는 과제와 같이 한 곡당 150만원 이상의 거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 저작자에게 '헌정'을 부탁하면서 저작권료로 지출되는 비용의 출혈을 줄이기도 한다. 한국음반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법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공리'를 내세워 저작권법을 비껴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횡행하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다. 저작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작품을 임의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음반이나 서적 등에 사용하거나 또한 임의대로 편곡할 계획을 세웠다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 저작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법정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를 외면했다. 불교음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불교계에서 사용되는 찬불가 악보집의 일부 작품들의 경우 법정허락의 과정을 임의대로 생략하고 사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음악인들의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한 부족한 문화마인드를 지적받기도 한다. 불교음악계 한 관계자는 "몇몇 불교음악가의 경우 저작권협의회 회원 등록 과정이 귀찮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작곡가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문제 알아도 답은 못 찾아

'문화포교'의 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불교계가 '저작권법'의 강풍을 맞기 시작하면서 불교음악계는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불교음악협회 황학현 사무처장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찬불가 악보나 음반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료 등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악보집을 출간하는 대신 낱장의 악보를 배포하는 등 방법상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곧 불교음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황 사무처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작곡가나 작사자에게 헌정이나 보시만을 요구 · 강요한다면 음악인들로부터 창작 의욕을 저해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저작권 적용이 원활한 포교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작곡가)씨는 "생산된 찬불가를 활용함에 있어 그 목적이 중시돼야 한다"며 "포교나 불교음악 자료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단 차원에서 저작권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교단에 헌정한 곡이 상당해, 필요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찬불가와 저작권'에 대한 불교계의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현재 저작권법이 불교음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불교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신행 · 포교를 위해 사용되는 찬불가에 대한 저작권의 보장이 불교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불교계합창단의 공연모습(본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현대불교자료사진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O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스님이 만든 후불제실시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음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5>



황우석 박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5월 20일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그 발표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불치병 ·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류에게 무병장수의 미래가 좀더 일찍 열리게 되었다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학계와 과학계의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적합성 · 적법성의 마지막을 종교에 묻곤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황우석 박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저 역시도 지금 부처님이 곁에 계시다면 서둘러 달려가서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경전을 뒤적이며 조금이라도 연관된 말씀은 없는지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사람이 병을 얻게 되면 지극히 간호하라는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부처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큰 보시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큰 복을 얻을 것이다."(<증일아함경> 한글장9권93쪽, 축약)

또한 경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전생의 악업에 따른 과보'라는 결론을 내린 경설도 눈에 뜨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아직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내려진 이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라 여겨졌던 병들이 차츰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야 하늘의 벌이라느니, 전생의 업보가 두터워서 그렇다느니 하지만 원인을 찾고 보면 그런 식의 결론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의지를 일으켜 좀더 나은 쪽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지닌 중생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어떤 약을 먹어야 그 병을 떨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씻지 못할 극형이라도 받는 듯 그에 항거하지 못하고 끌려가지만 사람들의 본능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이번 황우석 박사의 개가는 그런 면에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루게릭병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느닷없이 이름도 생소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육체가 점점 굳어져 오고 말기에는 호흡장애까지 일으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닥친 그 무서운 병을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말 일이겠습니까? 그 아픔이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전생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서 그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500명이 넘는 루게릭병 환자들이 있으며 이 병에 걸리면 대개 발병 후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하니 루게릭이라는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생각해보면 훨씬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을 만나 난치병 환자들의 반응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막연하기만 하던 삶에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어서 임상실험이 순탄하게 끝나 많은 이들이 무서운 병에서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 처음에는 선의에서 연구와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가 자칫 악한 의지를 가진 이들로 인해 그 존엄성이 부서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열어젖히는 것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생명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그 고유권한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마지막 가치가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노리개로 전락해버리면 그 재앙 또한 인간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선의의 연구와 실험 대상이 된 소중한 '생명'
악한 자에 의해 존엄성 파괴될 가능성 존재



화산 스님은 '하심' 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지혜이자,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강이 되어 세상 만물과 함께 흘러가자

지상 백고좌

화산 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5월 말, 꼭 3년 만에 화산 스님을 다시 뵈었다. 예전의 정정하신 모습 그대로다. 자기를 바로 보라는 그때 스님 말씀을 이날 스님을 만나기 전 자료를 보면서 다시 더듬어보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무엇을 여쭐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넓게 쓰면 한없이 넓어지고,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아진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살면서 바늘구멍처럼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다. 그러다가 곧 후회하곤 하지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도무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으로 여쭈었다. '마음'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한 것이 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잘 다듬어서 깨치게 하고 잘 보살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하옵니까"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다시 수보리존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데 어떤 것이 참마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요, 그러니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생활이 그대로 마음인데, 그 마음 말고 별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곧 이 마음이고 둘이 아니며, 모든 중생이 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 가운데 근본이요, 일체 모든 기묘하고 미묘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크다고 해도 큰 것이 아니요, 작다고 해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백 가지 꾀를 내고 천 가지 방편을 써서 이 몸뚱이 위해서 살지만 이 몸뚱이라는 것이 헛것 가운데도 가장 헛것이요, 하잘 것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성이 충만해 우주에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시방에 두루하는 법식을 알면 그 이치를 알 것입니다.

서로 얽혀 네것 내것 없는 넝쿨처럼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하심하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찾은 핵심입니다. <금강경>에 사상(四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상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상에 빠지면 자기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아상은 거짓된 나를 보고 진실된 나로 착각하는 것이요, 인상은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생상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자상은 일체 모든 것을 시비분별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공부하고 불법을 안다면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는 것이니, 그 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없애는 것이 '진여인(眞如人)' 즉 '참사람'이라는 얘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요? 하심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사람이 되려면 하심을 해야 합니다.

스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평소 품고 있었던 의문을 여쭈었다. "그러면 하심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렇지, 그게 어렵지" 하시며 웃으신다.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표정이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기자님도 주위 사람이 있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외간도 있고, 친구도 있으시겠지. 그 사람들이 모두 주위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내 주위사람을 항상 편안하게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심입니다. 하심은 별 게 아닙니다. 하심을 해야 내가 편안해요. 내가 편하려면 하심부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님이 친한 친구와 다투었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마음이 편치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 · 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 · 『묘법연화경』 · 『아미타경』 · 『유마경』 · 『금강경』, 용수의 『중론』 · 『십이문론』 ·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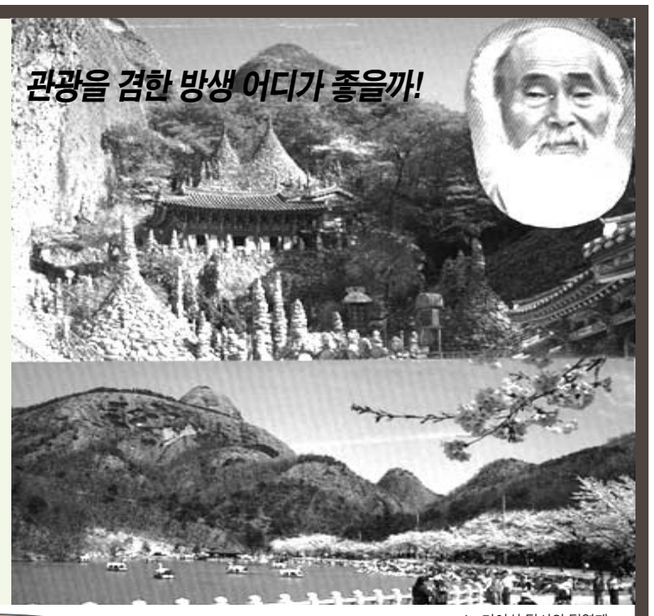
자응(慈應) 스님 | 청오(淸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 – 1 전화 (02)420 – 3200 전송(02)420 – 3400 http://www.bulkwang.org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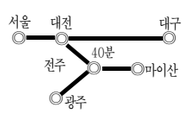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않지요? 서로가 이해했더라면 편안했을 텐데 말이오. 내가 제일인 것처럼 떠들다보면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상인데, 아상을 버리려면 하심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데도 마음을 비워야 옳은 것이 남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하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일체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체 모든 중생을 부모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옷깃을 단정히 해 보세요. 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를 위하고 남을 위해 도움을 줄 때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도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참 충성이에요.

이 세상 살고 가면서 이름 없이 살고 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명예를 남기려는 것은 상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하심이에요. 하심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닙니다. 하물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하심하고 또 하심해야 합니다.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이것이 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극한 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별 게 아니면서도 하심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자님은 자기 존재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계곡에 흘러가는 물이다, 강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어떤 것

내 마음 편해지면 남도 편하게 할 수 있죠
자기 자리 알고 도리대로 살면 걸림없어요

입니까. 위에서 나뭇잎이 떠내려 오든, 돌이 굴러오든 자꾸 씻겨서 내려 보내지요. 그래서 강은 맑은 것입니다. 나는 강물이다, 나는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심입니다.

넝쿨을 본 적이 있지요? 또랑을 사이에 두고 넝쿨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넝쿨은 저쪽 넝쿨을 감아주고, 저쪽 넝쿨은 이쪽 넝쿨을 감아주지요. 네 좋을 대로 감아라 하고 서로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가애(無罣碍) 무가애' 입니다.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 '무가애 무가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얽혀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넝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대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위대하지요.

우리도 아옹다옹하지 말고 서로 돕고 편하게 해주면서 하나로 얽혀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서로가 즐겁고, 이것이 바로 하심이에요.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수순(隨順)' 하셨습니다. 중생의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순할 수 있습니까. 각기 다른 그 마음을 다 따라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언제나 따라주셨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53선지식이 나오는데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보현보살이 "나는 열 가지 원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다 받들고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재동자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하고 다시 물었어요. 보현보살의 답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수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보현보살의 말대로 끝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될 때까지 예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심이에요. 하심하는 것이 보살정신의 첫째 조건이요 수행자 정신입니다. 일체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하심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심에 어디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물었던 대로 하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불교는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수순중생(隨順衆生)이라, 쉬운 말로 주위사람을 편안케 해주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집안 어른을 그렇게 모시기 어렵지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도 내고 하는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참선을 해보세요. 참선은 불교의 최고 수행법입니다. 염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남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은 또 어디 쉬운가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습니까. 염불을 해도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경을 봐도 머리 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참, 뜻대로 잘 안되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품으란다. 화산 스님은 누구에게든 강처럼 살라고 강조한다.

주위사람 편하게 하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 보는 것이 더 쉽겠지요. 주위사람 즐겁고 편안케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어려워요. 주위사람 즐겁고 편하게 하면 참선도 잘되고 염불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이 되고 계곡이 돼야 합니다. 강은 무엇이든 떨어진 그대로 떠내려 보내주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넝쿨처럼 가만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화산 스님은 나무를 무척 좋아하신다. 강물처럼 살라는 스님의 말씀이 나무와도 무관치 않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여쭈었다.

나무, 좋아하지. 생각해보면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초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해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설 자리가 있어요. 일체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성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하며 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상에 걸릴 게 없겠지요.

스님은 세상을 사는 가장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가 다르겠지요. 세간에서는 학문을 닦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세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잘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게 없고 살아도 사는데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야죠.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유명

화산 스님은 화산 스님은 선(禪)과 교(敎)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소신은 화산 스님의 이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화산 스님은 191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17살에 통도사 자장암에서 몽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한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 후 일본 임제선문학교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는 등 불교와 철학을 폭넓게 공부했다. 그리고 통도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지도했으며, 1962년에 대구에 보광원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해오고 있다.

소탈하고 부지런한데다 친근한 성격이어서 많은 불자들이 따른다. 대구에서만 40년 넘게 불자들을 지도해오면서 지역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도 유명해 전국 곳곳에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후학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문을 자제하고 있다.

평상시 나무와 꽃을 좋아해 추운 겨울이면 아랫목을 화분에게 내 줄 정도로 인정이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요즘은 오전에 참선 하고 오후에 불자들을 지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오 스님 (下)

법오 스님은 친화력이 좋다. 만나는 사람마다 금방 친구가 된다.

선원의 공양주 보살들은 선승들처럼 약간 콧대가 높고 무뚝뚝하다. 그래서 스님이 잘 살지 못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스님들하고 싸우는 공양주도 있다. 그러던 보살도 법오 스님을 만나 며칠만 지나면 "우리 스님! 우리스님!" 하며 따른다.

스님은 매사를 좋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선원 분위기가 어둡거나 침침한 것은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내가 하안거를 지낸 선방이 그랬다. 출세간 속의 세간이라고 해야 할까. 선원에는 '용'도 모이고 '뱀'도 모이고 '벱 꼬리'도 모인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가끔씩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그림 · 문병성

입승(立繩)이 나서서 대중들의 소란을 수습하고 정리한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 할 입승까지 이 세파에 휩쓸렸다면 어떻게 할까.

선원에 법랍이 많은 선덕(禪德)이나 한주(閑主)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위에서 꽉 눌러서 이런 분란도 잘 수습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안거가 깨질 수가 있다. 다툼으로 인해 안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걸망을 싸서 떠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알게 되자 인간의 상(相)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원은 술렁거렸고, 그런 분위기는 반철이 되어 더 심해졌다.

그러자 법오 스님은 그런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공부나 하겠다고 입을 굳게 닫고 큰방으로 들어갔다. 스님들이 끼리끼리 모여 파벌을 이루는 동안에도 법오 스님은 홀로 큰방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대중들은 가끔씩 큰방에서 혼자 정진하는 스님을 보곤 했다.

그러다가 힘의 양 축이었던 한 스님이 뒷방 공사를 자제하고 법오 스님과 같이 가행정진에 들어갔다. 파벌을 짓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법오 스님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은, 남들이 불을 끄고 잘 때도 어둠 속에서 두 시간씩 더 공부했다. 대중들은 모르는 체 했지만 다 보고 있었다. 차츰 선원에는 쉬는 시간에도 잡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나 둘 스님들이 가행정진 수행에 동참했다. 나도 끄트머리에 동참했다. 그러자 선원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잠해져 버렸다.

해제할 무렵 스님들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안거를 마무리했다.

중간에 그 상판스님이 마음을 내기는 했지만 시작을 한 스님은 법오 스님이었다.

스님은 또한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스님이다. 타고난 성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만사에 긍정적이다.

어느 설날에 원주스님이 급한 일이 있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자 나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내가 차 운전을 하고 눈이 쌓인 암자를 내려와 인근 마을에서 물건을 싣고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내가 정진하던 그 암자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험했다. 차 안에는 법오 스님을 위시해서 네 명의 스님이 타고 있었다. 평지에는 눈이 녹아 바퀴에

선원에 파벌 생기자 홀로 정진
스님 하나 둘 동참해 잠잠해져

장착했던 체인을 벗기고 다니다가 그냥 절에 오르게 되었다. 그 체인을 벗긴 것이 실수였다.

몇 번의 커브를 돌고 낭떠러지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뒤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았고, 다행히 눈이 녹은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들면서 차는 아슬아슬 낭떠러지에 걸렸다.

렉카차가 차를 끌어낼 때도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사고를 당할 뻔 했으므로 손과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렸다. 그때 법오 스님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할 수 있다면서 운문암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사실 사고 직후라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렸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빼앗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떨리는 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쌓인 그 험한 산길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다.

만약 법오 스님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스님이 대신 운전해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 이후로 나는 실패로 인한 패배감과 운전 공포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수행자라면 무릇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하고 나서 포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마음을 가을 하늘처럼 비울대로 비워본 사람만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법오 스님은 이번 여름 안거에도 여전히 선방에 들어갔다. 스님의 수행이 무르익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타파하는 한 경계를 얻기를 바란다.

■청원 현암사 총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가격 : 80,000원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가격 : 60,000원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과학으로 탄생시킨



◆가격 : 20,000원
◆규격 : 조절가능

건강웰빙 기능성깔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원 : 벽산아트
만 행 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반딧불이를 찾아 온가족이 야외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어른들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어들고, 아이들은 동심에 빠져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진제공= 무주 반딧불이축제 운영위원회



"반딧불이는 어떻게 빛을 내는 걸까?" 서귀포 어린이 반딧불이체험캠프에서는 직접 반딧불이의 생태를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믐밤 부서진 달 주우러 숲으로 가자

북방반딧불이, 꽃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반딧불이의 종류들이다.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반딧불이는 여름밤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 중 하나였다. 어둠이 사방에 깔리면 풀 섶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호박꽃 안에 잡아넣고 초롱으로 만들거나, 누구 반딧불이가 더 밝게 빛나는지 친구들과 내기를 하곤 했다. 그 반딧불이를 보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할까. 추억의 반딧불이를 찾아 떠나보자.



행사장에서 반딧불이의 유충을 살펴보며 아이가 신기해하고 있다.

반딧불이 볼 수 있는 곳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그믐 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 주우러/ 숲으로 가자

윤동주 시인이 읊은 <반딧불이>라는 시이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반딧불이들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약과 환경오염 때문에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다. 더욱이 반딧불이는 강한 불빛이 있으면 교미를 하지 못하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전조등이나 야간조명 등에 노출되어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윤동주가 '달 조각'이라고 묘사했던 반딧불이를 만나려면, 이제는 보호구역을 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딧불이 축제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서울 길동생태공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를 대량 사육하는 곳이다. 6월 한 달 동안 목요일 오후 2시, 4시에 열리는 '반딧불이 교실'을 통해 도심 한복판에서 반딧불이를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홈페이지(parks.seoul.go.kr)로 하면 된다.

■반딧불이 볼 수 있는 곳과 반딧불이 축제

장 소	시 기	담당 부서	연락처
무주 반딧불이 축제	6월 4~11일	무주 반딧불이 축제 행사본부	(063)320-2128
성남 반딧불이 시민축제	8~9월	성남21제	(031)752-2010
남양주 반딧불이 축제	8~9월	남양주시청	(031)590-4275
동해 무릉계곡 반딧불이 축제	7월말	동해민예총	(033)522-5885
부산 금정 반딧불이 축제	9월 초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051)519-4383
제주 서귀포 어린이 반딧불이 체험캠프	9월 초순	서귀포시청	(064)739-0011
서울 길동생태공원	6~8월	생태공원관리과	(02)472-2770
수원 광교산	6~9월	수원시청 환경위생과	(031)228-3240
양평 사나사계곡	6~8월	양평군청	(031)773-5101
영양 반딧불이 생태학교	6~8월	영양군청 자연생태공원 담당자	(054)680-6045, 6057
완주 경천면 오복마을	6~8월	완주군청	(063)240-4224

반딧불이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북 무주 반딧불이축제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9회째 맞는 무주 반딧불이축제는 지난공원과 남대천 수변공원,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 시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그 동안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8월 중순경에 열려오다 올해는 애반딧불이가 나타나는 6월초로 시기를 옮겼다.

축제행사장은 아니지만 반딧불이와 오랜만에 해후할 수 있는 곳 중에는 양평 용문산 자락의 사나사 계곡이 있다. 태고보우 스님이 말년을 보낸 사나사는 예나 지금이나 눈이 시린 녹음에 안겨있다. 주변 산자락은 온통 푸르기만 하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가슴 속까지 씻겨 내려갈 것 같다. 해 저물 즈음 계곡에서는 애틋하게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경기도 성남, 경북 영양, 동해 무릉계곡 등 전국 곳곳의 보호구역에서도 여름밤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게시판

김성애 만다라전 <머나먼 인도>의 저자 김성애씨가 만다라 워크숍을 겸한 전시회를 연다. 1일부터 15일까지 정신세계원 황금꽃 강의실. (02)747-7033

장애청소년 '해오름 캠프' 정립회관은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해오름 캠프'의 비장애청소년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해오름캠프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02) 446-1237~8

가정폭력상담 교육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가정폭력전문상담가 교육에 참여할 여성 사회복지사를 모집 중이다. 교육은 6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일까지 경력증명서와 수강신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02) 738-5589

대나무숲 기행 맑고향기롭게는 6월 26일 전남 담양 대나무 숲으로 숲 기행을 떠난다.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과 함께 숲길을 걷는 시간을 갖는다.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02) 741-4696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 해남 미황사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수행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를 진행한다. 묵언, 오후불식, 참선, 수행점검, 법문, 다도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0만원. (061) 533-3521

20면 상식 퍼즐 정답

이	순	신		서		
이		돈	오	점	수	
제			곡		랏	
이	이				간	택
	발		붕			피
	소	탐	대	실		창
		라		신	입	생

전시

소나무 혹의 자유로운 비상

이점원 신작전 14일까지, 가나포럼 스페이스



소나무 혹을 재료로 조각한 작품 '욕망을 삼킨 새'.

잘 뻗은 소나무 가지 한가운데 생뚱맞게 붙어있는 혹을 본 적이 있는가. 부엉이가 밤새 울어 생긴 방귀의 응결이라며 '부엉이 방귀'로 불리는 소나무의 혹. 뒤틀리기 쉽다고 건축자재로도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옹이. 그 하찮고 쓸모없는 옹이가 예술작품의 주인공이 됐다.

이점원 교수(동국대 미술학부 · 놀자학교 교장)는 4년간 손수 모은 소나무 혹 5백 개에 '새'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잘 다듬은 가지는 몸통이 됐고,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옹이는 날개가 됐다. 지상의 숲에선 쓸모없음의 상처로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혹이지만, 천상에서는 자유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혹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의 작품에선 더 이상 혹이 아니고 더 이상 하찮지도 않다. 그 아픔을 극복한 날갯짓으로 서방정토로 날아갈 뿐이다.

평창동 가나포럼 스페이스에서 그 새들이 천정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솟대에, 문살에, 현판에 곱게 앉은 새들의 고운 자태도 만날 수 있다. 14일까지. (02)720-1020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무심한 손길 예술로 승화

모란미술관 '놀이와 장엄' 전





이성도 作 '동자'(사진 왼쪽)와 이종구 作 '대지의 손-종자'.

놀이하듯 무심하게 아름다움의 가치를 탐구하다보면 문득 '선(禪)'의 정신을 마주하게 된다. '장엄(莊嚴)'을 위해 시작한 예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으로 닦는 예술행위의 끝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장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놀이와 장엄'전은 그러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전통적 불화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고영을, 돈황벽화라는 장엄한 세계의 도상을 새롭게 보여준 서용, 서산 마애불의 좌우협시보살을 민초의 모습으로 대치시킨 이종구 등 주로 불교적인 소재를 빌어 진리를 표현한 현대미술 작가 10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6월 24일까지. (031)594-8001 **강신재 기자**

이영화 어때요?

뒤틀린 탐욕이 광기를 부를때 …

남극일기 감독 : 임필성 출연 : 송강호, 유지태 상영시간 : 114분 등급: 15세 이상

남극에 갇힌 6명의 탐사대원들의 처절한 생존욕을 담아낸 영화 '남극일기'. 이 영화는 신비로운 미지의 영토 남극의 풍광과 그곳에 갇힌 탐사대원들의 역경과 살기위한 몸부림을 스펙터클하게 묘사하는 등 볼거리 측면에서 유례없는 비주얼을 선보인다.

영하 80도의 혹한. 낮과 밤이 6개월씩 계속되는 남극. 탐험대장 최도형(송강호)을 비롯한 6명의 탐사대원은 '도달불능점' 정복에 나선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깃발 아래에 묻혀있던 80년 前 영국탐험대의 <남극일기>. 일기에 나오는 영국탐험대도 최도형 탐사대와 같은 6명. 탐사대가 <남극일기>를 발견한 후부터 이들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바이러스가 살지 않는 남극에서 감기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대원,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 등 위험천만한 상황과 미스터리 한 일로 대원들은 한두 명씩 남극에서 실종되기 시작하는데….



'남극일기'는 공포영화와 미스터리 장르의 낯익은 장치와 유사한 분위기를 빌려와 화면에 녹여낸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섬뜩한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맥거핀(극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단의 인물이나 사건, 물건)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되진 않는다. 한 인간의 심연에 도사린 뒤틀린 탐욕이 무언가에 집착할 때 얼마만큼이나 광기스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를 무겁게 응시해 본 영화가 바로 '남극일기'가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6일 06:00 불교강좌
7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8일 11:05 아름다운 초대
9일 07:05 아침저널
10일 09:05 행복한 미소
11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12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6일 08:00 명상음악산책
7일 15:10 명상육아
8일 14:25 불교TV 메디컬
9일 15:10 휴먼다큐
10일 16:40 향토음식기행
11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2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6월 10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9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차걸이

지니고 있으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는다고 불자들 사이에서 믿어지는 연실. 이 연꽃 씨앗을 이용한 고급 차걸이를 소개한다. 국내산 자련에서 추출한 연실만을 골라 정성껏 가공했으며 주불에는 핸드 페인팅한 연꽃이 그려져 있는 친 환경적인 제품이다. 뒤쪽에는 매듭으로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 천연 연꽃 씨앗은 끈과 분해해서 물에 담가두면 발아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다. 가격: 2만원

불교와의 인연 (상)

이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그림 · 문병성

가톨릭 영세까지 받았으나 신심나지 않아

불교 만나며 관심과 기대…인연 소중함 깨달아

교리공부하며 불법의 경이로움에 환희

내가 중학생이던 무렵이다. 어머니는 사업에 실패하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셨다.

그 무렵 어머니는 4남매의 앞길을 위하여 초하루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께 기도 가시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입에 달고 사셨다.

1949년생이던 언니는 6 · 25전쟁 통에 병에 걸렸다. 사경을 헤매던 언니는 그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마이신으로 살아났지만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늘 허약했고 다리가 안으로 휘는 불구의 몸으로 자라게 되었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어머니는 언니의 힘든 처지를 감안하여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로 입학을 시켰다. 나 또한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는 한 학년에 여학생들만으로 두 반이 있는 학교였다. 선생님들 중에는 수녀님이 상당수 있었다. 그 당시 많은 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수녀였을 정도로 학교의 모든 행사는 종교의식으로 행하여졌다. 자연히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익숙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마음에 친구의 집에 가서 학교 교실에 있는 성모마리아상과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걸려 있으면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였고 언니와 나에게 성당에 가라고도, 절에 가자고도 말하지 않으셨다.

대학 4학년 때,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의 교사자리 추천이 들어왔다. 나는 가톨릭 재단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시골이지만 면접을 보러갔고 채용됐다.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수녀 선생님과 많은 접촉을 가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영세를 받아 '아네스'란 세례명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시골 생활이 힘들어 1년 뒤 도시 학교로 옮겨 집으로 돌아온 후 성당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주변의 좋은 이웃 중에서 가톨릭 신자인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종교 생활에 신심이 나지 않았고 영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항상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종교도 자신에게 인연이 있어야 신심이 난다는 것을 불교를 접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불법을 통하여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또 기도 성취의 기쁨도 얻을 수 있었다.

내게 우연히 불연이 닿게 된 것은 10년 전 가을이었다. 문득문득 불교공부가 하고 싶던 차에 갑자기 인연이 닿게 된 것이다. 그날 나는 평소에도 몸이 약한 둘째 아이가 환절기 감기에 걸려서 수지뜸을 해줄 생각으로 뜸을 사러 나온 참이었다. 수지침 지회가 있는 빌딩에 들어가,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층번호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가 내린 복도는 그 동안 여러 번 방문해왔던, 수지침 지회가 있는 익숙한 3층 복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돌아나가려던 나의 눈길은 벽에 붙어있는 한 장의 포스터에 머물렀다.

'불교교리 강좌'

시기를 확인해보니 시작한 지 1주일 남짓 지난 터였다. 이렇게 해서 나와 불법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교육관계 사단법인에서 나오는 월간지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후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업을 하고 있던 나에게 1주일에 세번이라는 시간은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포교당의 문을 두드렸다. 내가 참석한 첫날의 강사는 40세가 넘어 불교학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있는 보살이었다. 내용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 박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경이로웠다. 나누어준 인쇄물을 살펴보아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보살사상에 대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강의였다. 이 분이 지금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봉순 교수님이다. 전업주부로 있다 40세가 넘어 박사 학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데 더욱 불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생겼다.

연구실에 나가야 하는 날만 빼고 불교교리 강좌가 있는 날은 항상 포교당으로 갔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의 발걸음을 자꾸만 포교당으로 향하게 했다. 스님의 강의로 다가오는 새로운 불법의 세계는 법열을 가슴으로 느끼게 했다.

하나 둘 씩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는 신심이 싹텄다. 스님의 염불 소리가 무척 듣기 좋아지면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지심귀명례 예불문이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저녁마다 하는 <반야심경> 사경 기도 덕택에 자연스럽게 <반야심경>을 외우고 스스로 불자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불교교리 공부를 하는 동안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 해에는 큰애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세사 자격시험에 두 번째 도전하던 해였다. 나는 법당에서 기도할 때나 매일 잠자러 가기 전에 <반야심경> 사경기도를 하면서 아들의 과학고 입시 성취를 간절히 간구했다. 그 기도 성취를 큰애 입시 날 맛보았다.

입시 당일 날 큰애를 입시장에 데려다주니 정문에서 만난 친분 있는 학부모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리자고 했다. 나는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곧장 집으로 돌아오니 1교시 시험 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시험 시간표를 앞에 두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지 못하고 자꾸만 잠이 쏟아져 깜빡깜빡 정신이 흐릿해졌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치면서 <지장경>을 소리내어 읽었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새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다. 목소리의 힘이 없어지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일념으로 독경을 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빛이 드는 듯 맑아졌다. 앞에 놓인 시계를 보니 1교시 끝나기 10분 전이었다. 마음이 탁 놓이며 저절로 환희심이 차올랐다. 어째서인지 몰라도 분명, 큰애가 여지껏 공부해온대로 실수없이 끝마무리를 잘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때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지장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큰애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www.bbsfm.co.kr



BBS FM 101.9MHZ

큰스님! 불교방송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BBS 불교방송
세상 이야기, 음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BS 불교방송
듣고 있노라면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귀를 뗄 수 없는 즐거움, BBS 불교방송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아침예불, 저녁예불
세민스님과 중앙 승가대 스님
매일, 05:00-05:30,18:00-18:15

경전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밝히는 깨달음의 시간
매일, 05:30-05:50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가르침에 대한 명쾌한 새벽 법문
매일, 매일, 05:50-06:00

불교강좌
법륜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교화이야기를 통한 마음 산책 시간
매일, 06:00-06:25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안동 FM-97.7MHz
포항 FM-105.5MHz
청주 FM-96.7MHz
춘천 FM-100.1MHz

BBS 불교방송

차 한 잔

무안녹차 '초의 생가차' 출시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인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탄생지 전남 무안에서 생산한 녹차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무안군은 1998년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 인근 차밭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읍면 17ha의 차밭을 만들어 왔다. 무안군농업기술센터는 '초의생가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처음 수확한 녹차에 '초의생가차(艸衣生家茶)'란 상표를 붙여 판매에 나섰다. '초의생가차'는 5월 28~29일 제219주년 기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때 첫선을 보였다.

초의생가차 영농조합법인 차승오 대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무안현이 포함된 전라도 28개 군현에 차를 재배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600여년 전부터 무안 지역에서 녹차 생산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21ha로 늘리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등 초의생가차를 무안의 주산작목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사군자 소재 '다악' 8집 발매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 · 추계예대 교육대학원장)가 펴내는 창작 다악 앨범 '다악(茶樂)' 8집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 해 11월 열린 '2004 다악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다악 네 곡이 담겨 있다. '사군자(四君子)에 스민 다향(茶香)'을 주제로 '매-봄볕을 깨우는 매향, 설중군자(작곡 박일훈)' '란-깊은 계곡의 가인(작곡 백승우)' '국-흰 서리 속에 피는 만향(작곡 김정수)' '죽-만파식의 세한고절(작곡 이상규)' 등 우리 차와 어울리는 네 곡의 국악 창작 실내악곡이 수록됐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1998년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 놓기'의 일환으로 창작 다악 발표회를 열고 이를 앨범으로 발매하는 등 다악 장르 개척에 앞장서 오고 있다.

茶는 차다?

혜우 스님 '차는 냉하지 않다' 기고 후 큰 관심



다경·동다송·본초강목 등 '차고 음(陰)하다' 전해
박동춘 소장 "성질 냉하나 제다 과정서 중화된다"
'속쓰림'을 '냉하다'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

"난 체질이 찬 편이라 녹차가 안 맞아."

'차는 냉(冷)하다'는 말은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말일 것이다. 그러나 본지(528호 15면 특별기고 참조)에 혜우 스님(혜우전통차 제다교육원장)이 '차는 냉하지 않다'는 주제의 기고문이 나간 후, 차의 성질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다서나 의학서에서는 차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제다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 茶는 본래 냉하다?

차의 성질이 차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로 다서나 한의서에서 차의 성질을 대체로 '고감미한(苦甘微寒)' 즉, 차는 그 맛이 쓰고 단맛이 있으며 성질은 차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든다.

<다경>에서는 "차는 본래 냉하다(茶之爲用味至寒)"고 했고, <동의보감>에는 "차나무의 성질은 조금은 차고 그 맛은 달고 쓰면서 독이 없는 식물이다. 그 성질이 쓰고 차서 기운을 내리게 하고, 체한 음식을 소화시켜 준다"고 적혀 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차는 그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차고 음(陰) 중의 음으로 가장 열을 잘 내린다. … 열은 한기에 의해 내리므로 따뜻하게 마시면 차는 열기를 빌려 열을 발산시켜 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본초목부>에서도 "차의 성미는 약간 차가우나 독은 없다"고 전한다.

차를 음양(陰陽)의 원리로 설명하는 책에서도 차는 '음'으로 설명된다. <탕액본초>에서는 차를 '음 중의 양(陰中之陽)'이라 말하고 있다. "차의 쓴맛이 기(氣)를 내리는 것은 음이지만, 그 맛이 엷기(薄) 때문에 어디든 잘 통하므로 양(陽)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명대 의학서인 <본초회편>에서도 "차를 채취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가 싹이 날 때이므로 봄의 상승 기운을 바로 받아 비록 그 맛은 쓰지만 기는 엷어 음 중의 양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근거로 한의학자들은 차가 속이 냉한 사람이나 손발이 찬 사람,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를 공복에 마시면 차의 성질이 폐에 들어가 비위(脾胃)를 차게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너무 뜨거운 차는 인후와 식도, 위를 자극하므로 56℃ 이하로 낮추어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 찻잎은 차다, 그러나 차는 평(平)하다?

혜우 스님은 "찻잎의 본래 성질은 냉하나 차로 만들어진 후에는 그 성질이 평(平)해 진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에서 생지황을 쪄서 숙지황으로 만들거나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어 본래의 성미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찻잎도 뜨거운 솥에서 덖고 식히기를 반복하는 제다 과정을 거치면 그 성미가 바뀐다는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역시 "차 자체는 냉한 성질이 있지만, 제다 과정을 거치며 중화(中和)된다"고 말한다. 차의 냉기를 중화시키고, 그것이 몸에 적체(積滯)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다의 최대 관건이며, 냉한 기운을 없애면서도 담박, 소쇄한 맛을 내기 위해 350~400℃의 고온에서 열기로 발효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수분을 건조시키는 과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소장은 "제다를 통해 차의 냉기가 100% 극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를 뜨겁게 마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과 30~4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음다법은 열탕(熱湯)이었으며, 이는 차의 냉기를 중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차인들은 차를 80℃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 우릴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차의 냉한 기운을 중화시키지 못하는 음다법입니다."

▷ 성질이 차다=속이 쓰리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차=냉한 음료'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차의 성질이 차다'는 말과 '차를 마시면 속이 쓰리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차는 소화를 돕고 지방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위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소가 있는데, 찻잎 중의 디오필린이란 성분이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다량의 위산을 분비하게 함으로 빈속에 차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린 느낌을 받게 된다. 박동춘 소장은 "제다 과정에서 살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찻잎의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차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한다.

도원석한의원 도원석 원장(前 한서대 한방병원장)은 "일부 한의학자들이 차가 냉한 음식이므로 몸이 냉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 원장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차의 성질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은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만 문제시 되는 것은 일부 매스컴이 이를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확산하기 때문"이라며 "차의 성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⑥



도학, 차, 선사상 합친 새로운 茶정신 나와
무오 · 갑자사화 거치며 선비 다풍 위축

전대의 선비 다풍이 심오한 정신세계에 크게 영향을 주어 그들의 도학 정신과 안빈낙도의 사상이 차의 정신과 결부된다. 이 때에 김시습, 남효온, 정희량 등의 차인들이 나와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심취해서 도학과 차 그리고 현묘한 선(仙)사상을 조화시켜 차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했다. 특히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는 그 심오한 세계가 측량하기 힘들 정도다.

한편 정계는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가 대립하던 중 결국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이어져 사림파의 젊은 학자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때 많은 차인들이 죽거나 물러났지만 그래도 산림 속에 묻혀 계회 같은 모임을 통해 차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져 불가의 음다 문화는 물론 사찰 인근에서 산출되던 차의 생산량도 점점 감소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차인들이 차를 즐기고 다서(茶書)를 저술했으니, 이 시기에 나온 차에 관한 이론들은 산차(散茶)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차 생활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① 서경덕(1489~1546): 수차례 벼슬을 고사하고 은거하여 차와 술을 즐긴 차인이다.

② 정사룡(1491~1570):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온 차인으로 다구(茶甌) 같은 용어가 글에 나온다.

③ 유구국 천장이 내빙하였는데 청자수기와 부수다완 등이 물목(物目)에 들어 있다.

④ 11월에 이선무(李宣茂)는 다례 간소화를 건의했다.

⑤ <다부>는 한재 이목이 쓴 것으로 성리학의 도학정신과 노장사상을 차의 깊은 뜻에 잘 융화시켜 군자행(君子行)을 지향하는 자신의 의지를 노래했다. 우리나라 다서로서 가장 오래 되고 세계 어느 책에서도 보기 힘든 차의 정신이 담겨 있다.

⑥ 고려 때 불교 융성기의 폐단을 막는다 하여 승려들과 여염집 여자 신도들의 만남을 적극 차단한 조치의 하나다.

⑦ 전예형: 명대 문인으로 차를 아주 즐겨하여 <자천소품(煮泉小品)> 5000여자를 썼다.

⑧ 조지리: 명대 문인이며 <다보속편>의 발문을 쓴 차인이다.

⑨ 장원: 평생 차를 마시며 남긴 1500여자의 <다록>은 우리에게 <다신전>으로 남았다.

⑩ 주왈번과 성시태는 명대 같은 시대 사람들로 <다사휘집(茶事彙輯)> 4권을 집필했다. 일명 <다수(茶藪)>라 한다.

⑪ 호언: 명대 사람으로 <다마유고(茶馬類考)> 6권을 저술했다.

⑫ 무야소구(1502~1555): 차와 가도(歌道)를 결합하여 다도를 중흥시킨 차인이다. 촌전주광(村田珠光)의 수제자로 그의 자득의 정신을 심화시켰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489 서경덕(徐敬德)의 출생 ① 왕이 광릉에 행다례 1491 사전세(寺田稅)를 관청에서 받음 정사룡(鄭士龍)의 출생 ② 1492 사신맞이 다례 김종직, 남효온의 죽음 1493 김시습의 죽음 1495 유구국에서 다완 등을 보냄 ③ 원자탄신 축하의에 차를 올림 이선무의 건의 ④ 1495 <다부(茶賦)> ⑤ 1497 일본통신사에 작설을 내리다 1503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⑥ 1504 갑자사화(甲子士禍) 1505 사사전(寺社田) 폐지	명대 @ 전예형(田藝蘅)의 활동 ⑦ @ 조지리(趙之履)의 활동 ⑧ 1494 귀천(貴川) 묘족 평정 @ 장원의 활동⑨ @ 주왈번, 성시태의 활동 ⑩ 1502 호언(胡彦)의 출생 ⑪	남북조 1502 무야소구(武野紹鷗)의 출생 ⑫





모든 것을 다 나오는 자리에다 내려놓으세요!

인과를 녹이는 이치

문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병 또는 불치병은 억겁을 거쳐서 오는 동안의 인과가 뭉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 즉 과학적인 치료법으로도 인과를 녹이는 이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답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해 낸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왔느냐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바꿔져요.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심성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어야 입력이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나부터 알라' 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모든 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가 되죠. 내가 나부터 알아야 모두가 일치돼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태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내가 태양이 됐다고 해요. 태양이 돼 가지고 그 태양계를 본다면 전부 그게 그거니까 그 속에서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어디서 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진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식물에 벌레가 자꾸 끼니까 독한 약을 줘서 다 죽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벌써 '아, 저런 거를 뿌려서 이러는구나.' 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더 강해져서는 안 죽어요. 그리고 딴 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을 수가 없죠. 천차만별로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모두 혼미해지고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지금 병명들도, 발견한 사람들이 간암이니 백혈병이니 뭐니 뭐니 쭉 이름을 내놓은 거지 그게 본래부터, 전자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아무리 백혈병이다 골수암이다 해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이름이니까요.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으로써 내 육체 안에 들어 있는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흡수해서 작용할 수만 있다면 암이다 뭐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작용하는 거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똥마려우면 똥 눌 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다음 생이 어떻게 되나요?

문 너무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에 그 사람의 후생(後生)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다음 생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는지요?

답 마음을 착하게 썼으면 천당으로 갈 거고 마음을 악하게 썼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테죠. 안 그럴까요? 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누가 그 사람에게 한생각만 가져도,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을 내 의식에다 넣는다면 영영 둘이 아닙니다. 수십 개를 넣어도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죽은 그 마음을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돼 가지고 다시금 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대로 다른 데서 또 태어나게 되면서 잘 살게 됩니다. 몸을 바꿔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만 한다면 소를 수십억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그 업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든가 또는 영계성이라든가 인과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수만 개를 갖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 바다의 물을 떠 보세요, 줄어드나. 또 갖다가 한 그릇 부어 봐도 두드러지지 않죠.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생활에 좀 더 안락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안락, 또 노인들께서는 아프지 않게 몸을 벗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주위의 가정에도 고통을 주지 않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콩깍지가 만약에 익지 않았다면 콩깍지 벗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껍데기가 붙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픈 것이 바로 콩깍지 벗기듯 그렇게 아픈 겁니다. 콩이 잘 익었다면 손으로 툭하고 치기만 해도 그냥 콩깍지가 홀딱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만하면 가도 되겠다' 할 때 옷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일체 만법의 이익입니다. 전부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머무름 없이 공부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림 · 최주현

무무역무라고 하신 뜻은?

문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없고 없고 또 없다는 뜻으로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없고 없고 또 없구나!'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요?

답 아주 쉽게 말해서 뒷발자국도 없고 앞의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 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는 뜻이죠. 그게 그 소리예요. 찰나찰나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으니까요.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찰나찰나 바뀌어 가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 그렇게 욕심을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내가 24시간 살아나가는 대로 24시간조차도 없는 거고 밤낮도 없어요.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대승 소승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왜? 대승도 놓고 소승도 놓아라.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요 남북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 일 뿐이지 그렇게 너 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무역무 이렇게도 말을 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의 자가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없죠. 자가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 이게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리를 공부해 가지고 유식한 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지만 마음공부라는 거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어른과 애가 둘이 아닙니다, 이 도리에는. 애더러 스승이라고 불러라 하니까 저렇게 어린애더러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하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라 했습니다.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늙어서 벌써 애가 돼 왔으니까요. 어른은 지금 애가 되려고 가는 길이구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루 둘이 아니기 때문에, 유식하고 학식이 높고 이름이 높고 그렇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무 이익한 게 없어요. 아는 모든 것도 다 거기다가 내려놓으세요. 아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잘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안되는 것도 그놈이 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되는 것도 그놈이 해결할 거, 잘되는 거는 감사하고 그놈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운전수이니까 잘 끌고 다녀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었는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참으려고 해도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맷돌 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았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 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말고 둥글게, 일정례(一頂禮)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으로써 진실하게 일 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불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 염주의 줄에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化)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컵에다가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구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 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구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세 살 먹은 애, 다섯 살 먹은 애가,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그리고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병고의 액난에서 벗어나려면

문 저는 어려서부터 병고의 액난으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용하다는 곳에 찾아가 보니 조상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스님, 제 모든 병들은 조상 천도를 잘해 주면 자연스레 치유된다 하던데 빚이라도 내서 천도재를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 우리 모두는 공생을 하는 겁니다. 공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자 공체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꼭 명심하세요. 일체는 공심 공체 공식으로써 공용을 하며 공생으로 산다는 것을요. 이 몸에서 세포 하나의 생명체가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같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산 사람들과 둘이 아니게 마음으로 똑같이 섬기세요.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모두가 공심으로 공생하세요. 그럼 죽은 영가들도 공용으로 움죽거릴 거고, 산 사람의 마음이 공용으로 움죽거린다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공용으로 다 움죽거려서 어떤 거든지 요만한 거 하나 걸림이 없어요. 새로 바꿔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또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 살아나

☞30면으로 계속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으니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대로 본래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29면에서 계속

온 그 차원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법을 쓰니까 그냥 공법대로 하나로 거기 붙어서 돌아가는 게 없이 그냥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리하고 둘로 놓고 믿는다 이러지 마시고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 나무가 그냥 붙어 있으니깐 무슨 믿는다 안 믿는다가 없이 죽어도 살아도 그냥 그걸 믿는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모르니깐 그냥 그렇게 해서 확 바꿔 버리세요. 알아들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계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만 우리는 정신계와 모습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둘 아니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깐 이 보이는 물질계 보이는 내 모습은 정신계의 바로 당신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끄달리지 말아요. 조상한테도 끄달리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끄달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야 식구들도 살죠. 돈도 벌 수 없다면서 돈 들어갈 일을 자꾸 생각해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연으로 인해서도 아플 수가 있고 남을 대신해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좀으로 고생을 그렇게 했다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가 아프고 그렇게 한데도 자기를 그렇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길렀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내 몸으로 우정 그렇게 하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고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부모들도 죽은 조상들도 우리가 사는 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발짝도 나가 보지 않고 세계를 돌지 않아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다 알게 되고요. 나쁘고 좋고를 짐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기면, 주인공이 하나 둘입니까? 이 허공에 꽉 찰래도 꽉 찰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시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답답하게 가셔야지 낙오되시는 분은 요담에 또 아이고! 한탄을 하게 된다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생각의 요량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면서 산 이 쪽 저 쪽을 보니까 꽃이 만발을 했는데 사이사이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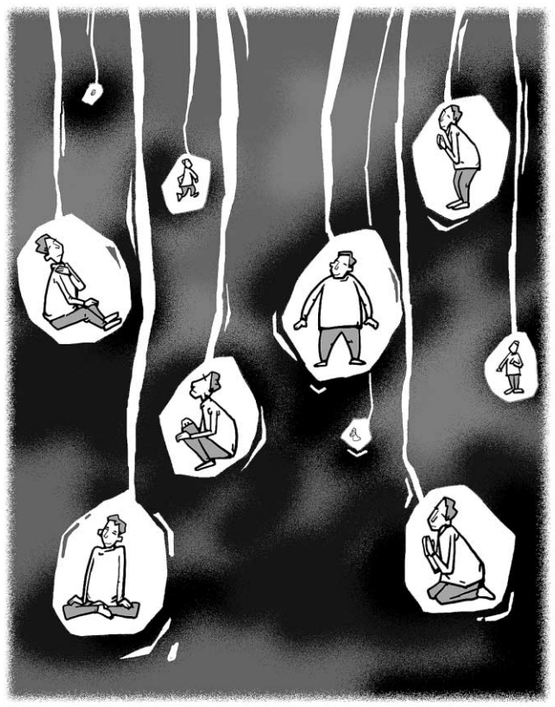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 그렇고 그냥 웃고 야단이에요. 아주 좋아서 말입니다. 향기가 그냥 돌고 그래서 너무도 좋아서 이렇게 내 손까지 벌렸어요. 자꾸 와서 도니깐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 불(佛)이지. 부처는 불이에요, 불. 그래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버리지 않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없이 그냥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모두가 자유스러우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 자불(自佛)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일체제불하고 우주 혹성 지구 이런 데에도 구석구석이 염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지구가 아주 넓은 것 같고 그렇지만 지구가 좁다고 생각하면 좁쌀알갱이만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면서도 요사스럽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닌 마음이라야만이 요사스럽지를 않는 겁니다.

꿈에서는 맡겨지지 않는데

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에 대해서 법을 청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에는 어떤 경계에 닥칠 때 주인공자리에 맡기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도 가라앉고 또 그 일이 잘 해결돼서 그때마다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스님께 늘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그런 경계에 닥친다고 할 때에 생시에는 얼른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인공 자리에 맡겨지는데 꿈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야 꿈속에서도 쉽게 쉽게 그 자리에 맡기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을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 더퍽 그냥, 우리가 죽을 때에 다 거기다가 일임하고, 그냥 골딱할 때에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냥 다 정말이지 진짜로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그 당시에 잘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관할 수도 있지만,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믿으면 과거가 자기 앞으로 오더라도 이걸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게 진 빚이라면 진 빚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될 때도 있고 때로는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는 불가부득이 해야 할 문제, 과거에,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몸체가 뼈가 없고 아주 그냥 흔덩흔덩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드러누워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가나 하구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 개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믿는다 안 믿는다가 없이 죽어도 살아도 그냥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한테 지어진 문서 그거를 없애려면 저승에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문서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승도 한 발짝이요 천당도 한 발자국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만리 아예 까마득한 문제죠.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 거기고 한 발자국이 거기지만,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거길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되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깐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있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하려면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지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둘이 아닌 까닭에 가면 쪽지가 나올 수 있죠? 쪽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 여러분 앞에 문제로 돌아와야만 주인공에다가 돌려놓고 관하면서 녹일 텐데 자기 근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과거의 일이 아무리 앞에 다가와도, 여러분의 앞에 있어도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풀려나가고 녹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생시뿐만이 아니라 꿈을 꿀 때도 그 모습이 화해지고 둘 아니게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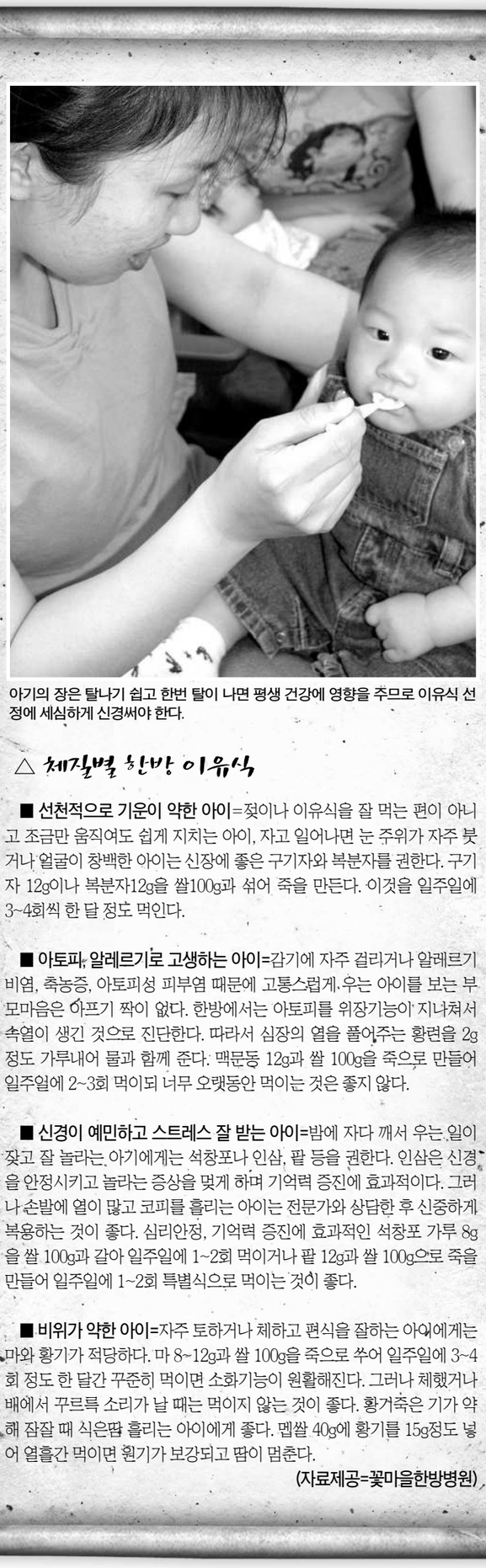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00, 팩스(02)737-0697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불 1인용 ~~7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은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7. 4 월 · 화반(주 · 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영산범음집 한문본 증정)
영남범음범패집 카세트. 비디오와 상용천도집. 영산범음집 한문본을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아기의 장은 탈나기 쉽고 한번 탈이 나면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이유식 선정에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

△ 체질별 한방 이유식

■ **선천적으로 기운이 약한 아이**=젖이나 이유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아이,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자주 붓거나 얼굴이 창백한 아이는 신장에 좋은 구기자와 복분자를 권한다. 구기자 12g이나 복분자12g을 쌀100g과 섞어 죽을 만든다. 이것을 일주일에 3~4회씩 한 달 정도 먹인다.

■ **아토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고통스럽게 우는 아이를 보는 부모마음은 아프기 짝이 없다. 한방에서는 아토피를 위장기능이 지나쳐서 속열이 생긴 것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심장의 열을 풀어주는 황련을 2g 정도 가루내어 물과 함께 준다. 맥문동 12g과 쌀 100g을 죽으로 만들어 일주일에 2~3회 먹이되 너무 오랫동안 먹이는 것은 좋지 않다.

■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아이**=밤에 자다 깨서 우는 일이 잦고 잘 놀라는 아기에게는 석창포나 인삼, 팥 등을 권한다. 인삼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놀라는 증상을 멎게 하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손발에 열이 많고 코피를 흘리는 아이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심리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인 석창포 가루 8g을 쌀 100g과 같아 일주일에 1~2회 먹이거나 팥 12g과 쌀 100g으로 죽을 만들어 일주일에 1~2회 특별식으로 먹이는 것이 좋다.

■ **비위가 약한 아이**=자주 토하거나 체하고 편식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마와 황기가 적당하다. 마 8~12g과 쌀 100g을 죽으로 쑤어 일주일에 3~4회 정도 한 달간 꾸준히 먹이면 소화기능이 원활해진다. 그러나 체했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때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황거죽은 기가 약해 잠잘 때 식은땀 흘리는 아이에게 좋다. 멥쌀 40g에 황기를 15g정도 넣어 열흘간 먹이면 원기가 보강되고 땀이 멈춘다.

(자료제공=꽃마을한방병원)

“무얼 먹여야 탈 없이 잘 클까”

‘한방 이유식’으로 우리 아기 튼튼하게



5월27일 서울 강동보건소 ‘행복한 이유식’ 교실에 참가한 엄마들이 직접 한방 이유식을 만들고 있다.

돌이 갓 지난 윤수는 벌써 여름을 타는 모양이다. 이유식을 먹지도 않을뿐더러 억지로 입에 넣어주면 뱉거나 짜증을 내면서 울어버린다. 토하거나 설사를 해도 아직 젖도 안 뗀 아기라서 함부로 약을 먹일 수도 없다. 자연히 윤수 엄마 오미영(32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오씨는 “윤수에게 무엇을 먹여야 탈 없이 잘 클까”가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여름을 타고 허약한 아이들은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한방 이유식이 제격이다. 기가 약하고 소화계통이 약하며 맥이 불안정하게 뛰는 아이에게 보약처럼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방 이유식은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고형식에 적응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유식에 사용하는 한약재는 대부분 약성이 강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재료들로,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여도 좋은 것들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한방 이유식 방법은, 한약재를 소량씩 첨가하거나 팔팔 우려낸 물로 죽을 쑤어 먹이는 것이다. 꽃마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장수재 과장은 “한약은 부작용이 없지만 아이의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생후 6개월 부터…약성 강하지 않아 안심
한의사와 상담후 체질 따라 약재 선택
변 상태 살피고 일주일에 2~3번이 적당

며 “한방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해서 약재를 택하고, 2~3일 정도 변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한다.

부작용이 없고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이는 것 역시 금물이다. ‘행복한 이유식 교실’ 강좌를 진행 중인 강동보건소 이현정 식품영양사는 “한방 이유식만 먹여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다”며 “한방 이유식은 건강 보조식품이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만 먹이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8)

균형 · 조화는 건강 장수의 첩경

소화계가 온전하여 소화과정이 원활해야 룽 · 때빠 · 왜껜 세 기본에너지의 균형과 7대 체구성성분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조화를 바탕으로 세 배출기능 역시 원만히 이루어져 몸과 마음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균형과 조화야말로 건강과 장수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건강이 없이는 완전한 삶의 향유도 물질적 부의 성취도 나아가 영적 깨달음도 한갓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은 전부인 것이다.

건강을 해치는 병인을 티베트의학에서는 크게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으로 파악한다. 티베트의서에 만병의 근원은 무지(無知)라 하였다. 마치 새가 제아무리 높게 날아올라도 자기 그림자는 떨쳐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중생도 타고난 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본적인 무지로부터 84000가지나 되는 병고(病苦)가 생긴다. 84000가지

만병의 근원은 무지와 탐진치 삼독에서 생겨
‘그대로 즐겁게’ 티베트인들의 행복감 원천

병은 1616가지로, 그것은 다시 404가지 질병으로 분류된다. 이 404가지 병 역시 기본에너지의 불균형에 기초하여 다시 101가지 일차 질환으로 압축된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무지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생긴다고 하셨다. 불교의 이 탐진치 마음의 삼독을 각기 룽 · 때빠 · 왜껜이라는 세 기본에너지와 상관지음으로써 티베트의학의 불교적 세계관과 전인의학적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다. 무지와 탐진치 삼독을 장기적으로 만병의 근원적 원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탐욕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키우는 소금물과 같다. 욕망에는 끝이 없어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애착 집착 욕심 욕망 갈망 그 모두 탐심이 아닌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영원한 행복이란 물질적 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사람들은 벌써 행복의 찬가로 목이 다 쉬어버렸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영원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체 무상의 교지를 말한다. 내일 일도 당장 어찌될지 모르면서 먼 미래를 미리 기약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공수래공수거! 인연 따라 왔다가 때 되면 언젠가 홀연히 이승을 떠나면 그만이다. 그 같은 믿음으로 해서 티베트인들은 항상 있는 그대로 만족해하며 즐겁게 산다. ‘빚 없으니 부자’라는 순박함이야말로 궁핍 속에서도 티베트인들의 얼굴에 충만한 행복감의 원천일 것이다. 애착은 탐욕을 낳고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불면증은 다시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켜 룽의 미세한 흐름을 방해해서 심한 경우 광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티베트의서에는 탐욕이 붉은 수탉으로 상징되는데 수탉은 동물계에서 성욕이 가장 유별난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진(瞋)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 가장 유해한 내부의 적이다. 진, 즉 성냄은 시기 질투 자만 이기심 그리고 ‘난 옳고 넌 그르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성난 사람은 일을 자초지종 찬찬히 헤아려 볼 참을성과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는 조급함으로 해서 일을 그르치는 불운과 실패가 잇따른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탓이라 비난하고 독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며 심지어는 상해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 화났을 때 마치 화가 우리 몸 중간쯤 간과 담낭 부근에서 오는 느낌을 받는다. 화났을 때 우리는 ‘피가 끓는다’거나 ‘열 받는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화가 나면 실제 안색이 변하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말이다. 화난 상태가 지속되면 열에너지를 교란시켜 때빠 관련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티베트의서에 진의 상징은 초록 뱀이다. 화나려고 할 때는 자신이 불같은 화를 녹여버릴 수 있는 눈 덮인 설산 앞에 서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화가 조금 잦아들 것이다. 성난 사람의 잔뜩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을 떠올려보는 것도 화를 삭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사 과 문

저자는 2004년 1월 선재마을 선재학교(교장 유지선)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선재랑 떠나는 인도여행’에 참가하고 나서, 2005년 4월 6일 『소똥 줍는 아이들』(부제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도 이야기, 도서출판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와 출판사는 선재학교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그 중 많은 사진을 책에 실었음에도 그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다룬 인도 여행기록을 제외한 인도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선재학교에서 발행한 인도 여행교재 ‘선재랑 떠나는 인도여행’의 내용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밝히지 못해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재학교와 독자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음을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5년 6월 일

『소똥 줍는 아이들』 저자 최 시선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한자 교육 지도사 육성
● 목적 : 1. 한자 공부를 통해 [우리말, 우리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사랑 할 수 있도록 양성.
2. 최근 각계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들을 쉽고 흥미롭게 지도 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함.
개강일 2005년 6월 17일(금요일 오후 2시~6시)
연수시간 80시간(20주 완성)
수강료 50만원(교재비와 시험 참가비는 별도)
● 교육과정 : 1. 한자 구성의 원리
2. 부수해설
3. 상용한자 자원, 자해풀이
4. 한자 지도 실습
5. 한문 문법 지도등
시험날짜 : 연수 지도 후 확정
합격후 취업 알선
● 장소 :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지하철 1호선 이용 신설동에서 하차 5번출구 40m 지점
02)929-4646,4643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기치유 란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
한국기치유 연구회 윤한흥회장 직접수련지도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수련생 모집
초급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 기간 : 2005년 6월 18일~8월 13일(9주과정)
● 교육 시간 : 오후 2시 30분~5시 30분 매주 토요일
● 교육 내용 : 기초이론 및 명상법
기를 강화하는 수련
치유기 개발하기위한 특수명상
기치유 실습
* 참고 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 (윤한흥 지음)
문의 하세요... http://gi-clinic.pe.kr ● 기치유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2268-1500



금낭화는 사자산의 청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식물이다.



까막딱다구리는 크낙새 다음으로 몸집이 큰 새이다. 지난 1988년 이후 법흥사의 오랜 지표종이 되었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1) 사자산 법흥사



외눈이지옥사촌나비는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화사한 5~6월에 나타나 꽃의 꿀을 찾아다닌다.



내화수림대는 산불이 주요 건축물로 번지거나 또는 경내의 화재가 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 뒤쪽의 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새·꽃·나비·백년 장송 어우러진 보궁

까막딱다구리 등 천연기념물 4종 포함 140여종의 산림조류 서식

법흥천 주변 '펜션' 수달 환경에 악영향
극락전 뒤 내화수림대 산불 예방에 효과

영월 사자산 법흥사는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 세운 적멸보궁의 하나이다. 법흥사가 크게 일어선 것은 징효대사가 이곳에 구산선문의 하나인 흥녕선원을 짓고 사자산문을 열고부터이다.

원주에서 신림을 지나 주천 무릉교를 건너면 수주면(水周面)이다. 이름 그대로 물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주천을 속세(俗世)의 땅이라고 한다면, 수주면은 신선의 땅이다. 주천강 건너 첫 마을이 무릉(武陵)이요, 그 다음 마을이 도원(桃園)이다. 그 선계(仙界) 위에 불계(佛界)인 법흥(法興)마을이 있다. 법흥사 적멸보궁 위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여기서 한 소식을 얻으면 도솔천으로 날아간다.

주천강변 요선암(邀仙岩) 위에 고려 시대 마애불상이 앉아 있다.

마애불 아래 강변에 기기묘묘한 화강암 암반이 절경을 이루고, 500여평의 암반에는 여러 모양을 한 돌개구멍이 많이 패여 있다. 이 돌개구멍을 지질학에서는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한다.

법흥천은 요선암에서 마쟁이-새터-광대평을 지나 법흥마을로 이어진다. 법흥천 주변은 근래 들어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서서 자연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다. 몇 해 전만 해도 수달 배설물이 법흥천 물가에서 심심찮게 관찰되었는데, 이번 탐방에서는 한 차례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실만으로 법흥천에 수달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수달의 환경이 전보다 많이 파괴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터마을 도로변에는 큰 자연석에 새긴 황장금표(黃腸禁標)가 있다. '금(禁)'자를 파자하면 '임(林)+시(示)'이다. 즉, 숲을 지켜보라는 말이다. 사자산 일대는 예로부터 질 좋은 소나무가 많아서 궁중에서 특별히 관리했는데, 궁중에서 쓸 재목을 남벌하지 말라는 이 금표가 그때의 산증인이다.

법흥사 절골 입구에 서 있는 일주문은 절에서 2㎞ 가량이나 앞서 나와 있다. 근래 별나게 우람하게 지은 것은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자산의 지세를 누르기 위한 풍수비보 때문이다.

일주문에서 법흥사까지는 2㎞나 된다. 아쉬운 점은 절골이라는 지명이 무색하게 인도 없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다 그야말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길이라는 점이다. 산중 오지라해도 도무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다. 절에서 당국과 협의해서 가로수를 심어 숲길을 조성했으면 싶다. 이 경우 계곡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전나무 숲길이 무난할 것이다.

법흥사 주변의 야생화들은 일년 중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만개한다. 길섶과 풀밭과 양지숲 속에 숨어 있던 야생화들도 그동안 저마다 각양각색의 꽃들을 몰래 만들어 두었다가 이 날을 위해 일제히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자산의 청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금낭화이다. 마치 과일송이 같은 꽃망울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아름답기 그지없다. 추위에도 강하고 번식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산간절의 조경용 초본류로는 첫손에 꼽힌다. 재배농가들이 많아서 전국의 꽃집 어디서나 야생원종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배수가 잘 되고 영양분이 있는 사질토에다 심는 것이 좋다.

징효대사의 부도 옆에 노거수 밤나무가 있다. 안내판에 수령이 200년 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절집의 밤나무 가운데 최고령일 것이다.

법흥사 주변은 꽃이 많고, 일사량이 많아서 다양한 나비들이 나타난다. 외눈이지옥사촌나비 한 마리가 탑돌이 하듯 극락전 주변을 맴돌고 있다.

뱀눈나비과에 속하는 나비들은 모두가 양쪽날개에 뱀의 눈처럼 생긴 둥근 점을 갖고 있다. 외눈이지옥사촌나비도 칙칙하고 어두운 날개 양쪽에 점이 나 있다.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화사한 5~6월에 나타나 꽃의 꿀을 찾아다닌다. 가끔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축축한 땅에 앉아 수분을 찍어먹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자산 골짜기를 연잎에다 비유하고, 적멸보궁이 앉은 자리를 연꽃봉오리에 비유했다. 그래서 이름도 연화봉이다.

극락전과 삼성각 뒤로는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조성되어 있다. 내화수림대란, 산불이 주요 건축물로 번지거나 또는 경내의 화재가 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 뒤쪽의 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내화수림대의 폭은 15~20m가 적당하다. 특히 전각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필수적이다.

중대 가는 길은 소나무숲으로 그윽하다. 수령 100년에 이르는 장송들이 곳곳에 장관을 이루고 있다. 솔숲 간간이 활엽수들이 박혀 있지만, 소나무의 당당한 위세에 밀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참나무에 약한 면모를 보여온 소나무들도 이렇게 우뚝나게 몸집이 좋으면 활엽수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흥사 숲은 산림조류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조류학자들 사이에 소문나 있다. 근래 나온 보고서에도 사자산 일대에는 새와 텃새 14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조류만 해도 4종이 서식하고 있다.

때마침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다구리 한쌍이 법운당 요사채 앞 소나무숲으로 날아들어 사진 찍기 좋도록 포즈를 취해준다. 까막딱다구리는 크낙새 다음으로 몸집이 큰 대형 딱따구리이다.

지난 1988년 4월 5일 처음 기록된 이후 까막딱다구리는 법흥사의 오랜 지표종이 되었다.

까막딱다구리 말고도 많은 새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법흥사 곳곳에서 둥지불사를 한다. 찌르레기는 부도 옆 밤나무 구멍에다 새끼를 치고, 딱새는 새로 지은 범종각 대들보 모서리에 둥지를 틀고, 할미새는 원음루 옆 석축 틈에다 둥지를 틀고, 노랑할미새는 앞서 지나온 개울 옆 돌틈에다 새끼를 까놓았다.

계곡을 따라 임도(林道) 숲길이 나 있다. 20~30년생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혼효림 숲길은 그 옛날 마을 사람들이 횡성 안흥장을 보러 넘나들던 고갯길이라고 한다. 그 후, 재목을 실어나르는 산판길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숲길이 많이 넓어졌다.

그윽한 숲속을 걷다보면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청아하게 따라온다. 숲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산의 자연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바람소리는 숲과 식물의 다양성을 짐작하게 해주고, 물소리는 수량과 수질을 짐작하게 해주고, 새소리는 조류와 곤충상을 짐작케 해준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여시아문

본래면목이 완전한 황금빛 그대여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 위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의 게송집 '황금빛 봉황이' 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구(死句)를 들고 어리석은 의심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올바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본인이 옳다고 고집하는 데야 별 수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성을 내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 고집을 높이 살 만은 하나,
그렇다고 공부되어진 것은 또 무엇인가.



수불 지음
안국선원 선원장

황금빛 봉황이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통신판매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Tel:02)2004~8220, 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